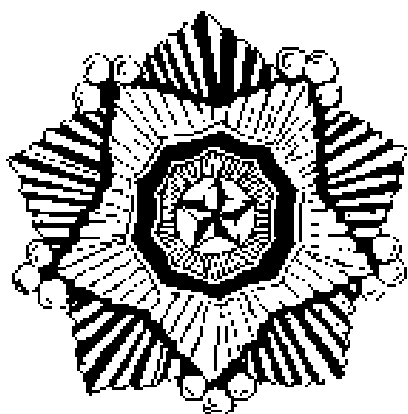




8

주체 92 (2003)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 92(2003)년 제8호

(루계 제 670 호)

◇◇◇◇◇◇◇◇◇◇

차례

◇◇◇◇◇◇◇◇◇◇

8월 15일	4
노래하세 새 전설	4
4 년전에 예언하신 해방의 해	5
원동이어!	6
다시 또 한번 수령영생서사시의 빛나는 모범앞에서	7
우리는 빨찌산후손들	12
명언해설	13
꿈결에도 장군님 뵈오면	13
그늘이 많이 지는 나무	14
영원한 나의 집	14
기러기떼 날은다	15
조국이어! 병사들을 자랑하라	27
통일은 이렇게...	28
대학 시간	29
《박취구실》	38
고향의 이름은 어떻게 빛나는가	39
전기로의 동음소리 외1편	41

나의 시	41
달마산기슭에서 외1편.....	42
아이들이 달려간다.....	42
바줄당기기	43
승냥이	44
환상과 현실	62
내 고향아!	63
로씨야인민의 장한 딸 조야.....	64
63명 중의 1명	65
넓어지는 오솔길	69
홍명희와 장편력사소설 《림걱정》	70
결혼축시	73
류바-류부슈까	74
증언자의 고발.....	80

8월 15일

류명호

이날은 이 나라 사람들이
열렬하게 온몸을 휘저어놓는
숨가쁜 기쁨과 환희에
마르고 탄 가슴을 풀어헤치며
거리거리에 뛰쳐나온 날이다

이날은 눈물에 젖은
만세의 열광에 하늘이 들리우고
뜨거운 비물처럼 쏟아지는
그 눈물의 소나기에 이 땅이 다 젖은 날이다

이날은 긴긴 세월
숫덩이처럼 보이던 하늘의 태양이
축등인양 밝은 웃음을 뿌리고
죽은듯이 머리 떨구고 있던
산야의 꽃들이 한껏 향기를 뿜어올린 날이다

이날은 피눈물을 싣고
무겁게 흐르던 두만강이 압록강이
생명의 웨침인양 와와 소리치며 흐르고
이 나라 한끝에서 한끝까지
생명의 빛이 시작된 날이다

이날은 일제의 피진 눈알 같은
일장기가 불에 타없어지고
패망한 섬오랑캐무리들이 구데기마냥 뿔으며
어지러운 도랑물처럼 바다를 건너가고
어제날의 망국노가 이 땅의 주인으로 된
있어야 할것이 있고
없어야 할것이 없어진 날이다

아 1945년 8월 15일
조국해방의 이날은
항일의 20성상우리 수령님
이 세상 천만고생 다 하시며
백두에서 안고오신 날이다
백두의 총대로 조국을 안고오신 날이다

하여 우리 인민은
절세의 애국자
김일성대원수님께
최대의 영예와 감사를 드리거니
아, 1945년 8월 15일
이날은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고 꺼져버렸던
조선이
김일성조선으로 세상에 다시 태어난 날이다!

가사

노래하세 새 전설

류민호

대덕산병사들과 기념사진 찍으실 때
비구름 갈라지고 밝은 해 솟았다고
하늘땅도 천출명장 장군님을 안다고
전사들은 신이 나서 새 전설 전해가오

동이 트는 이른새벽 관문점을 찾으시니
호위병의 마음인가 젖빛안개 피웠다고

하늘땅도 천출위인 장군님을 안다고
인민들은 신기해서 새 전설 전해가오

2월의 정일봉에 쌍무지개 드리우고
한나산엔 해무리가 신비경을 펼쳤다고
하늘땅도 통일령수 장군님을 안다고
삼천리가 들썩하여 새 전설 전해가오

4 년전에 예언하신 해방의 해

우리 나라가 언제면 해방이 될가?

여기 왕청땅 자피거우마울의 조선사람들은 모여앉으면 이 수수께끼를 풀려고 이야기관을 펼쳐 놓곤하였다.

나라를 빼앗기고 이국살이를 하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조국해방은 일일천추로 바라는 소원이었다.

그런데 이즈음에 마을에 날아들어오는 소식은 모두 불길한것들뿐이었다.

주체30(1941)년 여름이었다.

이해 봄에는 당시 쏘련과 일본이 손을 잡고 화친을 했다는 소식이 날아들더니 며칠전에는 도이칠란드군대가 쏘련(당시)을 침공했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하루밤 자고나면 도이칠란드군대가 쏘련(당시)의 어느 도시를 점령했고 또 그 다음날에는 또 어느 도시를 먹었다는 소문이 연방 날아왔다.

《들러오는 소문이 하도 흥흥하니 아마 내 당대에 고향땅에 가보긴 글렀는가 보네.》

마을의 좌상로인이 한숨을 쉬며 하는 말이었다. 세상리치에 밝다고 늘 마을의 크고 작은 일들을 주관하곤하는 로인이었지만 독립이 언제쯤 될것 같은가하는 물음에는 전전공공하였다.

《그래 자네 생각은 어떤가?》

이번에는 좌상로인이 마을에서 선각자로 불리우는 젊은이에게 물었다.

한때 원동에 들어가 무슨 활동을 하다가 마을에 와서 계몽사업을 하는 젊은이인지라 혹시 무슨 들을소리가 있을가해서 묻는 말이었다.

젊은이는 한동안 갑자르다가 이런 말을 하였다.

《도이칠란드군대가 땅크, 비행기로 무장한 170개사단의 대병력으로 들이쳤으니 내 생각에는 아마 모스크바도 얼마 못가서 먹히우게 될것같습나다.》

《그래서?》

《세계에 유일한 사회주의국가가 없어지면 조선 독립은 힘이 들것 같습니다.》

《우리아 조선인민혁명군이 있지 않나?》

《그거야 두말할것 있습니까!》

《그러니 독립이 언제 된다는건가. 딱 찍어 말좀 하제나.》

《글쎄요. 10년후에 되겠는지. 20년후에 되겠는

지...》

젊은이는 씨원한 대답을 못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실망하였다.

과연 조선의 해방은 언제 이룩되려는지?

엄혹한 그 시기 이것은 그 누구나 간절히 바라고 알고싶어 하는 수수께끼였다.

마을사람들은 이 수수께끼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풀수 있다고 생각하고 수령님께서 마을에 오실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날 마침내 조선인민혁명군소부대를 거느리시고 왕청일대에서 활동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마을에 잠시 들리시었다.

《장군님, 우리 조선이 언제쯤 독립됩니까?》

막혔던 물목이라도 터진듯 마을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물어보았다.

마을사람들에게 복잡한 세계정세와 파시즘멸망의 불가피성, 조선인민혁명군의 전과를 알려주시며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들의 한결 같은 소원을 헤아리시고 확신에 찬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앞으로 3~4년간 더 참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꼭 광명한 날이 옵니다.》

그것은 조성된 정세와 적아간의 역량관계를 구체적으로 타산하신데 기초한 과학적인 예언이었으며 또 기어이 그렇게 하고야 말리라는 확고한 결심이였다.

3~4년, 것처럼 고대하던 해방의 날이 눈앞에 있던 말인가.

마을사람들은 환성을 올리였다. 그때부터 그들은 손꼽아 그날을 기다리게 되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지나 3년째되는 해에도 해방은 오지 않았다. 그러자 실망하는 사람도 없지 않았다.

그런데 예언의 마지막 4년째해인 주체34(1945)년 8월에 과연 일제가 패망했다는 감격적인 소식이 마을에 날아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을을 다녀가신지 4년만에 조국이 해방된것이였다.

놀라움과 감탄을 금치 못해하는 마을사람들 앞에서 좌상로인은 무릎을 치며 말했다.

《과시 우리 장군님은 하늘이 낸분이 분명쿠나. 그렇지 았구서야 칠혹같이 암담하던 그 세월에 어떻게 오늘을 내다보실수 있단말인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는 위대한 령도자이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만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구호중에서

원동이어!

장윤길

내 언제한번 가본적없건만
마음속엔 언제나 정다운 곳 원동
내 사는 평양에서
멀고 먼 곳이건만
마음속엔 언제나 가까운 곳 원동이어!

어디냐
우리 수령님
항일의 성스러운 위업이 어려있는 땅
못잊으시여 자주 찾으시던 곳이어!

정녕 어디냐
백두의 녀장군
김정숙어머님의 뜨거운 숨결이
력력히 숨배여있는 땅이어!

진정 어디냐
위대한 우리 장군님
어린 시절 자욱이
추억깊이 새겨져있는 땅이어!

아, 그 뜻깊은 땅
생각깊은 땅에
경애하는 우리 장군님
또다시 거룩한 자욱을 찍으시며
자주의 한길을 넓혀가셨나니
그날의 력사의 기관차여,
행복의 령마루에로
기쁨을 싣고 달린
《인민행》 렬차여!

하싼

꿈쏜물스크-나-아무레스
하바롭스크시
올라지보스포크
가시는 곳마다에서
우리 장군님
정의의 목소리 울려주시고
태양의 미소를 안겨주셨나니
잠자던 동토대도
쨍쨍 태동하며 녹아내린듯

온 세계가
우리 장군님을 우러러
눈길을 모았던 원동
온 인류가
우리 장군님을 우러러
선망의 눈길을 모았던 원동
새 세기 평화의 디딤돌이
굳게 놓인 원동이어!

너는
조로친선의 새로운 상징으로
이 지구상에 빛나게 해주신
우리 장군님의 은덕을
길이 간직하리라

인류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새로운 리정표를
너의 한복판에 세워주신
만민의 아버지
우리 장군님의 위업을
자자손손 길이길이 청송하리라!

다시 또 한번 수령영생서사시의 빛나는 모범앞에서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

김성우

선군시대 시가문학의 생명은 이 위대한 시대를 창조하고 이끄는 령장의 사상정서세계를 누가 더 훌륭하게 구현하는가에 달려있다. 우리는 그 숭고한 모범을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김만영작)에서 보았다.

경애하는 김정은장군님께서 시대의 명작으로 내세워주신 서사시는 선군혁명시가문학이 그 사상성에 있어서 얼마나 높은 철학세계, 인류지성의 상상봉에 오르고 있는가를 보여준 명작중의 명작이며 또한 그 예술성에 있어서 얼마나 아름다운 미의 세계, 위인형상의 절정에 서있는가를 보여준 걸작중의 걸작이다.

구성의 주체적대는...

선군혁명시가문학, 특히 수령영생시가문학의 가장 본질적특징은 그 구성에서부터 주체적대가 확고히 선데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 서사시와 관련하여 밝혀주신 새로운 문예학적개념인 구성의 주체적대란 무엇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문학작품에서 수령의 형상은 반드시 수령, 당, 대중의 3위1체의 원칙에서 당과 대중과의 연관속에서 그려야 한다.》

수령을 3위1체의 견지에서 그려내는것은 수령의 형상을 응당한 높이에서 격이 있게 그려내는가, 못그려내는가를 규정하는 본질적징표로 된다. 3위1체의 관점과 립장에 설 때에는 수령을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인 관계속에서 보면서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중심으로 형상하게 된다.

구성에서 주체적대를 확고히 세웠다는것은 바로 혁명의 주체인 수령, 당, 대중의3위1체의 원칙에서 수령의 역할, 당의 역할, 인민의 역할이 하나로 통일되어 안겨오도록 구성의 대를 세웠다는것이다.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는 시의 전반구성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 그리고 우리 인민대중의 심리와 정서, 활동이 완전무결한 통일속에서, 혼연일체속에서 안겨오게끔 구성의 대를 세우고 있다. 바로 여기서 일찌기로써야시인 마야콥스끼가 레닌의 서거를 두고 노래한 서사시 《올라지미르 일리이치레닌》과 구별되는 우리식 송가서사시의 주되는 특징이 있는것이다.

서사시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종래의 개념대로 서둘러 말하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라고만 해야 할것이다.

그러나 서사시의 기본사건은 위대한 수령님 서거후 1년간의 추억이며 그 1년간 아버지수령님을 그토록 못잊어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생활과 인민의 모습, 력사적인 추도대회장면인것이다.

사실상 아버지수령님은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은 시인의 환상속에서, 그의 가슴속에 갈피갈피 간직된 한생의 회고속에서 그려질뿐이며 작품의 시작부터 끝까지 대하처럼 굵이쳐흐르는 그리움의 애끓는 정서와 수령님서거후 1년간 벌어진 그 모든 력사적사건들의 묘사속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과 인민이 등장할따름이다.

서사시의 주인공은 영생의 태양을 중심으로 하여 변함없이 숨쉬고 활동하는 사회정치적생명체이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서거하시였으나 그 위대한 후계자의 빛나는 모습속에서,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더 역세계 약동하는 사회정치적생명체속에서 영생의 숨결을 안고 여전히 살아계시는것이다.

인민들과 함께 있어야
제일 좋아하시고
제일 편안해하시고
인민들과 함께 있는것을
세상 제일 큰 락으로 아신
수령님이시기에

수령님과 함께 있어야
제일 기쁘고
제일 즐겁고
수령님과 함께 있는것을
세상에서 제일 큰 행복으로 아는
인민이기에

수령님의 그 소원
인민의 그 념원을 담아
주체의 최고성지 여기에 펼쳐
수령님과 인민이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시인은 계속하여 《수령님의 생각/수령님의 마

음이자/ 친애하는 그이의 생각이고 마음》이며 《그이의 마음이자/ 우리 인민의 마음》이라고 읊었다. 바로 이렇게 서사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화폭의 중심에 높이 모시고 그이의 시점과 인민의 시점을 서로 교차시켜 영생의 태양을 그려주고 있다.

아버이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인민을 돌보시고 인민의 념원을 지켜 아버지수령님을 영원히 받들어 모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감정선을 주축으로 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끝없이 그리워하고 변함없이 흠모하며 따르는 인민의 감정선과 서거후에도 영생의 절정에서 이 사회정치적생명체에 생명의 호흡을 더하고 심장의 박동을 보태주고 계시는 아버지수령님의 감정선을 하나로 통일시켜 구성과 감정조직의 대를 세워나간데 이 작품이 가지는 독창성과 본질적특징이 있다. 이리하여 이 서사시는 수령, 당, 인민대중의 통일체인 우리 혁명의 주체가 하나의 심장이 되어 부르는 일심단결의 송가로 되었으며 단순히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송가에 그치지 않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송가로도 이처럼 자기 수령을 영원히 받들어모실줄 아는 우리 인민에 대한 송가로도 되었다. 여기에 우리 식의 수령영생사가문학의 새로운 형상세계를 개척한 작품의 주되는 공적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반드시 언급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 서사시를 두고 구성 자체가 폭이 넓다고 평가하시였다. 이것은 구성의 폭에 관한 리해도 새롭게 가질것을 요구한다.

사실상 이 서사시는 긴 작품이 아니다. 등장인물관계도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 그리고 《나》 혹은 《우리》로 대변된 인민이 있을뿐이며 사건선도 여러 갈래로 폭넓게 전개된것은 없고 수령님 서거후 1년간의 전설적인 일화들과 력사적인 추도대회장면이 그려졌을뿐이다. 페이지수도 많지 않다. 그러면 종래대로 구성이 단출하고 규모가 아담하다고만해야 할것인가.

구성폭이란 그 작품이 안고 있는 생활범위이며 작품의 형상구성속에 포섭된 내용의 범위이다.

서사시는 3위1체의 원칙에서 구성의 주체적대를 확고히 세움으로써 페이지수는 많지 않아도 그속에 우리 사회정치적생명체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도 폭넓게 보여줄수 있었으며 아버지수령님과 더불어, 경애하는 장군님과 더불어 세계사적위업을 이룩해 온 우리 혁명의 전력사를 전면적으로 일반화할수 있었던것이다.

이 서사시의 구성속에는 말그대로 모든것이 다 있다. 여기에는 아버지수령님의 한생이 다 있고 조국과 인민, 혁명의 한세기 력사가 다 있으며 수령님의 서거와 관련하여 피눈물의 바다에 잠긴 조선과 함께 세계가 다 있다. 또한 이 서사시에는

수령의 혁명위업계승과 관련되는 모든 당정책적 문제들이 다 있다.

이런 의미에서 서사시는 구성자체가 폭넓다고 하는것이다. 시인은 대담하게도 수령의 혁명력사의 어느 한부분, 조국과 인민, 혁명이 제기하는 문제의 어느 한 측면, 수령의 활동의 어느 한대목만을 다치려고 한것이 아니라 비록 작은 가슴에라도 그 전체를 안고 노래하려고 시도하였다. 그것은 성공하였다.

물론 그것은 고도로 집약화된 형상구성으로 담보되었다. 인물관계도 사건도 고도로집약화하여 세기가 교차되는 속에서 이 세기들에 있었고 있으며 있게 될 그 모든 거창한 력사적흐름을 일반화한 거대한 시적재능과 기교에 우리는 탄복한다. 더우기 그 하나를 통해 열, 백을 표상할수 있는 인상적세부들을 선택하여 일반화의 폭을 넓힌 세련된 기교에 매혹된다.

우리 수령님

북방의 흰눈을 차우에 얹고

잠든 거리를 누벼 조용히 들어서시던 곳

아이들이 기다린다고

설맞이궁전으로 서둘러 떠나시던 곳

이 한개 련속에 이 위대한 집에서의 우리 수령님의 혁명활동과 위인적품모가 천백배 련상의 거창한 폭으로 확대되어 일반화되고 있다.

차우에 실린 《북방의 흰눈》, 조용히 들어서시던 《잠든거리》... 이 두마디 세부적인 시적묘사속에는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한평생 그칠새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시며 불면불휴의 로고를 기울이신 우리 수령님의 모습이 다 담겨져 있는것이다. 아이들이 기다리는 설맞이궁전으로 《서둘러》 떠나시였다는 이 짧은 문구에는 일찌기 《열의인, 정의인》으로 불리우신 인간애의 화신, 인덕의 화신이신 아버지수령님의 위대한 인간적품모가 다 깃들어있는것이다.

확실히 시인은 우리 수령님을 잘 알고, 우리 장군님의 사상정서세계에 몸을 잠그고 이 노래를 불렀다. 하기에 그의 시, 그의 노래는 우리 인민 모두의 사상감정을 그대로 체현하였다.

자기 수령을 다 알면 자기 인민을 다 알게 되고 그러면 작은 붓대 하나로 작은 시 한편에도 온 우주를 담을수 있다.

시적환상의 대담성은...

시인에게는 그의 열정과 함께 환상이 있어야 한다. 구수한 이야기속에 은근히 내비치는 정서가 아니라 전광석화처럼 번뜩이는 칼날의 예지로 용암처럼 쏟아 놓는 열정과 순간에 시공간을 주름잡아 자유분방하게 나래치는 환상은 시인의 고유한 기질이다. 시인은 이 열정과 환상을 다 같이

갖추었다.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는 수령 영생서사시의 첫 작품으로서 수령영생의 비결문제를 기본주제로 하고 인민의 수령이 영생하는 비결을 그 위대한 사상과 업적, 위인적모습에서 찾을뿐아니라 그 후계자의 위대성에서 찾았다. 다시말하여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체현하신 그 의리의 결정, 도덕의 결정, 충성의 결정우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영생하시며 영원히 우리 인민과 함께 계신다는 종자를 밝혀냈다.

여기서 수령님의 영생을 애타게 바라는 시인의 열정은 금수산기념궁전에서 체험과 함께 력사적인 추도대회장면묘사에서 대담하고 풍부한 시적환상을 낳았다.

그토록 우리 수령님의 영생을 갈망하기에 금수산기념궁전마당에 처음들어선 시인의 눈앞에는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빛나는 햇빛찬란한 창문이 비쬠던것이며 그너머 집무실책상우에서 여전히 책장 번지시는 소리가 들리고 꽃피는 정원의 시험포전에서 인민의 행복이 주렁질새 작물종자를 뿌리고 가꾸시는 수령님의 거룩하신 모습이 방불하게 안겨왔던것이다.

머리들어 바라보면
환하게 웃으시는
수령님의 자애로운 그 모습이 안겨오는듯
귀기울이면
우렁우렁하신
수령님의 그 음성이 들려오는듯

이제라도 문득
저 정원의 시험포전에서
팔소매 걷어올리신
수령님의 그 모습 비울듯
정적이 깃든 저 창문아래서
조용히 책장 번지시는 소리도 들릴듯

시인은 이 환상에 대해 《웬일이냐/ 그 무슨 기적이냐》하고 자문하였지만 우리는 이런 의문도 생기지 않는다. 절대로 가서는 안될분, 절대로 가셨다고 믿어지지 않는분이기예 이 시련들에 펼쳐진 환상은 그대로 우리 인민의 소망을 담아 그토록 진실한것이며 그만치 힘있는것이다.

이 시인의 시적환상에서 꽃피난 형상세계에서 가장 인상적인것은 3장의 추도대회장면이다. 그것은 말그대로 시적환상의 절정이다.

력사적인 추도대회의 주석단에 《백두의 근엄한 모습》으로 서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한마디 말씀도 없으시다. 인민도 그렇다. 그러나 시인은 대담한 환상을 통해 경애하는 장군님의 내면세계를 개방해보이면서 그이와 인민사이에 오가는 심중의 대화를 격동적으로 묘사하였다.

그이는 한마디 말씀이 없으시였으나
우리는 다 들었어라
우리 심장의 고동소리처럼
그이 심중의 말씀을

백년이 가도
천년이 가도
대대손손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혁명도 건설도 그 모든 투쟁도
수령님식대로 하리라는 그 말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는
위대한 수령님이시라고
우리 민족은 김일성민족이라고
절절히 하시는 그 말씀
...

우리는 다 듣고 다 알았나니
수령님업적을 100프로 계승하시고
100프로 교수해나가시는
그이의 그 억척같은 의지를
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주체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실
그이의 그 불같은 맹세를

나아가서 시인은 대담하게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치철학, 정치방식, 정치신념으로 선포한 그 심중의 웨침까지 시화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 대목을 두고 시인이 어쩌면 자신께서 생각하신것을 그대로 표현했는지 모르겠다는 최상의 평가를 주시였다.

과연 어떻게 되어 시인이 자기 령도자의 마음속생각까지 시적환상의 힘으로 그대로 옮겨놓을 수 있는것인가.

비결은 다른데 있지 않다. 시인은 순결한 랑심, 높은 충성심을 안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심중을 심장으로 헤아려보았으며 자신의 생각이자 그이의 생각임을 확신하고 그것을 대담하게 시줄에 담았던것이다. 시인은 령도자의 사상감정을 완전히 자기것으로 만들고 령도자의 내면세계를 그대로 옮겨갈수 있는 거대한 환상의 힘을 지녔던것이다.

이 환상의 기초에는 모든것을 대조속에서 보고 통일속에 보는 높은 철학적분석력, 통찰력이 놓여 있었다. 력사의 모든 사변들, 생활의 모든 계기들을 폭넓고도 본질적인 련관속에서 고찰할수 있는 높은 지성적인 안목에 기초한 시인의 예술적사고방식은 서사시의 곳곳에서 풍부한 예술적환상을 펼쳐놓고있다. 그에게서 수령의 모든 사색, 모든 활동, 모든 모습은 대조속에 파악되고 그것이 하나의 표상속에 통일되면서 심오한 철학이 깃든

환상을 낳는다.

인민을 위해서는
영원한 세계를 주시고
자신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남기지 않으신 수령님

이렇게 인민을 위한 일과 자신을 위한 일의 대비가 시작된다. 그것은 무한대한 행복의 세계와 덜고계시는 붉은기 한쪽을 내놓고는 그 무엇도 없는 령의 세계이다. 엄청난 대조이지만 그것은 또 얼마나 완벽한 통일인것인가. 인민에게 주신 세계가 무한하기에 자신께 남기신것은 없는것이다.

시인의 사색과 환상의련쇄속에서 대조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통일도 끊임없이 진행된다.

이세상 처음으로 주인없던 이 세계에 주인을 내세우는 거룩한 주체의 빛, 그 빛으로 열어놓으신 주체의 초행길에 사납게 휘몰아친 눈보라, 폭우, 불구름과 그래도 이길에만은 이끼와 락엽을 덮지 못한 세월의 장구한 흐름, 우리와 똑같이 단 한치의 간격도 없이 생활하시였으나 우리를 위하시느라우 리보다 더 일찍 잠에서 깨어나고 밤늦게까지 일하신분, 우리에게 먹이시려고 애쓰신 흰쌀밥과 그이께서 자주 쑤어잡수신 강냉이죽, 회고록은 다 쓰지 못하셨지만 인민의 가슴속에 다 적혀있고 세월의 갈피마다에 다 씌여진 혁명생애... 이 모든것이 대조이다. 그안에서 긍정을 거쳐 부정으로, 부정을 거쳐 긍정으로 나아가는 부단한 철학적사색이 진행되며 마침내 그 모든 결과들이 하나로 통일되어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 동지의 숭엄한 모습이 떠오르는것이다.

이것이 바로 립체적인 묘사이다.

이것은 마침내 격동의 계기에 이르러 대담한 시적환상속에 발견된 진리에 도달한다. 영생의 태양이 오실 때와 가실 때, 탄생하신 날과 가신 날의 대조속에서 심오한 영생의 철학이 토로된다.

오실 때는
우리에게 오실 때는
그렇게도 조용히 오시였던만
가실 때는
우리결을 떠나가실 때에는
천지를 진감하게 하신분
세계를 한꺼번에 울게 하신분
...

이 땅엔 수령님 탄생하신 날만 있고
수령님 가신 날은 없어라

이것은 순 기교상의 문제로만 볼수 없다. 이것은 기교이기에 앞서 시인이 지닌 지성의 높이와 심오한 철학적사색의 깊이문제이다.

서사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담한 예술적환상의 힘에 의해 구성되고 전개되고 있다. 그것은 영생의 진실한 재현이다.

시는 우리에게 영생의 태양이 빛나는 선군시대의 현실을 열배백배 더 깊이 들여다볼 눈을 주었다. 그리고 주체사실주의문학이 영생에 관한 얼마나 진실한 신화를 창조할수 있는가를 보여주었다.

총탄같은 언어의 힘은...

서사시는 힘있는 언어로 씌여졌다. 그것은 마디마디 총탄처럼 질주하고 작렬하고 있다. 아직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최대의 슬픔과 고통속에서 태어난 작품이지만 여기에는 피를 쥐여짜는듯한 고통과 슬픔보다도 퇴성처럼 가슴을 광광 울려주는 힘이 약동하고 있다. 그것은 피눈물의 해저에서 분출하여 선군시대의 하늘가에 영생의 노을을 펼쳐주는 영생의 축포이다.

그 힘있는 언어, 신관처럼 뇌리를 치는 그 정확하고 간결하고 명료한 언어, 백두꼭대처럼 지심을 울리는 그 즐기찬 운률의 흐름은 이 시인의 개성적문제를 이루고 있다. 서사시의 언어에 담긴 불패의 힘은우선 그 고도의 정확성에 있다.

시인은 수령의 위대한 업적과 위인적풍모를 깊이 연구체험하고 그 본질을 똑바로 파악한데 기초하여 규정적이고 선언적인 시어와 표현을 쏘아박고 있다.

조기에 가리워 하늘이 보이지 않았다
눈물에 가리워 땅이 보이지 않았다
태양도 빛을 거두었고
지구도 운동을 멈추었다

세계는 더 깊이
수령님 지니신
심장의 무게를 알았나니
... ..

그것은
만민이 안겨사는
지구의 무게
... ..
정의와 진리의 무게
... ..
시대와 력사의 무게
... ..
(밑점은 필자의것)

《우주도 행성우에 눈물의 소나기를 쏟으며/ 하늘이 내신분을 조상하던》 그날을 묘사함에 있어서 이 시구절처럼 그렇게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표현한 작품은 없다. 태양도 빛을 거두고 지구도 운동을 멈추었다는 표현도 그렇지만 수령님 지니

신 《심장의 무게》라는 설정자체가 얼마나 대담하고도 정확한것인가. 특히 그것을 《지구의 무게》, 《정의와 진리의 무게》, 《시대와 력사의 무게》로 짚은것은 그 엄청난 과장과 비유법에도 불구하고 그밖에는 달리 말할수 없는 규정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실례들은 무수하다.

○ 정녕 우리 보낸 이 한해는
수령님을 영원히 모시려는
친애하는 그이 뜨거운 심장으로
이 땅을 덮혀온 한해

○ -나에게서 그 어떤 변화를 바라지 말라
모든것을 수령님 가르치심대로
모든것을 수령님식대로
모든것을 이 세상 모든것을
오로지 수령님을 위하여!

아, 이것이
력사의 조공간을 틀어쥐신
위대한 그이의
정치철학
정치방식
정치신념

이렇게 보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단마디로
찍어서 표현한것은 거대한 재능의 산물이다.

시에는 군더더기표현이 없다. 모든것을 간결명
료하게 규정하여 격언처럼 울려나오는 정식화된
철학적명구들이 가득차있다.

○ 그 나날에 인민은
얼마나 밝은것을
조국은 얼마나 위대한것을
인류는 얼마나 영원한것을 받아 안았더냐

○ 거기엔 백두의 근엄한 모습으로
위대한 그이께서 서계시였나니
그이는 우리의 령도자 **김정일**동지!

그 순간 우리는
빛에 이끌려
힘에 이끌려
일제히 머리들어 바라보았다

이 시련들에서는 《밝은것, 위대한것, 영원한것》
이라는 표현속에 천출명장의 기상을 다 담았고
《빛에 이끌려... 힘에 이끌려...》라는 표현속에
그이께 끝없이 매혹되어 저절로 우리러 따르는
인민의 숭배심을 단발명중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런 언어의 힘은 무한대한것이다. 시인이 철학

적사색이 깊고 지성도가 높을뿐아니라 우리 말에
정통한 언어의 능수가 될 때 담이 커지고 새로운
언어창조의 기수가 될수 있다.

이 서사시의 언어의 힘은 또한 그 운률의 류창
한 흐름에 있다. 이 작품은 시에 운률이 없으면
정서가 없게 된다는 주체적인 시창작리론을 훌륭
히 구현하여 현대민족시가의 운률조성의 빛나는
본보기를 보여주었다.

운률의 본질은 시문장의 음악성이며 그 기본성
분은 흐름새와 박자라고 할 때 운률조성의 기본
단위는 시행으로 되어야 한다. 시행을 왜 구분하
고 시련은 왜 나누는가. 그것은 원래 음악으로부
터 발생한 시가에서 음악적인 구획이었다. 때문에
원칙적으로 운률은 한 시행에서 발생해야 하며
시련에서 완료되어야 한다. 한시행을 읊어 운률이
느껴지는것이 제1차운률이고 한시련을 다 읊어
운률이 흐르는것이 제2차운률이다.

기본은 한 시행안에서 자기의 독특한 흐름새와
박자를 갖춘 운각들의 반복이 있어야 한다. 반복
-어디까지나 이 반복에 비결이 있다. 때문에 시
작품의 운률형식을 규정할 때는 시행을 단위로
하여 《7.5조》 혹은 《3.4조》... 등과 같이 두개
의 서로 맞부딪치는 운각들을 그 반복되는 박자,
그 반복되는 흐름새의 요소를 수량적으로 밝혀주
었던것이다. 때문에 《4.4.5조》요, 《2.3.4조》요 하
는 기수(홀수)로 된 3개의 운각을 가진 절름발이
시행은 있을수 없다.

김만영의 서사시에서는 한 시행안에서 우수(짝
수)를 이룬 운각들의 조화로운 맞부딪침속에서
제1차운률이 힘있게 살아나고있을뿐아니라 한시
련안에서 대구적인 시행들의 반복교차속에서 또
제2차운률이 산생되고 있다.

특히 시인은 시련안에서 시행들의 조화로운 대
구적인 대응과 반복을 통해 운률성을 강화하는
수법을 능숙히 활용하고 있다.

서사시의 시련들은 무수한 대구적인 반복, 련거
적인 반복으로 구성되어 있다.

○ 잃어서는 안될/ 분을 잃고//
보내서는 안될/ 분을 보내고//

○ 우리 한해를/ 살았던 말인가//
우리 한해를/ 보냈단 말인가//

○ 우리와 이렇게/ 한거리를 잇고//
우리과 이렇게/ 한지붕을 잇고//

○ 그 그리움의/ 뜨거움으로는//
바위도/ 녹이리라// 강철도/ 녹이리라//
...

찾아가느라 서사시의 마지막까지 거의 모든

시련들을 적어내려가야 할것이다.

이 레문들에서 시행안에 놓인 두개의 운각은 서로 대응하면서 조화롭고 박력있는 운률을 형성한다. 그러되 이 시인의 작품에서 우리는 단순반복, 단순렐거만 보는것이 아니다. 감정정서의 기록을 타고 때로는 확대되고 때로는 축소되면서 자유로운 정서적흐름의 변화를 조성하고 있다.

허나/ 그날부터//
만경봉엔/ 무지개가 비끼고//
조종의 산 백두산엔/ 번개가 치고//
이 나라의 푸른 하늘이/ 열리기 시작했어라//

...비끼고 ...치고 ...시작했다는 렐거적인 반복인데 점차 정서가 고조되는데 따라 시행의 길이, 운각의 길이를 크게 하면서 조화로운 운률의 진

폭을 확대하고 있다.

시의 운률은 단조롭지 않다. 때로는 줄기차게,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격조높이, 때로는 사색적으로 끊임없이 변하며 굽이쳐간다. 그러나 한마디로 말할수 있는것은 그 운률적흐름이 남달리고조된 흥분과 정론적기백에 넘쳐있다는것이다. 격동적인 선군시대가 안겨준 격류하는 정서의 호흡에 자기 심장의 박동을 맞춤으로써 시인은 자기의 개성적인 문체를 완성할수 있었고 힘있는 언어의 힘있는 작품을 창조하는 힘의 시인으로 될수 있었다.

서사시가 나온때로부터8년이 흘렀다. 그러나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아래 시대의 명작으로 태어난 이 작품은 오늘도 여전히 선군혁명시가의 기발로 그 선두에서 나아가고있다.

우리는 빨찌산후손들

김석주

우리 선렬들은 백두산빨찌산이었다
이름만 들어도
백만대적이 공포에 떨던
전설의 영웅들
붉은 백두산을 높이 세운 사람들

하기에 우리는 빨찌산을 자랑한다
빨찌산식을 사랑하고
빨찌산전법을 사랑한다
맞받아나가 싸우고 싸워서 이기는
대담한 공격전을
판가리결사전을

고립무원한 광야, 태고의 밀림속에서
포위와 봉쇄, 고난과 시련을
걸음걸음 혈투로 헤치며 부르던
《반일전가》를 사랑한다
《적기가》를 사랑한다

우리는 백두산빨찌산 후손들
가랑잎을 타고 거세찬 강을 건너고
축지법으로 천리산발을 주름잡으며
사나운 대적을 쥐락펴락하던
전설의 영웅들의 피를 이은 후손들
동에 번쩍 퇴성을 터치고

서에 번쩍 번개를 치며
적진을 뒤흔들고
이 땅우에 천지번혁을 일으키시는
장군님의 백전백승전선길에
우리 빨찌산사령부가 있다

사생결단 맞받아나가는 담력을 지녔고
맞받아 싸워 반드시 이기는 기질을 지녔다
원썬들의 온갖 책동과 위협공갈도
만난을 헤쳐가는 강성대국전설도
드센 공격전으로
피의 결사전으로

천만대적이 덤벼든다 하라
걸음마다 봉쇄와 압살이 막아선다 하라
선군총대로 들부시며 쓸어버리며 나아가리
오늘의 반미전가를 부르며
오늘의 적기가를 부르며

우리는 승리에서 승리로 이어가는

김일성 장군빨찌산 후손들

김정일 장군빨찌산 전사들

이 땅우에 기여이

백두산강성대국을 높이 세울 사람들

명언해설

《조국통일의 새 아침을 이끌어올 원동력은 우리의 지혜와 의지이며 힘이다.》

김정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이 명언에는 조국통일의 주체가 다름아닌 우리 민족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조선민족이다. 조선민족은 조국통일의 주인이며 직접적담당자이다. 조국통일의 새 아침을 하루빨리 앞당기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것은 우리 민족이 어떻게 투쟁하는가 하는데 달려 있다. 조국통일의 새 아침을 앞당기는데서 그 누구도 우리 민족을 대신해줄수 없다. 오직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민족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조국통일성업에 특색있는 기여를 함으로써만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할수 있다.

꿈결에도 장군님 뵈오면

김명철

내 꿈속에서라도
장군님 뵈오면
아침노을도 별로 곱게 피어나고
내 꿈속에서라도
장군님 뵈온 날은
해빛도 유정해라

분명 꿈이건만
꿈조차 행복이어서
자애로운 그 영상
해종일 우러르니
싱그러운 들바람
맑은 눈물소리
그처럼 살뜰하고 정다운 날은 없고

꿈만 같아
걷는 길도 가꾸는 이랑도
장군님 뵈옵던 그 소중한 꿈만 같아
아 그날은
들끝에 별이 뜨고 달이 밝아도
내 미처 몰라라 날이 언제 가는지

이른봄
벼모만 잘 키워도
장군님 한시름 놓으실것만 같고
한여름
김을 한벌 더 매도
장군님 한결 더 기뻐하실것만 같아

기뻐라 꿈속에서라도
건강하신 장군님 뵈오면
내 바라는 모든 소원 그대로 이뤄 질듯

진정할수 없으려
낮이나 밤이나
북받치는 힘과 지혜 들에 쏟고만싶어

내 적은 지성이나마
들에 말없이 고여
장군님께 기쁨드리는 그것이 나의 희망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내 일을 더하고
꿈결에도 환히 웃으시는 장군님 뵈오면
그것이 나의 보람 나의 행복

나의 운명 따로 생각지 않은들 어찌리
이 땅에 내 한생 다 바친들 어찌리
내 가꾸는 이 들이 장군님의 기쁨이 되고
오직 한분
아버이장군님 건강만 하신다면
거기에 모든것이 다 있나니

장군님의 안녕없이
하늘땅이 우리에게 그 무슨 소용이라
장군님께 드리는 기쁨이 없다면
머리우에 해와 달은 떠서 무엇하리
이 땅의 모든것
아버이장군님 그 한품에 안겨있어

아! 아! 내 꿈속에서라도
환히 웃으시는 장군님 뵈온 날은
잠을 깨도 그 미소 가슴속에 넘쳐나
그 기쁨 온종일 들에 펼쳐가노라
장군님 다시 뵈고싶어
아 날마다 뵈고만싶어

그들이 많이 지는 나무

주체90(2001)년 5월 중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께서 어느 한 부대를 현지도하시던 과정에 있는 일이다.

이곳 부대에는 많은 감나무가 있었다.

그 어느곳을 찾으시여도 항상 병사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시는 그이께서는 이곳 부대에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시었다.

그것은 이곳에 감나무는 많이 심었지만 해가 쨍쨍 내리쳐는 여름철 군인들이 그늘밑에 들어갈 있을만한 나무가 별로 없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이곳만이 아닌 다른 인민군부대들에서도 병사들이 휴식하는 장소에 그들이 지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심는

나무가 별로 없다는 전반적인 실태를 깊이 헤아려보신데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가슴뜨거운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내 생각에는 매개 중대병영주변에 크고 그들이 많이지는 나무들을 심고 그밑에 휴식장을 꾸려놓아 군인들이 더운 여름철에 거기에 앉아 땀도 들이고 담배도 피우면서 즐겁게 휴식하도록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일군들은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그토록 바쁘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무더운 여름철 병사들이 그늘진 휴식장에서 즐겁게 휴식하는 문제까지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기때문이였다.

영원한 나의 집

리영철

나에겐 있다
평범한 공민 나에게
나라에서 무상으로 입사증을 내어준
내 한생의 보금자리
잃고선 못살 나의 집이 있다

안해와 딸과 나
많지 않은 세 식구가
세금을 모르고
근심도 걱정도 없이
넓은 방에 행복만을 채워가는 집

집이여, 너는 무엇이기에
내 마음에 이토록 소중한것이나
안아볼수록
인민사랑의 정치, 인민을 위한 법으로
기초를 쌓고 지붕을 얹은
나의 집이여

너는 고마운 사회주의 내 조국-
학교며 병원이 나를 위해 문을 열었고
근로하는 나의 건강을 지켜
정양소가 바다가 술술에 서있는
인민의 이 집에서

주인의 권리를 가진 나는
사회의 모든 부를 다 향유하고 있다
단 하나 인민이란 이름을 지녀

어디 가나 첫 자리에 내세워지며
궁지높은 삶을 누리고 있다

아, 위대한 장군님을 어버이로 모시여
온 세계가 다 아는 집
그이의 존함으로
민족의 영예와 존엄이
누리에 빛발치는 내 나라 나의 집이여

선군의 총대로 울바자를 두르고
강성부흥 불꽃이 프락에 만발한
우리 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
세상에 이 집보다 굳건한 집은 없거니

제국주의광풍도 전쟁의 핵구름도
허물지 못한다
불태우지 못한다
생활속에 정으로 뿌리내린
인민의 우리 집은
짓밟을수도 빼앗을수도 없다

나는 이 집의 공민
나는 이 집의 주인
땀으로 가꾸고 량심으로 받들리라
인민의 이 집을
너는 이 땅우에 더 높이 솟아 빛나리
아, 내 운명의 집 영원한 나의 집이여

기러기떼 날은다

리성식

1. 오누이학사

목에선 겨불내가 났다.

얼굴에선 땀이 비오듯했다.

량어깨를 아프게 파고드는 배낭끈을 손바닥으로 감아잡고 힘겹게 걸음을 옮기던 장영일은 마을입구인포아리고개에 올라서자 배낭을 벗어놓았다.

《좀 쉬고 가자.》 뒤따라 오던 장영순은 배낭을 진채로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한참만에야 그는 배낭끈을 벗기고 상반신을 일으켰다. 온몸이 땀투성이였다. 《아유, 죽는줄 알았네. 무슨 물건이 이렇게 무겁담.》 《그러게 내가 뭐라던. 적게 담아 지라는데...》 장영일은 허리춤에서 수건을 뽑아 동생의 얼굴을 닦아주었다.

그들은 지금 이웃군에 있는 광산에 가서 2광석을 지고 오는길이었다. 벼성장축진제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뽕누에성장축진제연구에서 성공한후 인차 벼성장축진제연구에 달라붙었으나 바쁜 사업에 몰리다나니(장영일은 농장기사가장이었고 영순은 소재지작업반기술원이었다.) 한해가 넘도록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그들한테 두달전 2농업대학의부학장인 최교수(그는 영일의 대학시절 담임선생이었다.)가 찾아왔었다.

《동무네도 아다싶이 벼의 생육기일을 단축하여 앞그루작물의 생육기일을 보장하는것은 눈두벌농사를 짓는데서 관건적인 문제라고 할수 있소. 그래서 많은 연구사들이 벼의 성장을 촉진하는 연구에 달라붙었었는데 그 방법을 보면 화학물질의 내부적작용이나 빛의 외부적작용에 의한 갑작변이, 또는 미생물을 침투시켜 세포분열을 확대하는 돌연변이방법 등이요. 그것들은 대체로 우연적이면서도 환경의 피해를 받는 피동적인것으로 하여 환영을 못받았던 말이요. 그런데 동무네가 시도한 축진제는 식물생리의 본성인 日합성을 주동적으로 조성해 물질대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게 함으로써 생육기일을 단축시키는 방법인것으로 하여 전망이 기대된단 말이요. 그러니 신심을 가지고 빨리 연구를 다그치오. 우리도 힘껏 도울테니.》

장영일이네는 정신을 버쩍 차렸다. 교수가 돌아간후 어깨를 무겁게 만드는 책임감과 아득히 먼곳에서 자기네를 향해 한걸음두걸음 다가오고 있는 무지개비끼 세계를 느끼며 연구에 박차를 가해오고 있었다.

끼릭, 끼르릭...

저녁노을 드리운 하늘가에서 구성된 새소리가 울리었다.

기러기떼가 날고있었다. 어미기러기를 선두로 하여 앞서거니 뒤서거니 렬을 맞추며 높고넓은 하늘을 쉬임없이 날아간다.

장영일은 수건으로 얼굴의 땀을 훔치며 기러기떼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앞으로는 옛 생활의 한 토막이 주마등처럼 스치었다.

...벼모를 무겁게 진 중년녀인이 땀을 흘리며 눈두렁길을 반달음치고 있다. 그의 뒤에서는 벼모를 다랑치에 담아낸 예닐곱살가량의 계집애와 역시 벼모춤을 삼태기에 담아든 열두엇에 났을 사내애가 재깰거리며 따라가고 있다.

《저기 맨앞에서 날으는 엄지기러기 우리 엄마야. 그뒤의 기러기 나고. 그리고 그담의 기러기 오빠고.》

《피- 엄마기러기 뒤에친 나야. 맨꼬리의 애기기러기가 너고.》

《싫어.난 큰 기러기가 좋아. 엄마, 나 애기아니지? 우리보고 자꾸 애들이라고 하지마.》

《원, 애들두...》 녀인은 느슨한 미소를 머금고 기러기떼 날으는 하늘가로 그윽한 시선을 보낸다. ...

영순이가 갑자기 눈물을 지었다.

영일은 속이 덜컹하여 물었다.

《아니, 왜 그러니?》

《어머니생각이 나 그래요. 요즘 힘들어 그런지 기러기만 봐도 자꾸...》

그 소리에 영일은 가슴이 쿵 저러났다.

《오빠 엄마생각 안나?》

《왜 안나겠니. 우리를 키우느라 얼마나...》

목이 메여와 영일은 더 잊지 못했다.

장영일이네 오누이는 일찌기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슬하에서 자랐다.

농산반 분조장을 하던 어머니는 애들을 집에 두고 자주 밤일을 나가곤 하였다.

그때면 오누이는 대문을 꼭 닫고 방안에 누워 있곤 하였다.

무료감을 쫓으려든 영순은 엄마가 들려준 옛말을 졸졸 외우곤 했다.

《애기기러기가 힘들어 떨어지자 엄마기러기는 애기기러기를 등에 업고 갔대. 오빠기러기가 목이 타하자엄마기러기는 제몸의 피를 부리로 쪼아 오빠기러기의 입안에 넣어주었다. 그러느라 지칠대로 지친 엄마기러기는 넓은 바다가 끝나고 땅이 나지는 순간 그만...오빠, 죽은 엄마기러기가 막

불쌍하지?)

《그러게 엄마속을 태우지 말어. 자꾸 칭얼거리면서 말야.》

《피- 속은 제가 태우면서. <문좀열어줘요.-말 잘 듣겠어요> 해해.》

《너 정말 까불간?》 영일은 눈을 흘기면서 한쪽으로 부지런히 숙제공부를 하곤했다. 어머니가 일 끝나고들어오면 검열을 받아야 했기때문이다.

어머니는 일상 생활에서는 다심하고 부드러웠으나 공부를 두고서는 자식들과 타협을 안했었다. 어느날영일은 학교로 가던 도중 강에서 종일 스케트를 타며 놀았었다. 그 사실을 안 어머니는 영일의 종아리를 치고 프락에 내다 벌을 세웠다.

썩썩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이었다. 영순이 오빠가 얼어죽는다며 엄마의 가슴팍을 쿵쿵 두들겼으나 어머니는 아무 반응도 없이 제할일만 했다.

너무 추워 발을 동동 구르다가 영일은 용서를 빌었다.

《엄마, 내 잘못했어. 다신 안그렇게.》

《앞으로 학교에 잘 가겠느냐?》

《응. 내 꼭꼭 갈게.》

그제야 어머니는 문을 열어주었다. 얼어서 감각이 마비된 손발을 찬물에 담그어 녹이며 영일은 어머니를 원망했다.

(내가 죽어도 좋다는거야? 히...)

그랬으나 어머니가 무서워 다음날부터 학교에 늦지 않고 꼭꼭 가곤 하였다.

어느해 여름 생물시간에 배운 까치의 생활을 직접 관찰하고싶어 까치둥지가 있는 집뒤의 밤나무에 올라갔던 영일은 죽은가지를 잘못 짚어 그만 떨어지였다. 뼈가 부러지고 내장이 파열되어 수술을 받아야 했다. 수술대에 누운 영일은 혼미한 의식속에서 어머니의 눈물어린 애원을 들었다.

《제발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의식을 차린 영일의 눈에 처음으로 안겨든것은 침대머리말을 지켜 앉아있는 어머니의 모습이였다. 앓고난듯 얼굴은 해쓱했고 몸은 나른해있었다. 후날에야 알았지만 어머니는 수술도중에 영일이한테 뼈가 요구되자 자기의 뼈를 떼내어 이식하였고 수술후에는 피가 부족되자 제몸의 피를 서슴없이 뽑아 넣어주었었다.

《엄마, 나 살았나?》

《...》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영일의 손을 살며시 잡아주는 어머니의 눈곱에선 물기가 번들거렸다. 어머니는영일의 몸이 어느정도 회복되자 5리가 넘는 학교엘 업어가곤 업어오곤 하였다.

《엄마, 힘들지 않나?》

《힘들다.》

《그런데 왜 업어다주느라 그러나? 내가 학교에 안다니면 될텐데.》

《네가 쪽정이이삭도 못맺고 스러지는 곡식포기처럼 될가봐 그런다.》

어머니의 엄한 채찍질을 당하고 뜨거운 보살핌이 있던덕에 영일은 매학년마다 성적이 우수했으며 중학교를 졸업할때에는 대학추천을 받았다.

높은 점수로 대학에도 입학했다.

영일이가 방학때 올적마다 어머니는 기숙사생활을 하느라 궁금했겠다며 토끼곰을 해주곤 하였다. 집을 떠날때면 생활필수품을 가득 넣은 배낭을 무겁게 메고 20리가 넘는 역까지 나가곤 했다.

졸업학년에 진급하여 마지막방학을 왔다갈 때였다.

영일을 바래주던 어머니가 동구길의 버들방천 건너목에서 먼저 신발을 벗더니 영일이한테 등을 돌려대는것이였다.

《엄혀라.》

장영일은 고개를 돌리며 웃었다.

《어머닌 내가 아직도 아인줄 알아요?》

《엄혀라는데. 다음번에 올 땐 기사가 되어 올라람이라 한번 업어보고싶어 그런다. 내가 너를 업고 처음이 내물을 건너오던 때가 엇그제같은데 벌써...》

《그건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그런 일이 있었단다.》

어머니는 이러며 눈빛을 흐리는것이였다.

영일은 의아하여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기웃거리며 신발을 벗었다. 그는 어머니한테 등을 돌려댔다.

《이젠 나도 어른이 되었는데 아이때처럼 어머니한테 계속 업혀서야 안되지요 뭐. 어머니가 있어 내가 세상에 태어났고 또 어머니가 피를 넣어주어 죽게 되었던 내가 다시 소생하여 대지를 활보하며 대학공부까지 하고있는데 도리적으로 봐도 응당 내가 어머닐...》

서로 업겠다고 하다가 기슭에서 미끄러지며 둘다 바지가랭이를 적시였다. 한참 웃고나서 손을 잡고 침병침병 물을 차며 개울을 건느였다.

《어머니, 이담 늪으면 내가 업어주곤 할테니 백살 넘도록 오래 사세요.》

《고맙다. 현대 내가 꽤 오래 살가?》

《오래 살지 않고요 뭐. 내가 이제 대학만 졸업하고 오면 어머닐...》

그때 머리우하늘에서 기러기들이 끼르륵거리며 날아갔다.

《저것 보라요. 엄마기러기를 잃은 새끼기러기들이 슬피 울면서 가는걸.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면 우린...》

《어미기러기는 죽었어도 그의 녀은 대공을 날고 있질 않니, 새끼기러기들의 마음속에 간직되어 말이다.새끼기러기들이 슬피하며 뒤만 돌아보지 말고 희망찬 앞을 보며 더 높이 더 빨리 그리고 더 멀리 힘차게 훨훨 날아가야 죽은 엄마기러기

도 좋아 한단다. 너도 이담 엄마가 없으면 슬퍼만 하지 말고 어미의 몫까지 다해 많은 일을 하는데만 열중하거라. 부지런히 배우거라. 시대가 발전하여 농업도 점차 과학화되어 알지 못하고선 아무일도 할수 없단다. 내 일생 후회되는건 공불만이 못한거다. 그러다나니 더할수있는 일도 못했고. 그 한을 너희들이 풀어주길 바란다.》

어머니는 역에서 헤어질 때 영일의 얼굴을 새삼스레 한참이나 들여다보더니 떨리는 손길로 그의 머리며 어깨를 쓸어주었다.

《공부를 잘해 이다음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동생도 잘 이끌고.》

장영일은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하였다. 표창장과 과학도서 《현대농업》을 상으로 받았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의 마음은 흥그러웠다. 학습장을 어머니한테 주자, 《현대농업》도 물론… 내가 어머니를 잘 배워주리라. 집앞에 이른 영일은 어머니를 소리쳐찾으며 뛰어들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영일이가 왔구나!》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활짝 열리며 어머니가 뛰쳐나오리라고 생각했던 방 안에서 영순의 외로운 울음소리만이 울려나오는것이 아닌가.

《오빠, 왜 이제 오나?》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었다. 돌아간지 한달이 가까와온다는것이였다. 심한 병을 앓으면서도 병을 숨기고 본조의 가을걷이전투를 마감짓다가 잘못됐다고 한다. 림종에 이르렀을 때 영순이가 오빠한테 전보를 치겠다고 하자 어머니는 한창 졸업시험을 치르는 사람한테 지장이 된다면 알리지 못하게 하였다고 한다.

홀로 남은 영순을 관리위원회에서와 동네사람들이 돌보아주고 있었다.

어머니의 묘소를 찾은 장영일은 대학졸업증과 표창장을 상돌에 펼쳐놓고 정히 술을 부었다.

영순이가 울면서 말했다.

《마지막방학을 왔다 갈 때 엄만 자기의 병이 불치의 병이라는걸 알고있었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업어보고싶어서…》

아, 어머니--

영일은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늦가을철의 검푸른 하늘에서는 기러기의 구슬픈 울음소리가 끼르륵 끼르륵 울리고 있었다...

잡관목적을 쉼-흔드는 바람소리에 장영일은 추억에서 깨어났다.

벌써 날이 어두워오고 있었다.

장영일은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자, 또 가보자.》

영순의 배낭을 들어메워준 다음 자기도 메었다.

그들은 나란히 고개길을 내렸다.

영일은 무거운 짐에 눌리워 힘든 걸음을 하는 영순이 애처로와 걱정을 하였다.

《네가 그러다 앓아누울가봐 겁이 난다.》

《다 오빠때문이야.》

영순은 웃으며 대꾸했다.

그때 작업반기술부원으로 배치된 장영일은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현실속에서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속에서도 동생의 중학공부에 깊은 관심을 돌렸다. 어머니가 바라던대로 그도 상급학교공부를 시키기 위해서였다.

원래 머리가 좋은데다 오빠의 꾸준하고도 능숙한 개별지도까지 받아 영순은 학교적으로 제일공부를 잘하였다. 그는 졸업할 때 대학추천을 받았다.

그런데 입학시험을 앞두고 무슨 맘을 먹었는지 대학에 안가겠다고 나뉘어지는것이였다. 영일이가 그러면 안된다고 타이르자 영순은 울상을 지었다.

《내가 없으면 오빠 혼자 어떻게 살아. 밥은 누가 해주고 빨랜 누가 해주겠어.》

《넌 내가 밥이랑 잘 짓고 옷이랑 멋있게 빨아입는걸 못봐서 그러는구나. 내걱정은 말고 어서 떠날 준비를 해라.》 장영일은 입학시험과 객지생활에서 필요한것들을 제 손으로 하나하나 준비하여 집을 꾸렸다.

낮차로 떠나야 하는데 아침에 말없이 훌쩍 나간 영순이가 저녁이 되도록 들어오질 않았다. 기다리느라속이 타다못해 재가 다 된 어슬넛에야 나타났다. 그는 방바닥에 놓여있는 보침을 띄여보더니 눈을 셀쫓이는것이였다.

《누가 가겠다나... 도중식사까지 싸넣고...》

《너 정말이야?》

장영일은 속이 울컥하는 바람에 동생의 귀썹을 후려갈겼다.

얼굴을 찌뼬 영순이가 눈이 울롱해서 오빠를 올려다보았다.

《날 진짜로 때렸어요? 아니지요?》

《진짜로 때렸다. 대학에 안가겠으면 집에서 나가라.-》

영순은 방바닥에 엎어져 서럽게 울었다.

그날밤 영일은 닭알을 따끈하게 덥혀 멍이 든 영순의 불살에 대고 굴리었다. 살갓이 하얗고 만문한 얼굴에 사정없이 찍혀진 자기의 손자리를 만지며 성급하게 행동한 자신을 후회했다.

자는줄 알았던 영순이가 영일의 손을 살그머니 그러잡았다. 그러는 그의 눈굽에선 눈물이 방울방울 굴러내리었다.

《오빠, 내 갈게.》

장영일은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다음날차로 영순이와 함께 대학에 올라갔다. 영순이가 수험번호를받고 시험을 치르는 기간 꼬박 대학정문앞에 지켜 서있었다.

합격자명단이 공시되는 날 두근거리는 가슴을 불안고 명단을 읽어내려가던 영일은 《장영순》이

라는 이름이 시야에 안겨드는 순간 환성을 질렀다.

장영일이한테 녀동생의 대학공부는 바라던바의 실현이어서 더없이 반갑고 기쁜 일이었으나 한편으로는 부담이 아닐수 없었다. 온 종일 일하고 들어와 제 손으로 밥을 지어먹고 집살림을 돌보는 속에서도 영일은 동생의 뒤바라지에 있는 힘을 다했다.

장영순은 대학시절의 일을 일기장에 적어넣곤 하였다.

199×년 9월 15일

너무도 깊고 너무도 넓은 지식의 바다가 나의 가슴속으로 흘러드는듯 싶다.

식물학, 육종학, 토양학 그리고 정치경제학과 같은 사회과목들...

나는 비로소 땅을 알게 되었고 자연의 리치를 깨닫게 되었으며 사회력사운동의 법칙을 인식할 수 있었다.

오빠가 왜 나를 대학공부시키려했는지 이해가 된다.

199×년 11월5일

오늘 고향에서 소포가 왔다. 오빠가 보낸 소포였다. 두툼한 학습장 여러권과 고급만년필 그리고 자그마한 비닐꾸러미가 들어있었다. 그것을 헤치던 나는 손이 굳어지었다. 찹쌀가루, 콩가루, 사탕가루를 섞어 만든 영양가루가 나졌기 때문이다. 뭉클 솟구친 뜨거운것이 내 가슴을 적시었다.

문득 전번 방학에 갔을 때의 일이 돌이켜졌다.

집에 들어선 나는 오빠가 끼식이나 제대로 끓여먹으며 일다니는가 하여 가마부터 열어보았다. 가마안에는 아침에 하루분량으로 지어 세뭇으로 나누어먹다가 저녁분으로 남긴 시래기 범벅이 들어있었다.

은 나라가 《고난의 행군》을 하는 때이니 모든 집들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있겠지마는 오빠의 경우야 얼마나 더 힘겨우랴. 생각할수록 가슴이 아왔다. 그리고 죄스러웠다.

얼마후 들어온 오빠는 《기숙사생활을 할래기 혼났겠구나.》 하더니 단지안에서 흰쌀을 퍼내어 밥을 안치는것이였다. 내가 방학을 오면 해주려고 아끼고 아껴온것이였다.

오빠는 내가 집에 있는 동안 닭알을 구해다 삶아준다, 물고기를 잡아다 생선국을 끓여준다, 수수지짐을지켜준다하며 극성을 부렸다. 내가 밀린 집일을 치우자고 팔을 걷고나서면 질책하며 공부나 하라고 놀려댔지곤하였다. 방학을 끝내고 떠나올때는 20리 먼 역까지 배웅나와 적지 않은 돈까지 주머니에 넣어주었다.

나는 오빠에게 부담을 끼치지 않기 위해 졸업할 때까지 방학을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어느날 오후 동무들과 기숙사호실에 앉

아 복습을 하고있는데 문이 열리며 오빠가 불쑥 들어서는것이였다.

《난 또 무슨 일이 생겼나 했구나. 허허, 건강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걸 보니 마음이 놓인다.》

오빠는 안심한듯 미소를 짓다가 무겁게 지고 온 배낭을 내려놓았다. 올해가을 뒤울안 밤나무에서 따서 건사해두었던 왕밤이였다.

그 다글다글 영근 밤알들을 어서 맛을 보라며 내손에 한웅큼 쥐여주는 순간 나는 밤알이 아니라 오빠의 손을 부들켜쥐었다. 터실터실 살갗이 트고 매듭이 끊어진 손, 잠을 제대로 못자 꺼칠해진데다 너무도 때이르게 잔주름이 생긴 얼굴, 색바랜 외출옷을 입고 온 오빠... 스물일곱살, 한창 젊음을 즐기고 멋을 부려야 할 때에...

나는 왈카 눈물을 쏟고야 말았다.

《오빠!...》

199×년 7월 9일

며칠 안있어 우리는 졸업식을 하게 된다.

요즘은 모두 배치와 관련한 소리들뿐이다.

대학에서는 전과목이 최우등인 나를 대학교원으로 남으라고 했다. 도급기관들과 농업연구소에서 나를 데려가겠다며 본인의 의향을 물어왔다.

하지만 나는 다 거절하였다. 오빠의 편지가 내가 택할 길을 가리켜주었기 때문이다.

《...난 작년 가을부터 리기술부원사업을한다. 사업범위가 넓어지고 보다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되곤 하여작업반에 있을때보다 더욱 분망하구나. 하지만 그 바쁘고 다사한 직무가 오히려 나한테 좋다. 밤늦게 들어와 얼마간 눈을 붙였다가 서둘러 밥을 지어먹고 나가느라면 언제 외로움을 느낄새도 없으니까. 얼마전에 나는 새로운 자급비료를 만들어냈다.

<충적지 논토양에서 미량원소비료 비물질의 역할에 대하여>를 논문으로 써 해당기관에 보냈더니 호평이 대단하다.

지금은 뽕누에성장촉진제연구를 하고있다. 너도 아다싶이 이해겨울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우리도의 신의주, 구성방직공장들과 박천, 녕변견직공장들을 현지지도하시지 않았니. 인민들에게보다 훌륭한 옷감을 안겨주기 위해서였지. 그래 나는 장군님의 원대한 뜻을 실현하는 길에 나의 적은힘이나마 바칠 결심으로 그 연구를 시작했다. 그것만 성공하면 뽕발면적을 줄이여 농경지를 늘이면서도 고치생산을 높일수 있어 좋은데 어디 제대로 되니. 본신사업에 충실하면서 여가시간에 할려니 시간이 모자라는데다손이 딸리누나. 현대과학기술로 무장한 영순이가 이제 돌아와 손을 맞잡으면 능히 해결할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오빠, 기다리세요!

...

고향으로 돌아온 영순은 장영일이 있던 1작업반의 기술부원으로 임명되었다.

《밤나무집》에선 일대 변화가 일어났다. 부뚜막의 가마와 음식그릇들이 반짝반짝 윤기를 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방안도배며 벽과 울타리회칠이 새로 되어 집이 멀끔해졌다. 돼지우리안에선 새끼돼지가 푹푹거리기 시작했고 아침마다 닭장에선 수탉의 울음소리가 구성지게 울리었다.

×

1작업반(소재지마을)창고결에 따로 한칸끔직하게 꾸린 방이 있었다. 리당비서가 팔걸고나서서 꾸려준 일명 《선구자의 집》으로 불리우는 실험실이었다.

땀흘리며 날라온 근광석을 절구에 붓아 이미 준비했던 여러 성분의 미량원소들과 배합하여 해당한 온도의 열을 가한후 변화된 성분의 수치를 알아내느라고 영일이네는 저녁밥먹을 생각도 없었다.

장영일은 확정된 수치들을 계산하여 불러주고 영순은 마주앉아 실험일지에 그 수치들을 받아쓰곤 하였다.

《근성분 스물하나-》

《근성분이 스물하나-》

《카리가 열아홉-》

《카리가 열아홉-옴...》

받아뇌이던 영순의 말이 꼬리가 맥없이 끌리더니 흐르지였다.

영일이 웬일인가 하여 돌아보니 영순은 턱방아를 찼고있었다. 낮에 벼모판준비를 하는 농장원들과 함께 종일 방풍장나래단도 나르고 지지목도 세우고 하다가 저녁켄에 바빠 근광석을 가지러 수십리길을 다녀 오느라 몹시 지친 모양이었다. 장영일은 결상에 앉은채로 쪽잠을 자는 녀동생을 측은히 굽어보았다.

(이 애한테 어떻게 다시 무거운 짐을...)

요즘 장영일은 머리가 복잡했었다. 벼씨앗소독에 대한 생각때문이었다. 지금까지 농촌들에서는 모뭇기할 벼종자소독을 값비싼 수입약인 《교》소독제로 해왔었다.

그러다가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그것 대신 제련소에서 나오는 ㅅ철을 쓰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것은국내산원료에 기초한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씨앗에 묻은 병원균을 깨끗이 제거하지 못하고 찬물로 소독을 하다나니 눈젖의 발육이 늦어지며 모판에서 자라는 기간이 오래 걸리는, 하여 활창대와 비닐박막같은 자재가 많이 들고 로력이 형편없이 요구되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다. 그 문제를 두고 탐색을 거듭하던 장영일은 대담하게 물온도와 담그는 시간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할 결심을 품었었다. 그러자면 지금 둘이서 하던 성장촉진제연구를 영순이 한테 맡기고 자기는 새로운 씨앗소독법연구에

달라붙어야 하는것이다.

문득 잠을 깬 영순이가 머리를 들다가 영일이와 눈길이 마주쳤다.

《안됐어요, 오빠... 그런데 오빠눈빛이 왜 그래요? 무슨 탄 생각을 하는게 아니예요?》

빙그레 웃던 장영일은 정색해서 혼자 속에 품고 있던 생각을 터놓았다. 그러자 영순은 숨가쁜 기색을 지었다.

《지금 하는일도 힘겨운데 그것까지 동시에 벌려놓고 어쩌자고 그래요.》

《농장들에서 씨앗소독때문에 애를 먹고있는걸 생각하면 잠이 오질 않는구나. 물온도조절에 의한 소독법만 성공하면 로력도 절약하고 알곡소출도 높이고 또... 가만 타산해보니 소독제를 안쓰므로 하여 얻어지는 리득이 도적으로도 대단하니 전국적으로는 얼마나 되겠니, 그러니 꼭 필요한 일이다.》

《그렇긴 한데 서로 혼자서 어떻게...》

피로에 지쳐 가무잡잡해진 영순의 얼굴에 시름이 무겁게 비끼었다.

그걸 보는 순간 영일은 마음이 흔들리였다.

(그러지 않아도 고생이 많은 앤데...)

그러다가 나약해지는 자신을 느끼고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단독 연구들이 어렵다고 둘이 힘을 합쳐 한가지 끝낸 다음 또 한가지를 하는 식으로 시간을 끌면 농업발전이 늦어진다는걸 알거라. 힘들더라도 두몫 세몫을 하면서 두가지 일을 동시에 밀고 나가자. 더 많은것을 더 빨리 하여야 농업생산에서 비약을 일으킬수 있지 않니.》

이러며 절절한 심정을 이야기해서야 영순은 선뜻 응하였다.

《하긴 오빠야 한번 결심하면 소열마리로 끌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인데 이제 내가 어쩔다고 달라지겠어요. 오빠생각대로 하자요. 우리가 고생을 더하면 되지요 뭐.》

《고맙다. 리해해주어서.》

장영일은 여러가지 농업과학기술도서들과 관계부분의 문헌자료들을 탐독한데 기초하여 연구방향을 세운 다음 벼씨앗소독이 시작되자 종자처리장에 붙어살면서 직접 생산실험에로 들어갔다. 물온도를 조금씩 조절하여 안전수치와 그에 따르는 시간들을 정했다. 실험을 통해 경험을 축적하고 과학적인 리론을 확립한 영일은 어느날 ㅅ농업대학의 부학장인 최교수를 찾아갔다. 학계의 의견을 받고싶어서였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농업과학자이며 교육자이며 실무일군인 최교수는 물온도조절에 의한 새로운 소독법에 대한 연구지표를 보고나서 책상을 치며 환성을 질렀다.

《좋아, 아주 좋아!... 원가는 거의 령이고 리득은 크고... 정말 대담한 착상이요! 사실 말해 벼농사에서중요한 씨앗소독문제를 해결하자고 병해

충구제연구소의 연구사는 대용약제 口소독법을, 또 작물재배연구소의 연구사는 <스-1호>군에 의한 소독법을 연구하여 내놓았었는데 생산공정이 복잡하고 로력과 품이 많이 드는 비실리적인것으로 하여 환영을 못받고 도입이 중단되었소. 그런데 동무의 소독법은 아주 실리적이어서 종단말이요. 그리고 또 물온도에 의해 눈젖의 발육이 촉진되니 성장이 앞당겨져 두벌농사짓기에도 유리하고... 그걸 성사시켜 세상에 내놓으면 파문이 일어날거요.》

최교수는 장영일을 자기집에서 며칠동안 재우면서 여러가지 과학기술적문제들에 대한 조언도 주었고 필요한 참고자료들도 뽑아주었다. 영일이 가 떠나올때에는 바쁜 시간을 내어 역에 나와 배워 주기까지 했다.

렬차출발을 앞두고 헤어질 때 교수는 신중한 기색으로 말그루를 박았다.

《동무의 새 소독법은 우점이 많은 반면에 간파하지 말아야 할 약점도 있다는걸 잊지 마오. 물온도가 최고수치에 이를 때 씨앗의 분해효소들이 지내 확산되어 체내의 원형질이 파괴될(썩어지거나 부식되는) 위험이 있소. 그때문에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을거요. 그야말로 하나의 모험이지. 심장이 뜨겁지 못해가지곤해낼수 없는 모험이라는걸 명심하오.》

붕!-...

맑은 하늘로 올려퍼지는 기적소리,

장영일은 차창밖으로 흘러 지나는 봄기운이 완연한 산과 들을 내다보며 뿌듯한 심정에 잠겨들었다.

(어머니, 기뻐하십시오! 어머니의 넋을 가슴속에 품은 자식들이 희망의 넓은 하늘을 날고있습니다. 조국의 하늘가에 새 생활 창조의 꽃을 피워가고있습니다.)

2. 더 높이 더 빨리

...종자처리장출입문이 신경질적으로 닫기였다.

팡!... 하는 문소리가 폭탄튀는 소리처럼 요란스레 공명되어 울려오며 장영일의 가슴을 쳤다. 밖에서 있던 승용차가 부르릉 발동을 걸고 떠날때 영일은 고무줄처럼 팽팽 행기웠던 긴장이 타 끊어져나가는듯한 충격을 느끼며 몸이 나른해져 씨앗무지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물탱크에서 끓어오른 뜨거운 증기가얼굴에 확 들썩워지고 아래가 축축히 젖어들었건만 영일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기만 하였다. 방금전에 이곳 작업장안을 싸늘하게 얼거며 울리였던 말소리가 되살아나 귀청을 두드렸다.

《당장 걸어치우시오- 당장...》

오늘 군경위원회의 한 일군이 영농지도를 내려왔었다. 농장을 돌아보며 새해 농사정형을 료해하던 그는 종자처리장에도 들렀다.

종자처리장에선 장영일이 주관하는 소독공들이 물온도조절에 의한 소독을 하려고 물을 끓이는중이었다.그 광경을 목격한 일군은 낯색이 핵 달라졌다.

전날 최교수를 만나고 돌아온 장영일은 다시금 실험과 탐색을 거듭하여 새소독법을 무르익힌후 그것을생산에도 입하겠다고 군에 보고했었다. 그때 그 일군은 《그건 모험이요. 한알의 벼종자가 그야말로 귀한때에 수십정보분의 씨앗을 다 삶아 버리면 어찌자고 그러오?》하며 찬성을 안했었다.

쌀쌀한 눈길로 김이 문문 피어오르는 물탱크며 버씨앗이 그득그득 차있는 종자탱크들 그리고 한쪽에 물켜서서 서성거리는 소독공들을 둘러보던 경영위원회일군은 한숨을 내그었다.

《군에서 <교>소독제량류산철이랑 그런대로 보장해주었는데 왜서 이런 위험한 노릇을 하는지 모르겠구만. 기사장동무야 학사인데 동무가 최고수치로 정한 그 온도에서 씨앗분해효소들이 확산되어 체내원형질이 파괴된다는것쯤은 알고도 남을 사람이 아니요? 설사 당장은 잃었다해도 후에 모판이나 포전에서작물들에 이상현상이 일어날수 있다는걸 그래 모른단말이요? 참, 리해가 안된다니까.》

그가 관리위원장한테 무슨 지시를 줬는지 관리위원장이 직접 종자처리장에 나타나 물탱크화로의 불을 끄고 소독공들을 다른 일에 돌리었다.

썰렁해진 작업장한구석에 망연히 굳어져서 있던 장영일은 자정무렵 그자리에 털썩 누워버렸다. 안타깝고 막막한 감정을 안고 모대기다가 종자가 마니우에 누운채로 잠들고 말았다.

...시야에 드리운 뽕얀 안개발을 헤가르며 한 중년녀인이 다가왔다. 몸매가 유연하고 얼굴이 인자하게 생긴 녀인은 영일의 머리맡에 앉더니 농쟁기를 다루느라 터실해진 손으로 그의 이마를 짚어주었다. 녀인의 서느러운 눈가에 측은한 련민의 정이 어린다.

《감기라도 걸리면 어찌자고 이런데 누웠냐?》

녀인이 나직이 한숨을 내긋는다.

《애, 일어나렴. 일나갈 시간도 되었는데.》

영일이가 아무 대책도 안하고 공공 앓음소릴 내며 계속 누워있자 녀인은 조용히 일어나더니 발속으로들어갔다. 퇴비무지결에 영일이가 벗어놓은 지계를 진다. 지계에는 김이 문문 나는 퇴비가 어느새 가득 담야진다. 녀인이 밭이랑을 타고 힘겨운 걸음을 하는데 퇴비짐은 별안간 벼종자가마니로 바뀌어 그의 섬약한 몸을 무겁게 누른다. 녀인이 넘어질듯 비칠거린다.

《그만 두세요. 어머니.》

영일이가 말리자 어머니는 시름겨운 어조로 대꾸를 한다.

《어찌겠니. 네가 지쳐 쓰러졌는데 나라도 해야지. 우린 이 일에 운명을 걸지 않았니.》

집에 놀리운 어머니의 몸이 흠속으로 푹푹 빠

진다. 정갱이가 잠기고 그다음 허벅다리까지 잠기더니 눈깜박할새 온몸이 잦아들고 땅우엔 지게만이 남았다.

《앗, 어머니-나때문에 어머니가...》

영일은 몸부림을 치다가 벌떡 일어났다. 피피한 정적이 드리운 작업장의 어설픈 광경이 눈에 안겨들어서야 현실에 돌아왔다.

장영일은 이마에 질벅히 내뿜은 식은 땀을 훔치다가 어느덧 김이 잦아들고 랭기가 서린 물탱크를 물끄러미 들여다 보았다.

(이젠 어떻게 해야 종단 말인가?...)

번거로운 심정에 잠겨있던 장영일은 집에서 영순이가 눈이 까매 기다릴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휘청휘청 종자처리장을 나섰다. 달구지길 량쪽으로 드러누운 논과 밭들에서 들쭉한 흙냄새와 풀냄새가 물씬 풍겨왔다.

논바닥이며 밭이랑의 흙밥이 한껏 부풀은, 그 푸근한 땅을 갈아엎고 팔보숭이처럼 부근한 토양 속에 씨앗을 묻어야 할 농번기가 닥쳐온것이다. 농민특유의 짜릿한 느낌이 피줄을 따라 흐름치였다. 씨앗, 씨앗... 알알이 영글고 깨끗이 소독된 종자!...

그것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전야...

그 어떤 촉급한 심정이 영일을 사로잡았다. 걸음이 저도 모르게 빨라졌다.

밥을 지어놓고 기다릴줄 알았던 영순은 집에 없었다. 그가 실험실에서 밤을 밝히고 있으리라는 생각에 영일은 얼른 밥을 해 싸들고 작업반으로 나갔다. 그런데 그곳에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물으니 초저녁때 미량물질을 채취하겠다고 배낭을 들고 설악산으로 떠났다는것이였다.

영일은 가슴이 덜컥하여 영순을 찾아 산으로 올랐다. 여기저기 해매이다가 새벽무렵에야 부엉골막바지에서 쉼을 깔고 누워있는 영순을 발견했다.

《아니?! 영순아-》

영일은 황망히 달려가 녀동생을 안아일으켰다.

영순은 배낭을 진채로 산비탈에서 굴러나며 발목과 무릎을 상했었다.

전지불을 번쩍이며 나타난 오빠를 보자 그는 눈물부터 흘렸다. 《오빠!...》

영일이가 업으려고 등을 돌려대며 앉자 영순은 고개를 외로 틀었다.

《싫어-》

《왜?》

《창피하게...》

《네가 아직 덜 아팠구나. 자, 어서-》

《싫다는데...》

《그럼 이곳에 영영 있으려무나-》

이러며 성을 내서야 영순은 할수없이 응했다.

무거워 처져내리는 그를 추슬러올리며 영일은 조심스레 걸음을 옮겼다.

《아프니?》

《응. 오빠, 힘들지?》

《힘들다. 그러나 어찌겠니. 네가 걸을수 없는 처지가 됐는데.》

그 순간 영일은 어릴 때 자기를 업고 학교로 오가던 어머니가 문득 생각났다. 《네가 쪽정이이삭도 못맺고 스러지는 곡식포기처럼 될가봐 그런다.》 하던 어머니의 말소리가 귀전을 쳤다. 그 말은 절절한 당부로 변하며 귀안에서 공명을 일으켰다. 《엄마기러기가 없으면 오빠기러기가 애기 기러기를 잘...》 그 어떤 책임감으로 하여 가슴이 절로 무거워졌다.

《그만큼 산길을 주의하라 말했는데...》

《...》

죽은듯이 기척이 없던 영순이가 갑자기 불부는 소리를 하는것이였다.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걸 누가 알기나 해. 군 일꾼이라는 사람이 어찌면 그럴수 있어?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리해라도 해줘야지.》

《힘겨운 모양이구나. 불평을 부리는걸 보니.》

《힘겨워서가 아니라 분해서 그래. 오빠가 무슨 우리 집터밭농사를 잘되게 할려고 그런걸 해요?》

사람이 정말 너무 무정해. 오빠, 이제라도 다 그만두고 말자. 그러면 몸도 마음도 편해 좋을게 아니야. 우린 전문연구사도 아닌데.》

그 소리에 영일은 허허 웃고 말았다.

《네가 산속에서 벌을 만났던 모양이구나.》

《...》

영순이가 어느정도 진정되었을 때 영일은 침중한 어조로 뇌였다.

《난 아까 꿈에서 어머니를 만났었다. 어머니 내가 주저앉아 한숨만 쉬자 제가 대신 짐지계를 지고 밭이랑을 타더구나. 우리가 아직도 어머니의 뜻을 잘 이어가지 못하는것 같다. 어미기러기의 녀이 새끼기러기의 마음속에 간직되어 더 빨리 그리고 더 멀리 훨훨 날아가길 바라던 어머니가 아니냐.》

《엄마소릴 하지 마. 그러지 않아도 자주 생각나는데.》

《부도의 녀을 잊지 못하는 자식한텐 부모를 추억할 권리가 없는 법이다.》

《...》

《영순아, 우리야 나라의 덕택으로 대학공부를 하고 기술일꾼이 된 사람들이 아니냐. 나라에선 우리 오누이가 뿔누에성장촉진제를 연구해냈을 때 자그마한 성과를 크게 여겨 입당도 시켜주었고 학사증도 안겨주지 않았니. 그런 믿음을 받아온 우리가 나라의 부강을 위한 일을 누가 알아준다고 하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안하겠니. 그건 개인리기주의고 일종의 배신이다. 우린 백배 천배의 노력을 하여 나라의 농업과학기술을 세계적으로 앞선 수준에 올려 세워야 한다. 우리의 마음속 웨침은 오직 한가지여야 해. <목표는 더 높이, 그 실현은 더 빨리!->하는...》

이 말은 마음속의 자기한테 하는 말이기도 했다. 영일은 자포자기에 빠져드는 동생을 보면서야 자신의 마음도 그와 같이 흔들리고 있었음을 깨닫고 스스로를 채찍질하였던 것이다.

영순을 방에 들여눕히고 응급처치를 하고난 영일은 그 길로 다시 종자처리장으로 나갔다. 더운 물탕크화로의 석탄재를 와락와락 퍼낸 다음 마른 장작을 한아름 안아다 넣고 주저없이 불을 살리었다...

×

저 멀리 흘러간 세월을 돌이켜보시라
그대가 이 땅에 남긴것 그 무엇이던가

청고운 노래소리가 들관에 메아리쳤다. 작업반들의 모판준비상태를 돌아보느라 들길을 걷던 장영일은 걸음을 멈추고 노래가 울려온 버들방천쪽을 바라보았다.

작업복차림의 몸매늘씬한 처녀가 동심에 잠겨 자연과 노닐고 있었다. 잡자리잡이를 하는 장난꾸러기처럼 허리를 수그리고 버들포기결으로 발뼉 발뼉 다가붙더니 봄물이 오른 버들가지를 살그니당기여 얼굴로 가져가는 것이었다. 노릿한 가지에 복스럽게 열린 하이얀 개지를 연지불에 대고 살살 비비다가는 입김으로 털을 호- 불어놀리면서 재미있다는 듯 꺾꺾 웃는 것이었다.

그는 관리위원회 기술부원인 문정미였다. 영일이가 정미를 알게 된 것은 두해전 여름 려행길에서였다.

그때 영일이와 영순은 학사증을 받으러 사농업대학이 있는 도소재지에 갔었다. 수여식이 끝난후 기술도서들과 실험기구들을 구하느라 돌아다니다가 역에 나가니 그들이 타야 할 열차의 차표가 다 팔렸었다. 차를 놓치면 하루 더 묵어야 했다.

영일이 난감하여 결상에 주저앉는데 영순이 려객부원을 만나봐야겠다고 하면서 어디론가 갔다. 얼마후 그는 두장의 차표를 들고 웃으며 나타났다.

《자요, 오빠.》

《네가 수완이 보통 아니구나!》

그들이 차에 오르니 벌써 자리는 다 차고 어느 한 자리에 처녀가 혼자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그리로 다가가 손님이 있는가고 물었다.

영일이네한테로 시선을 옮기던 처녀는 놀라운 표정을 지었다.

《학사선생님들이군요!》

《?!...》

영일이가 의아해 하자 처녀는 열적은 미소를 그렸다.

《좀전에 려객부원한테 학사증을 펼쳐보일 때 저도 보았답니다.》

영일은 짐작되는바가 있어 영순을 곱지 않게 쳐다보았다. 당에서 자기들의 자그마한 연구성과를 크게 평가하여 안겨준 그 증서를 그 어떤 사

회적권리에 대한 징표처럼 내두른 동생을 기회를 보아 따끔히 일깨워줘야겠다고 생각했다.

어성버성해지는 공기를 느낀 처녀는 얼른 분위기를 일변시켰다. 《과학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어서...》 하며 창가의 좋은 자리를 내주었다.

《우린 과학자가 아니라 농장원입니다.》

장영일이 이러며 어색해하자 처녀는 더욱 놀라는 것이었다.

《그러니 농장원학사?!... 세상에...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 어서 앉으세요.》

처녀의 태도는 조금도 꾸밈이 없는 것이었다.

몸매가 늘씬하고 얼굴이 곱살하게 생긴 처녀를 고맙게 여겨보던 장영일은 차가 얼마쯤 달렸을 때 어디까지 가는가고 물었다. 처녀는 자기는 지금 사농대를 졸업하고 고향인 룡천군 동북리로 현실 체험을 나가는 길이라고 했다.

《동북리요? 우린 동하리사람들이데요. 이웃이구 만요!》

영일이가 반가운 태도를 보이자 처녀도 기뻐했다.

《그러니 동하리의 그 유명한 오누이 기술일군이 아니예요? 언젠가 <로동신문>에까지 난...》

《허허, 뭘 한 것이 있다고 유명하기까지...》

《어떤 사람들인가 해서 호기심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처녀는 영일이네를 진심으로 존경했다.

그와 농업과학기술의 세계적 추세며 우리 나라 농업의 현실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영일이네는 유쾌한 려행을 하였었다.

장영일은 농장에 돌아와 인차 기사장직책을 맡아 안았다. 바쁜 사업에 몰려 려행길에서 만났던 그 인상 깊은 처녀를 감감 잊고 있었는데 한해후 그가 불쑥 동하리에 나타났다.

1년간의 현실체험을 마치고 이곳 농장기술부원으로 배치받아왔던 것이다.

장영일은 째시간을 내어 그한테 사업경험도 들려주었고 매 영농공정들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에 대한 대책안도 알려주었다. 그리고 관리위원회 일군으로서 작업반들에 대한 기술적지도방법도 차근차근 가르쳐주었다.

문정미는 지성이 있고 눈썰미가 빠른 녀자라 인차 구실을 하는 기술일군이 되었다. 그는 자기의 선생인 영일을 진정으로 존경하며 따랐다...

버들가지를 손에 든 문정미가 웃으며 영일이한테로 다가왔다.

그때 여러마리의 기러기가 마을 상공을 끼르륵 거리며 북쪽으로 날아갔다.

《어미기러기를 대신하여 선두에서 무리를 이끌고 날으던 오빠기러기가 힘이 들어 속도가 떨어지고 있군요. 제가 오빠기러기결에서 함께 날으며 힘도 보태주고 길도 살피주는 동무기러기가 될수 없을까요?》

정미의 진정어린 말을 듣던 영일은 문득 고개

를 찢히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피로와 시름에 절어 주변의 모든것을 오직 자연 그대로의 색깔과 음향으로 감수하던 그의 눈에 비로소 구름 한점 없이 맑은 이른봄의 하늘이 그리고 그 하늘밑으로 즐기쳐 흐른 산등성이마다에서 연분홍봉오리를 터뜨린 진달래꽃들이 아름다운 색채를 띠며 안겨왔다.

(벌써 봄이로구나!...)

깃을 물고 버들숲을 날아예는 새들의 우짇음소리가 귀가에서 울리기 시작했으며 검은 발톱에서 서러오른 흰김이 딱시루에서 피어나는 김처럼 구수하게 풍겨왔다.

농장의 참모장인 기사장, 참모장의 1대리인인 관리위원회 기술부원... 그 이상적인 결합이 온 농장의 축복속에 이루어졌다.

그무렵 한통의 편지가 장영일이한테 날아들었다. 최교수가 보낸 편지였다.

...

동무가 보낸 그시간의 연구내용을 가지고 농업과학원에 갔더니 호영이 대단하오. 박사논문감이라는거요.신심을 가지오. 누가 뭐라든 중요하지마오. 나도 대학시험농장에서 생산실험을 해봤는데 승산이 있소. 나의 실험자료를 보내니 참작하오.

200×년 3월 15일

나는 나의 오빠가 만사람의 존경을 받는 박사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으랴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도 박사가 되고싶었다.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급하고 복잡한 일들이 련속 들이닥쳤다. 오빠도 바쁘고 나도 바빴다. 오빠는 종일 벼락종기계제작때문에 기계화반에 나가있다가 저녁에 들어와 관리위원회일군들한테 콤피터강습을 주어야 했고 나는 파종준비때문에 분조들에 나가있다가는 저녁때면 농장원들한테 새로운 영농방법에 대한 강의를 해야 했다. 그러면서 연구사업도 밀고 나갔다.

얼마전 나는 결혼을 했다.

남편은 나의 연구를 여러모로 방조해주며 나한테서 농업기술을 배우던 우리 반의 제대군인분조장 김룡식이였다.

오빠의 곁에는 정미동무가 그리고 나의 곁에는 룡식동무가 있어 서로의 단독연구에서는 커다란 성과가일어났다. 좋은 길동무들을 만나 길이 가까와 지고 목적실현이 빨라진것이다.

어느날 우리 두가정이 모여앉은 자리에서 오빠는 이렇게 말했다.

《영순이와 나는 무조건 성공하여 박사가 되고 매부와 정미동문 학문에 힘써 빠른 시일내에 학위를 소유해야겠소. 그다음은 반파 농장의 사람들

을 그렇게 만들고. 모든 농민들이 현대과학기술을 체득하고 가치있는 발명들을 하여 학사가되고 박사가 되면 그게 바로 나라의 번영이고 부강이 아니겠소.》

나는 벅찬 생활의 흐름에 몸을 싣고 희망의 봉우리를 향하여 웨치고싶었다.

《우리의 목표는 더 높이- 그 실현은 더 빨리-》

무슨 일때문에 영순의 실험실에 들렀다가 실험일지에 씌여진 그 글을 읽어 본 영일은 마지막 문장에 글을 빼고 《인생의 목표는 더 높이- 조국의 부강은 더 빨리-》하고 굵직하게 써넣었다.

3. 명예는 대지에 새기라

침묵, 또 침묵... 무겁고 불안한 공기가 장내에 드리웠다.

《자- 그러니 희망자가 없다는건데...》

군경영위원회일군의 그 말소리를 숨막힐듯한 침묵이 삼켜버렸다.

장영일은 점차 불안에 빠져들었다. 최교수가 보내준 실험자료에 기초하여 소독법을 연구완성해온 그는 다시금 그 도입을 시도했었다. 반신반의하는 관리위원장을 과학기술적으로 납득시키여 10정보분의 벼종자를 새 소독법으로 소독하던중인 오늘 군경영위원회일군이 농장에 내려왔다.

그는 장영일이 또 물온도조절에 의한 씨앗소독을 하고 있는걸 알고는 당장 농장내 작업반장, 기술원, 분조장들의 협의회를 소집하였다. 말로는 소독된 벼씨를 생산포전에 가져다 뿌릴 본인들의 의향을 들어보자고 했지만 속으로는 감히 누구도 이런 모험에 동의하지 않을것이라는, 하여 대중의 의견으로써 장영일의 고집을 꺾어버릴려는 속타산을 한것이다.

물온도의 피해를 입은 벼종자가 모판이나 포전에서 이상현상을 일으킬수 있으며 그로 인해 농사를 망치는 경우 법앞에 나서야 한다는 그 일군의 어마어마한 서론을 듣고난 작업반장, 분조장들은 누가 새로운 방법으로 소독과 싹틔우기를 한 벼씨앗을 가져다 뿌리겠는가고 물었을 때 모두 입이 얼어붙어 눈치만 보았다. 뒤날에 초래할 후과를 생각하고는 기가 질려버린것이다.

장영일은 혀를 깨물었다. 사실 그는 씨앗소독을 성사시키는데만 몰두했지 소독된 씨앗을 모판에 내는 문제에 대해선 신경조차 쓰지 않았었다. 소독된 씨앗은 웅당히 생산포전에 내다 뿌리군하는 그 관념에 물젖어있은것이다. 생산을 담당한 작업반장, 분조장들의 태도를 소홀히 해온 자신이 후회되었다. 절망에 빠져 얼굴이 꺼멓게 질리였다.

《보오. 농장원들자체가 달가와 안하는걸.》

야릇한 미소를 입가에 그리던 군일군이 담배를 꺼내물고 불을 붙일 때였다.

한켠 구석에 앉아있던 소재지마을 작업반장이

우무적 일어났다.

룩십나이에 이른 그 아바이반장의 입에선 너무도 뜻밖의 소리가 울려나왔다.

《우리 반에서 그걸 다 가져다 뿌리겠습니다.》

장내가 갑자기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눈이 켜해졌던 군일군이 파지듯 물었다.

《무슨 담보가 있어 그런 작정을 하는거요?》

《담보요?... 그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낳게 한것은 사람이구요. 우리가 <고난의 행군>을 하던 때였수다. 콩씨기도 쌀처럼 귀한 때였는데 그걸 집에서 아낌없이 퍼내다가 자급비료를 만드는데 리용한 한 젊은 기술자가 있었수다. 농장포전에 뿌릴 자급비료였지요. 그 사람인들 집에 식량이 넉넉했으며 가족이 없었겠습니까? 아니였지요. 더구나 그는 너동생을 대학공부까지 시켜야 하는 거쁜 처지였수다. 그 사람은 화학비료를 대신할 새로운 자급비료를 연구하는 속에서도 별레를 잡아먹는 개구리를 보호증식하기 위해 올챙이못을 판다. 희귀한 풀씨들을 모아다 저 부영산골안에 염소방목용물판을 조성한다 하며 뼈물이 마를 정도로 뛰여다녔수다. 그가 왜 그랬겠수?... 그런 사람을 믿지 않으면 어떤 사람을 믿겠습니까? 실리를 위해 애쓰는데 우리도...》

회의분위기는 삽시에 달라졌다.

회의회가 끝났을 때 영일은 나는데듯 종자처리장으로 달려갔다. 노릿하고 깔깔한 벼씨앗을 한웅큼 집어 불에 대고 비비는 그의 눈에선 물기가 번쩍이었다.

(씨앗을 품어줄 토양은 얼마나 기름져있는가!)

4월에 들어서며 봄이 질어갈수록 그의 가슴속 희망도 푸르려갔다. 넘치는 정열의 자양분을 받은 듯 새롭게 소독되어 모판에 뿌려진 씨앗들이 한 잎두잎 아지를 치며 튼튼한 벼모로 줄기쳐 자랐다. 봄별 따사로운 창공에선 종달새가 우짖고 비옥한 들판에선 아지랑이가 피여날 때 그의 마음속에서도 창조의 기쁨이 보람찬 생활의 노래가 되어 울려나왔고 환희의 미소가 눈가에 그윽히 피여들곤했다.

《오빠 시인이야!》

영순이가 불쑥 던진 그 말이 영일은 싫지 않았다. 사람은 뭔가 사랑하고 있을 때 시인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자기가 이 땅, 이 시대 그리고 그 모든것의 주인인 인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자부가 생겼다.

장영일은 비로소 어머니의 어제날이 리해되었다. 어린 곡식포기를 어루쓸면서 《호호, 요것들이 참!...》하고 시름없이 웃던 어머니, 피곤하여 코피를 쏟으면서도 벼모지개를 지고 논두렁을 타던 잊을수 없는 그 모습! 그 나날 어머니의 가슴속에 차넘치던 애정이 자기의 가슴속에서 파도치고 어머니의 혈관속에서 흐르던 뜨거운것이 자기의 몸에서 맥박치는것을 느끼는 순간 영일은 행복하

여 눈물을 머금었다.

열렬한 애무속에 실하게 자란 벼모들이 드디어 생산포전으로 옮겨가는 날이 왔다. 농장벌에 푸른 주단이 펼쳐진다는 모내기철이다.

장영일은 소재지마작업반의 모내기전투장에 있었다.

새로운 소독법으로 소독하여 키운 벼모를 쫓는 중이었다.

영일은 물관리공과 함께 써레친 논판에 밀비료를 치면서 그한테 모살이기간 비배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었다.

지지배배- 지지배배-

머리우에선 눈부신 해빛을 헤가르며 청제비들이 분주히 날아왔다.

이분취를 번쩍이며 물씨레를 치는 프락뜨르를 넘어날아온 제비 한마리가 영일의 농민모에 내려앉아 귀따갑게 우짖었다.

뜿에 나앉아 휴식을 하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웃어댔다.

《제비가 박씨를 물어왔다고 하는게 아닌가?》

《아마 그럴수도 있어. 작년에 기사장네가 동지에서 떨어져 수담한테 쪼여 죽을번한 새끼제비를 빨간 약이랑 바르고 밥알이랑 먹여주면서 살려냈다지 않아.》

그러는 농장원한테 장영일이 한마디 던졌다.

《그 씨앗에서 나온 줄기에 박이 몇알이나 달릴것 같습니까?》

《몇알까지요? 허허, 욕심두... 한알에서도 집이 생겨나고 쌀이 쏟아지고 비단천이 흘러나오겠는데...》

《난 못해도 두알은 있어야 좋겠는데요.》

장영일은 이러며 웃었다. 영순이 생각이 불쑥났던것이다. 그 어떤 행운으로 인해 만약 자기한테 복이 차례진다면 그것의 절반을 아낌없이 동생한테 주고 싶은 심정이였다.

그때 1분조장이 기사장을 찾으며 달려왔다. 열굴색이 말이 아니였다.

《큰 야단났습시다.》

《?!...》

《모판의 벼모가 죽어갑니다.》

장영일은 가슴이 철렁하여 그와 함께 1분조모판으로 향했다.

모판에 이르러 두둑들을 살피던 영일은 기가차서 말이 다 안나갔다. 열두둑의 벼모들이 시들시들 마르며 주저앉고 있었던것이다. 보다 더 그를 기 막히게 만든것은 그 병의 원인이였다. 연구중인 성장촉진제를 모판에 쳤다는것이였다.

《국가검정도 안받은 연구물을 생산포전에 망탕 쳤단 말이요?》

그때 영순이도 모판에 나타났다. 사색이 되어 병든 벼모들을 살피며 돌아가던 그는 두둑머리에 주저앉아 속타는 한숨만 훌훌 내거었다.

(어떻게 할것인가...)

장영일은 생각이 복잡해졌다. 벼모 열두둑이면
는 반정보분이나 될까 말까 한 량이다. 다른 분조
나 반들에서 손쉽게 조절하여 보충할수도 있는,
기사장의 권한으로 조용히 처리할수 있는 문제였
다. 그런데 정작 그러자고 하니 왜서인지 섣뜻 마
음이 내키질 않았다. 그래선 안된다는 량심의 목
소리가 가슴속에서 울려퍼졌었다. 그래 원칙대로
하자고 하니 영순이가 목에 걸리었다.

요즘 검정시험을 치러 대학에 가있는 남편의
뒤바라지와 집살림을 맡아하며 작업반일도 연구
도 제대로 해나가느라 피로에 지쳐서 꺼칠해지고
한줌으로 줄아든듯한 영순의 뒤모습을 측은히 굽
어보느라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다.

(문제가 야기되면 저 애가 무사치 못할텐데.)

갈피를 못잡고 서성거리던 장영일의 눈앞에는
연젠가 영순의 실험일지에서 본 《나는 박사가 되
고싶다.》, 《더 빨리...》하는 문구가 떠올랐다. 상
서롭지 않은 느낌이 뇌리를 치는 순간 영일은 소
스라치듯 놀랐다. 곧 단호한 결심을 가졌다.

그날 저녁 관리위원회에서는 작업반기술원들의
모임이 있었다. 말이 모임이지 사고심의나 같았
다.

리당비서가 장영순을 일으켜세웠다.

《물론 벼모 열과상이면 많은 량은 아니요. 하지
만 그 열과상에 들어간 종곡과 로력을 생각해보
오. 그걸보관하고 소독하고 심어 자래우느라 우리
가 얼마나...》

영순은 머리를 푹 수그리고 비판을 받았다.

그를 피로운 심정으로 쳐다보던 장영일은 리당
비서한테로 시선을 돌렸다.

《이번 사고는 본의든 본의 아니든 국가의 리익
을 침해한...》

영순이가 고개를 푹 쳐들었다. 피기 한점 없이
해쓱 질린 얼굴이다. 원망어린 눈길로 영일을 향
해 날아왔다.

(어쩌면 그런 말들?... 오빠.)

(달린 할수 없구나.)

장영일은 랭담한 표정을 짓고 그를 마주보았
다.

영순의 눈꼬리가 바르르 떨리었다.

(너무해요. 마치나 남남처럼...)

입술을 피나도록 깨물던 영순이가 얼굴을 싸쥘
며 주저앉았다. 어깨가 세차게 떨리는것이 알리었
다.

애절하게 울려오는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영일
은 자신을 잊었다. 리당비서가 어떤 결론을 내렸
으며 회의를 언제 끝났는지 그리고 자기가 어떻
게 그 자리를 벗어났는지 의식하지 못하였다. 흘
어져가는 사람들속에 섞여 휘적휘적 걷다가 곁에
누군가 꼭 있어야 할 사람이 없는것 같은 느낌이
들어 주춤거렸다. 그제야 영순이 생각이 났다.

그는 걸음을 돌려 사무실로 갔다. 영순은 없었
다.

다시 돌아서 나오는데 시꺼먼 그림자가 오흘
막아섰다.

1분조 모관관리공녀인이었다.

《우리 기술부원이 종자값을 변상하게 됐다이
요? 아유- 이걸 어쩌나?... 그건 모관관리공들이
쳤는데. 배합비율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서 그렇게
... 야, 우리가 정말 멍퐁이지 괜히 애매한 기술부
원만...》

(?!...)

영순이가 왜 그리도 슬피 흐느껴 울었는지 짐
작이 되어 영일은 마음이 아팠다.

《작업반기술일군으로서 현대적책임이야 있지않
소.》

그러고는 터벅터벅 발 나가는대로 걸었다.

(하긴 현대적책임으로 말하면 농장기술사업을
책임진 나한테 더 큰 잘못이 있지.)

뚝-뚝- 물닭의 구성진 전주곡에 이어 개구리들
의 요란스런 합창이 그의 상한 마음에 활기를 불
어넣으려듯 들려온다. 개굴개굴... 졸졸졸... 논고
로 흘러드는 단조로운 물소리가 화음을 이루며
엇섞여 울린다. 산기슭쪽에서 숲의 싱그러운 향취
를 풍기며 산바람이 선들선들 불어내렸다. 바람을
타고 밤새의 구슬픈 울음소리가 울려왔다. 소오-
쪽, 소오-쪽... 어미를 잃은 새끼새의 울음인지
치량하기 그지없다. 그 새소리는 불식간에어린 아
이의 목소리로 변하며 들려온다.

《애기기러기가 힘들어 떨어지자 엄마기러기는
애기기러기를 등에 업고 갔대. 오빠기러기가 목이
타 하자 엄마기러기는 제몸의 피를 부리로 쪼아
오빠기러기의 입안에 넣어주었대. 그러느라 지칠
대로 지친 엄마기러기는 넓은 바다가 끝나고 땅
이 나지는순간 그만... 오빠, 죽은 엄마기러기가
막 불쌍하지?》 추억속의 소녀가 조잘거리며 똑길
을 걸어온다.

천진한 소녀애의 모습은 점차 시야에서 확대되
며 숙성한 처녀의 모습으로 안겨들었다. 한손에는
책을 들고 다른 한손에는 호미를 든 그 얼굴감실
한 처녀는 영일을 보더니 생글생글 웃으며 팔소
매를 살그시 잡아흔든다.

《오빠, 난 꼭 박사가 되고싶어요!》

(어서 그 희망의 꽃을 활짝 피우거라. 내 밀거
름이 되어줄테니.)

《나를 곤경에 빠뜨리지나 말지요.》

처녀는 뽀로통해지더니 어디론가 말없이 가버
린다. 추억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그를 안타까이
뒤쫓으며 영일은 중얼거렸다.

《이 오빠의 심정을 그렇게도 모르겠냐? 우리가
이러는걸 어머니가 알면 얼마나 속상해하겠니. 어
머니가...》

영일은 자기가 푹이 끝나는곳에서 돌아서지 않
고 그냥 산기슭으로 접어들고있음을 의식하지 못
했다.

그러다가 산등의 어느 한곳에 이르러 흠칫 놀

왔다. 그때야 자기가 어머니의 산소가 있는 마을 옆산에 올랐음을 알았다. 남쪽산자드락의 소나무 발이었다.

등근 보름달이 떠 산속은 대낮처럼 환했다.

키낮은 떨기나무가 한그루 자라는 어머니묘쪽에서 웬 너자의 흐느낌소리가 가느다랗게 울려왔다.

영순이가 어머니묘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었다.

영일은 쿵덩거리는 가슴을 누르며 그리로 다가갔다.

인기척을 느낀 영순이가 천천히 얼굴을 들었다.

옆에와 서있는 영일을 본 그는 놀라며 한순간 굳어졌다. 얼마후 더는 자기를 건잡을수가 없었던지 다시금 자세를 흐트리더니 속의 말을 쏟아놓는 것이었다.

《난 어머니한테 용서를 빌었어요. 아... 내가 미리 모판관리에 관심을 돌렸더라면 아니, 그 성장촉진제물질을 제대로 만들어놓았더라면 오늘같은 일이 생기지 않았을게 아닌가요. 관리공들은 학사가 연구한것이라고 마음 폭 놓고 량껏 쳤다질않아요. 난 벌을 받아싸요. 나라의 알곡생산에 지장을 줬으니깐요.난... 학사의 명예를 더럽혔어요.》

《!...》

장영일은 가슴이 몽클했다.

(용타! 넌 자기를 이겨냈구나. 세상에서 가장 힘든것이 자기를 이기는것인데...)

고개를 무겁게 수그리고 자신을 타매하던 영순이가 문득 품속에서 한장의 종이를 꺼내었다.

《지금까지 오빠한테 숨겨온것이 있어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전에 오빠한테 남긴 유서예요.》

《?!...》

영일은 영순이가 내미는 종이를 떨리는 손으로 받아펼쳤다.

《영일아, 놀라지 말거라.

난 너의 친어머니가 아니다. 너의 어머니...

내가 처녀때 우리 고향마을에는 한 녀성연구사가 벼재배실험을 내려와있었다. 합숙이던 우리 집에서숙식하는 그한테는 젓을 갖뎀 아들이 있었다.

어느해 여름 50년이래 처음 보는 큰 장마가 왔는데 그 녀성연구사는 홍수로부터 실험포전의 곡식포기들을 지키다가 범람하는 강물속에서 영영 나오지 못했단다.

그가 남긴 아이를 우리 집에서 당분간 맡아키웠었는데 어느날 나는 그를 업고 룡천군경영위원회과장을하는 애아버지를 찾아왔다. 애를 넘겨주고 갈려는데 그애가 나의 가슴팍에 파고들며 <엄마-엄마->하면서 좀처럼 떨어지질 않더구나. 그간 정이 들은데다 어머니까지 잃은 그 불쌍한것

을 놓고가자니 나도 차마 발길이 떨어지질않았고... 하여 그의 어머니가 되는 길을 택했구나. 그렇게 되어 이루어진 새 가정에서 태어난 애가 바로 영순이였던다. 영일아, 조국의 부강을 위해 생을 바친 친어머니처럼 훌륭한 인간이 되거라. 뜨거운 사랑을 지닌... 부모의 넋을 내 나라의 넓은 대지에 풍년작황으로 새겨가거라.》

(아, 어머니!...)

영순이가 조심히 침묵을 깨치었다.

《오빠와 나사이에 금을 긋는것 같아 차마 그걸...》

《나도 알고 있었다. 입당문건을 쓸 때 당비서동지한테서...》

《그런데도 오빠... 정말...》

영순이 영일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영일은 잔가락으로 오르내리는 그의 어깨를 따뜻이 어루쓸었다.

《눈물을 거두거라. 조국의 대지에 씨앗으로 뿌려진 우리가 역세게 줄기쳐 자라 훌륭한 열매를 맺어 만풍의 가을이 이루어지는 그날 이곳에 와 가슴속에 품어온 천만사연을 다 터놓자꾸나.》

《...》

정적이 드리웠다. 조심스럽게 이따금 그 정적을 두드리던 밤새의 울음소리도 달빛가득찬 공간속으로 잦아들자 그들의 귀가에선 그 어떤 인생의 메아리가 전류의 흐름처럼 웅- 하며 공명되어 울리었다.

오누이는 말없이 나란히 서서 푸른 잔디에 덮인 묘소를 점도록 바라보았다...

그들이 병든 모판의 뿌리흙을 떠가지고 실험실로 들어가니 리당비서와 문정미가 주인을 기다리고있었다. 리당비서는 장작을 패서 불을 때는 중이였고 정미는 더운 밥을 지어가지고 나와 방안을 정돈하는중이였다.

마침 검정시험을 치르고 내려온 김룡식이까지 나타나 《선구자의 집》은 다시금 활기가 돌았다.

합심하여 밤을 밝히며 벼모가 죽은것은 이미 모판흙에 침투되어있던 산성성분과 성장촉진제물질의 화학반응에 의해 연약한 뿌리가 피해받은탓이라는, 석회를 중화제로 쓰면 성장촉진제의 전망은 확정적이라는 결과를 얻고 흐뭇한 심정으로 밖에 나서니 벌써 새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연보라빛운무가 드리운 상쾌한 아침 하늘에서 구성진 새소리가 울리었다.

끼룩, 끼르륵...

기러기떼가 날고 있었다.

서로 찾고 화답하며 앞서거니 뒤서거니 렬을 맞추어놓고 넓은 희망의 하늘을 쉬임없이 가고있었다.

-룡천군 동하리에서-

전민이 인민군대의 숭고한 사상정신적풍모를 적극 따라배워 군대와 인민의 사상의 일치, 투쟁기풍의 일치를 실현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구호중에서

조국이어! 병사들을 자랑하라

신형길

나에게 안겨주는
축하의 꽃다발인가
가슴은 뿌듯이 긍지로 부풀어라
달리는 뺨스에 새긴 글발
-조국이어!
병사들을 자랑하라

오늘도 검은 총구가 서로 맞대인
조국의 최전방 전호가에
총을 굳게 잡고 툼툼히 서있는
병사들의 불굴의 모습
가슴 뜨겁게 안겨와라

그 녀이 어려있구나
해빛 넘치는 저 밝은 창문가에
출근길에 걸음다그치는
젊은이들 과학자들 방직공들
밝은 얼굴에 피여 피어나는 미소에
춤추듯 학교로 가는
귀여운 어린것들의 가슴에도...

병사여! 좋은 날 궂은 날에도
어깨우에 눈비를 다 맞으며
서늘한 긴장감에 조이는 전호에서
천리방선을 미덥게 지켜선
우뚝 돋보이는 그대

매일 매 순간 평화와 전쟁이

삶과 죽음으로 육박전을 하는
조국의 오늘과 래일은
그 억센 어깨우에 떠싹고 있는 그대

내가 썼던 전호가에 서있는
맹호 같은 젊은 병사들
한번 내리치면 바위도 부서질듯
그 무쇠주먹 쥐여보고싶구나
불꽃이 튀는 그 눈빛을 보고 싶구나

장군님의 선군위업에 심장의 피
더 바치지 못해 피로울 때에도
말없이 나의 손을 잡아 힘을 주고
장군님의 걸음에 맞추어
더 용감히 돌격해야 할 때에도
웃으며 길을 가르쳐준 고마운 스승
시대의 기발이고 나팔인 그대여

만약 결전의 시각이 온다면
총알같이 전호가에 달려가련다
혁명의 수뇌부를 지켜
생명보다 더 귀중한 조국을 지키리
부디 내가 설 자리 내달라
그대와 함께 적진으로 돌격하며
목청 다해 웨치련다
-조국이어!
병사들을 자랑하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구호중에서

통일은 이렇게...

리명근

이렇게 만나 손을 잡으니
얼마나 뜨겁게 오가는가
민족의 정이
민족의 마음이
민족의 향취가

이렇게 만나 말을 나누니
얼마나 잘 통하는가
가슴속 생각이
서로의 소원이
바라는 그 모든것이-

이렇게 만나 발맞춰 걸어보니
새삼스러워도
다시금 절감하게 되는구나
말도
풍습도
력사도
아, 한민족
하나!
하나!
우리는 분명 하나인데...

8월의 통일축전으로
뜨겁게 달아오른 이 땅
멀리에 있지 않은 그 통일을
여기서 펼쳐보는듯

왜 아직도 못이루었는가
그렇게도 바라면서
그리도 가까이 있는것을
왜 아직도 소원으로만 두고 사는가

새 세기도 벌써 몇해-

그것이 안타까워
이렇게 모여온 한민족
이런 날이 자꾸만 많아지면
통일은 더 가까워지려니
이런 날속에 뚜렷이 비껴있구나
우리 민족끼리!

통일때문에 먼저 간 영혼들의
마르고 탄 눈물이
민족이 딛고 선 땅속에서
쨍쨍 소리치며 흐른다
통일을 불러 목메인 목소리가
민족이 이고 사는 저 하늘에
가득차있다

외세가 늘어놓은 철조망을
민족의 합친 주먹으로 내리치면
분명 산산이 부서지려니
더 굳게 손을 잡자
더 뜨겁게 마음을 합치자
우리 민족끼리

6.15의 기치 높이 들고
통일대하여 굽이치라
통일조국으로 우리 민족이
세계앞에 나설 그날을 향해

우리가 서로 만난 오늘처럼
이렇게 오리라
통일은 이렇게...

대학 시간

오광철

인생은 순간마다 결론이라는 말이 있다. 흘러가는 생의 순간수간들에서 운명의 자리길이 그어지고 한생이 결정되는것은 다름아닌 인생의 고유한 리치일것이다.

바로 그것으로 하여 조국이 아끼는 우수한 아들딸들의 생은 그 생의 어느 한시간, 어느 한순간을 들여다보아도 그 웅근 한생을 평가할수 있고 결론할수 있겠것이다. 여기에 한 처녀과학자의 대학생활 한순간을 돌기켜본다.

X

정옥은 밤을 맞은 도시의 활기와 정취가 묘하게 어우러지는 창바를 내다보며 앉아있었다.

불을 환히 켜고 달려가는 궤도전차의 경적소리가 아래층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열정적으로 타는 피아노소리에 섞여 들려왔다. 거리에는 벌써 장식등의 불빛들이 명멸하기 시작했다. 도시가 뿜어내는 그 영광스러운 불빛속에 싸여 지나가고 지나오는 사람들이 순간에 하나의 류성들처럼 빛을 내뿜으며 가가와지고 멀어지는듯 하다.

고집스럽고도 열렬하게 생활을 추구하는 그 낮익고도 활기찬 거리속에서 정옥은 아버지만을 찾고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왜 아직 돌아오지 않을까? 강좌장선생님의 박사논문은 어떻게 되었을까?)

정옥은 오늘 아침 《나는 오늘 나 자신과 한번 싸워보겠다》 하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선 아버지가 몹시도 불안했고 기다려졌다.

밤을 샌 피로가 부석부석하게 매달려있던 아버지의 얼굴.

그때 정옥은 아버지의 책상우에 더운 김이 피어오르는 차잔과 함께 방금 마지막문구를 써넣은 자기의 학사론문을 올려놓았었다. 그 순간에 그는 아버지의 책상우에 펼쳐진 자그마한 소책자를 띄여보았다. 그것은 허주성강좌장선생의 박사논문개요였다.

짜릿한 기쁨과 감동이 정옥의 몸을 훑어 지나갔다. 정옥은 자기의 학사론문에 대하여서는 감감 잊어버리고 스승의 그 박사론문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아버지! 혹시 아버지가 이 논문심사를 맡은게 아니예요?》

눈빛을 빛내이며 정옥은 물었다.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유별하게 긴 오른쪽눈썹 한오리가 무거운 상념에 눌리운듯 아래로 한껏 드리워져 자기 책상우의 두 논문을 미묘하게 더듬고 있었다.

자기의 눈빛을 상대방에게 잘 드러내지 않은 과묵하고 침착한 성미의 아버지였지만 그 순간 정옥은 아버지가 허주성선생님의 박사론문을 자

기일처럼은 기뻐하지 않고 있다는것을 알아차렸다.

알길 없는 서운함과 의문이 정옥의 가슴에 흘러들었다. 말없이 아버지를 지켜보던 그는 아버지의 시선이 창턱에 놓여있는 화분에 가닿아있는것을 알아보았다. 순간 그는 자기가 왜 저 화분을 아버지 방에 가져다놓았을가 하고 생각해보았다. 그러나 언제 무엇때문에 저 화분을 이 방에 가져다 놓았는지 떠오르지 않았다.

요즈음은 학사론문의 완성을 위해 낮과 밤을잇고 애쓴 정옥이었다. 아마도 그래서 아버지가 가꿔줄 손을 잃어버린 저 화분을 자기 방에 가져다놓은것인지 모른다.

그 순간 정옥의 눈앞에는 저 류다른 인삼화분과 이어진 못잇을 추억이 5년이라는 그 짧지 않은 세월을 이끌고 와서는듯 했다...

정옥이 대학입학시험을 치고온 며칠후였다.

허주성강좌장이 아버지를 찾아왔다.

《딸을 우리 대학에 시험치워 놓구는 한번도 찾아안오나? 건방진걸! 딸을 자동화공학에 시집 보내기가 그렇게 험할줄 알았나? 지참품도 없이...》 허주성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버릇처럼 아버지를 시까슬렀다.

아버지는 뜨직뜨직 응수했다.

《중학교 최우등졸업증을 <지참품>으로 첨부했는데... 보겠나?》

《거기다 자동화연구소 실장이고 박사라는 아버지의 간판두 첨부했으니 문제 없다 이건가?》

《또 있지! 거기 강좌장이 나의 막역한 친구라는 그것이 가장 리상적인 지참품이고 또...》

아버지는 여전히 정색하여 말을 씹었다.

《또 뭐가?》

《우아한 자세와 세련된 용모는 말없는 추천장이라구 우리 딸이 그런 면에서 꼭 알맞는다고 생각하네.》

《뭐?!》

허주성은 그만에야 폭소를 터드렸다. 아버지도 웃었다. 문밖에서 듣고 있던 정옥도 그만 웃고 말았다.

그 웃음속에서 그들모두는 정옥의 대학입학을 스스로 시인한것이였다.

《제 딸이 미인이라는 자랑인데... 바로 그 미인이기때문에 힘겨운 미지의 세계인 자동화공학자로 키우는걸 삼가하라는 대학의 의견이야. 그저 시집갈 때 필요한 <지참품>으로 정옥이의 대학졸업증이 필요하다면 이제라도 좀 편한 학부로 옮겨줄 용의가 있어. 그래놓고보면 거 뭐 우아한 자세요 세련된 용모요 하는 자네 말이 그렇게 틀린말은 아닐세.》

《그럼 한잔 하면서 자식의 독자성과 자립성은

학문의 자유에서부터 시작된다는데 대하여 가르쳐주지.》

두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소리내어 웃었다.

이윽고 두사람은 성의껏 차린 음식상앞에 마주 앉았다. 정옥이 술을 부었다. 허주성이 정옥의 대학입학을 축하해주었다.

《학철이, 정옥일 부디 자동화공학자로 키우겠다 먼 한가지 약속할게 있네.》

《?!》

《이제부터 정옥이의 <양육권>을 나에게 넘겨야 한다는 그걸세.》

《뭐?! 허허... 심각한 론린데...》

《아니, 아버지로서는 외동딸을 진짜 공학자로 키우기는 힘드네. 너무두 힘들구 생소한 길이야.

내가 정옥일 어디에 데려가든 또 끼니를 굶게 하거나 잠을 못자게 하든, 필요하다면 매도 들수 있다는걸 자네는 알아야 하네.》

허주성은 진심으로 말했다. 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었다.

《허허... 자네야말로 입학통지서 하루내 내 딸을 빼앗아가는셈이구만.》

《돌려줄 시한부를 약속할수 있네.》

《언제?!》

《박사가 된 다음에.》

《정신나간 소리!》

아버지는 소리쳤다.

《너무 오래네!》

《좋네. 그럼 학사가 된 다음에.》

《동의하지. 대신 툭툭히 키워내지 못하면 <순해배상>을 툭툭히 받겠네.》

두 친구는 마주 보며 웃었다.

《무엇으로 받겠나?》

《절교하는걸루!》

그러면서도 아버지는 허주성의 손에 자기 손을 덧 놓고는 꼭 잡아주었다. 두친구는 기쁘게 술잔을 들었고 정옥의 대학입학을 축하하여 노래까지 불렀다.

꽃이 피는 봄이면 꽃이 그리워

단풍나무 한그루 하소연하네

봄이여 봄이여 내 잎새에도

한떨기 꽃을 피게 해주렴

...

허주성강좌장이 자기가 제일로 사랑하는 이 노래를 불렀고 아버지가 따라했으며 정옥이 기타 반주를 했다. 그 노래뒤끝에 허주성강좌장은 주머니에서 까만 빛이 도는 자르르한 씨앗들을 꺼내 들었다.

《인삼포자들일세.》

《?!》

《사실 이진 비웃을지 모를 이야긴데... 상징주의 자라구 말이야. 언젠가 내가 대성산에 올라갔다가 산삼을 켜다구 벼적 떠드는 사람을 만나지 않았겠나? 나이가 좀 지숙한 사람인데 너무 좋아하니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 사람이 켜다는 산삼을 구

경했어. 대성산에서 산삼을 켜다는게 얼마나 희한한 일인가? 모양은 꼭 산삼모양인데... 사람들은 저게 정말 산삼일가 하구 웅성웅성했네.》

아버지와 정옥은 어느사이에 허주성의 그 이야기에 끌려들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산에서 켜으니 산삼이라고 기뻐하면서 갔어. 그때 그 사람뒤에 서있던 약초 분야에 조예가 있는듯한 한사람이 말하더군.

저건 분명 인삼인데 아마 특이한 곡절루 여기 대성산에서 자라게 된 모양이라구. 그런걸 저 사람은 산삼으로 알고 기뻐하는거라구 하더군.

하지만 저렇게 산삼을 켜었다구 기뻐하는 마음이 진짜로 산삼을 쓰는것처럼 보약이 되기때문에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구 하지 않겠나. 그다음부터는 우스운 일이지만 나도 이따금 대성산에 올라가는 기회가 생기면 풀숲에서 그런 산삼을 찾게 되거든.》 세사람은 다같이 웃었다.

《난 사람들이 산삼을 켜었다는 그 거의 동화적이기까지 한 기쁨이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서 계속 있었으면 하네. 그래서 난 우리집에도 그렇구 내가 제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두 인삼을 한번 가꿔보라구 권고하군 하네. 그렇게 해서 대성산같은데 옮겨심어놓으라구 말이네. 그게 진짜 수십년 후에는 산삼이 될지도 모르고 또 산삼을 켜었다구 기뻐하는 사람들이 생길게 아닌가.》

강좌장은 웃었지만 아버지와 정옥은 웃지 못했다.

《그리구 우리 지식인들에게 흔히 생기는 그 생활에 대한 방심, 자기학문밖에 모르는 그 독선적이고 일면적인 생활관을 깨뜨리기 위해서두 화분 몇개쯤은 가꾸어야 한다구 생각하네. 난 정옥이에게두 이 인삼을 가꿔보라구 권고하고싶다. 아니, 교육자로서 첫 과제를 주는것이라구 생각해두 무방하지.》

그렇게 되어 정옥의 집에 저 인삼화분이 생겨났다. 한생을 그렇게 남을 위하여 살아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허주성강좌장이었다.

그는 교육년한 30여년이 훨씬 지나도록 자기의 박사론문을 쓸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학계에 있는 허주성선생님의 여러 제자들이 그가 새로 개척한 컴퓨터조종분야의 어느한 과목교재를 박사론문으로 제출했던것이었다.

새 과목의 개척은 하나의 발명이나 발견처럼 피타는 탐구와 뼈아픈 노력을 동반해야 하는법이다. 그것이 최신과학기술을 상대로 하는 과목일때에 그는 과학자로서의 고충과 교육자로서의 진통을 동시에 체휼해야 하는것이다. 그리하여 허주성강좌장선생님은 반대했지만 그가 수년세월 노력하여 완성한 컴퓨터조종분야의 새과목교과서는 제자들의 응당한 지지속에 박사론문으로 제출된 것이었다. 그것을 다름아닌 아버지가 심의하게 된다.

그 기쁨과 그 추억속에서 정옥은 아버지와 함께 연약하고 외롭지만 푸르게 자라는 인삼화분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아버지, 난 강좌장선생님이 조국을 떠나기전에

박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해요.

한생 남을 위해 <산삼>을 심은 강좌장선생님이 이제는 자기의 <산삼>을 캐야 한다고 말이에요.

아버지! 내 생각이 무리한건 아니지요.》

정옥은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그 시선을 피하며 책상위에 놓인 친구와 딸, 스승과 제자의 논문들을 내려다보았다.

《네 학사논문은 보지 않아도 될거라구 생각한다. 너를 키운 강좌장선생의 심혈이 비긴 논문이니... 오늘심에서 이 박사논문이 통과된다면 그건 곧 네 학사논문의 통과로도 되겠지.》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딸의 소원과 의문이 엉킨 눈길을 피하듯 창문쪽으로 걸어가다.

새벽의 운무속에 벌써 일과를 시작하는 궤도전차의 활기로운 동음이 울려왔다.

《아버지?!》

《나는 오늘 나자신과 한번 싸워보겠다.》

《?!》

...

불을 켜지 않은 빈 방의 고즈넉한 정적속에서 자꾸만 머리를 쳐드는 불안감을 털어버리듯 정옥은 도리머리를 저었다.

(아니야! 강좌장선생님의 박사논문이... 그 논문이 부결되리라고 생각하기조차 죄스러운 생각이야.)

정옥은 마음속으로 고집스럽게 되뇌었다.

아버지가 어떻게 그런분의 가슴에 아픈 자옥을 넣을 집단말인가? 눈물이 뿔 어릴것만 같은 걱정속에 오늘 아침에 본 강좌장선생님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허주성강좌장은 칠판에 마지크를 꼭 댄채 까딱 않고 굳어져있었다. 조종대상의 8방정식을 써나가다 무춤하고 굳어진 그 마지크에서 푸른색액이 흘러나와 매끈한 칠판에 눈물인양 서서히 흘러내렸다. 학생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앉아움직이지 못했다.

그들은 지금 등을 돌리고선 강좌장선생님의 그 꼭다문 입술우로 흥건히 내배는 땀기며 깊숙이 패여쳐흠뻑흠뻑 떠는 주름살들을 툭툭히 보고 있다.

그들은 얼마전 강좌장선생님이 난치의 병마로 더는 교단에 설수 없는 몸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바로그 한사람의 귀중한 교육자를 위해 우리당이 수만금을 들여 외국의 어느한 병원에 그 치료를 위탁했다는것도 알고 있었다.

해당기관에서는 지금 강좌장선생님에게 하루빨리 치료를 떠날것을 요구하고있다. 치료를 예약한 병원측에서도 교환병력서의 상래를 보아 치료를 조속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허주성강좌장은 그 출발날자를 자꾸만 뒤로 미루고있었다. 그들, 다름아닌 정옥의 졸업반학생들을 위하여 인간으로서 낼수있는 마지막 힘을 다 짜내고 있는 강좌장선생님이였다.

그들의 학급은 졸업을 앞두고 모두가 학사학위를 쟁취할것을 결의하였다. 그것은 그들의 대학에서 조국에 드리는 첫 학사학급으로 될것이다.

그것으로 하여 허주성강좌장은 학생들의 학사론문을 다 완성시키고야 병치료를 떠날것을 결심한것이였다.바로처럼게 굳어진모습이인간으로서이겨낼수있는육체적고통의그마지막계선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이였다.

학생들은 모두가 눈물을 머금고 입술을 깨물면서 숨소리없이 앉아있었다. 그것은 강좌장선생님이 요구한 강의자세이기도 했다.

잠시후 강좌장선생님은 또다시 아무일도 없는듯 설명을 해나갔다.

정옥은 눈물겨운 생각으로 목이 꼭 메였으나 온몸이 귀가 된듯한 심정으로 선생님의 매마디마디를 새겨가고 있었다.

문득 그의 옆에 네모반듯하게 접은 하얀종이쪽지가 와닿았다. 돌아보니 차호남이 읽어보라고 눈짓으로 종이쪽지를 가리켜보인다.

정옥은 쪽지를 펼쳤다.

《정옥동무, 강좌장선생님에게 더운 물을 드렸으면 해. 우리 교실 내 가방속에 보온병이 있어.》

정옥은 호남을 바라보았다. 로동생활경력을 가진 그는 정옥의 학급에서 그중 나이 많은 측에 속한다.

많은 사람들의 호감을 자아내는 그 시원시원한 얼굴이 어서 그렇게 하라고 조용히 웃으며 눈짓을 해보인다. 언제나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생각을 먼저 해낼줄 알며 바로 자기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고 또 자부하고 있는 그런 온화하고도 자신만만한 얼굴이였다.

그를 두고 학급동무들은 《헌재완료시침》이라고 불렀다. 그들이 늘 가까이 대하는 외국어의 시침변화중의 하나를 따서 그에게 붙인 이 별호에는 호남의 남다른 성격이 잘 표현되어 있다고 정옥은 생각했다. 바로 그러한 그가 지금 힘겨워하는 강좌장선생님에게 더운 물을 떠다드릴것을 요구하고 있는것이였다.

왜 이 자리에서 오직 그만이 이런 웅당하고도 필요한 생각을 해낸것인지 몰랐다.

알지 못할 수치감까지 느끼며 정옥은 조용히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다.

그 순간 그는 자기를 얼핏 스쳐 지나가는 강좌장선생님의 눈길을 보았고 왜서인지 흠뻑 놀라며 굳어졌다.

그는 누구보다도 강좌장선생님을 잘 안다.

허주성강좌장은 강의 시간에 반복해 불러주는 법을 몰랐다. 반복해 불러줄것을 요구하는 학생도 좋아하지 않았다. 대학생들은 강의시간에 정신을 바늘끝같이 집중하고 있어야 한다는것이 그의 주장이였다.

《13개 이상의 단어로 된 문장을 귀로 들었을 때에는 그 의미를 포착하기가 힘듭니다. 또 어떤 말을 사이를 두지 않고 몇초이상 계속해도 역시 그 리해의 실마리가 끊어집니다.

나는 이 모든것을 고려하여 설명할것입니다.

강의시간의 고도의 집중력! 나는 이것을 대학생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믿습니다.》

학생들에게 늘 이렇게 말해오던 강좌장선생님

이었다. 바로 그러한 강좌장선생님의 눈길을 보는 순간 정옥은 또다시 그러한 엄한 요구성을 본 것만 같아 가슴이 뜨끔해났다.

그는 굳어진 채 움직이지 못했다. 뒤에서 조금 해하는 듯한 호남의 소곤거리는 재촉이 날아왔다. 그러나 정옥은 선뜻 움직이지 못했다.

모진 병마와 싸우며 강의를 해나가는 지금에도 넥타이매듭 하나 늦추지 않고 몸자세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으려 애쓰는 강좌장선생님앞에 죄를 짓는 것만 같았다. 그는 돌아보지 않은 채 조용히 머리를 흔들며 보았다.

뒤쪽에서 질책하는 듯한 한숨소리가 들려왔다.

호남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있는 힘껏 꼬부리더니 강의실을 빠져나갔다.

한껏 조용하고도 민첩한 그 동작에 정옥과 몇 사람을 내놓고는 누구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윽고 그는 더운 김이 물물 솟아오르는 물고뿌를 들고 들어왔다. 그는 죄송스러운 듯 고개를 수긋한 채 그 물고뿌를 교탁우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순간 교실은 물을 뿌린 듯 조용해졌다. 학생들 모두가 긴장해져 강좌장선생님과 모락모락 김이 오르고있는 물고뿌 그리고 들어가야 할지 아니면 서서 꾸중을 기다려야 할지 몰라 주먹거리는 호남을 지켜보았다.

첫 순간 허주성강좌장은 당황해진 듯 싶었다.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는 듯 그 물고뿌만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몸시도 힘겨운 듯 저도 모르게 터갈라진 입술을 감쌀았다.

이윽고 그의 얼굴에 거의 부끄러움을 타는 어린애의 표정과 류사한 홍조가 떠올더니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고맙소!》

학생들은 마음속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다행스럽고 고맙기까지 한 마음으로 더운 물잔에 손을 가져가는 강좌장선생님을 지켜보았다. 많은 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해낸 차호남에게 미소를 보냈다.

그가 아니라면 누구도 강좌장선생님의 강의시간에 그런 용단을 내리지 못했을 것이었다. 역시 그는 나무랄데 없는 《현재완료》였다.

다만 정옥만이 고통으로 빠근해오는 가슴으로 그 강좌장선생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미안합니다. 선생님!)

정옥은 조용히 되뇌었다. 그는 다음 시간부터 자기가 꼭 약차를 만들어 선생님의 교탁우에 올려 놓으리라 마음다졌다.

그러나 선생님이 그것을 받아주겠는지 자신이 생기지 않았다. 필경 다음부터는 엄하게 만류할 것이며 또 올려놓는다고 해도 거기에 눈길 한번 보내지 않을 것이다. 결국 몸부림하듯 강의를 해나가고 있는 강좌장선생님앞에 제자로서의 성의와 도리를 표시할 수 있었던 기회는 오늘의 이 자리 한 번뿐이었던지도 모른다.

오직 호남만이 그것을 느꼈고 실행한 것이다.

그의 마음을 아는 듯 모르는 듯 강좌장선생님은

강의를 계속해나간다. 교탁의 물잔에서 더운 김이 모락모락 솟아오르고 있었다...

문득 방안에 불이 켜졌다. 아버지가 들어선 것이었다. 정옥은 그제야 자기가 눈물이 그렁해진 채 앉아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급히 눈곱을 훔치며 일어섰다.

당황함과 부끄러움에 그의 얼굴은 붉어졌다.

아버지는 그런 딸을 저르기 놀란 시선으로 지켜보았다.

《왜 그러느냐 정옥아?》

《아버지!》

정옥은 부끄러움과 그리고 기대가 엉킨 눈빛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더듬었다. 그러는 딸의 마음을 알아차린 듯 아버지의 얼굴에 한줄기 미소가 흘러갔다.

《정옥아, 강좌장선생의 박사논문은... 통과되었다.》

《예?!》

오래도록 기다렸고 또 그토록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정옥은 그 대답의 충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흠칫 놀라기까지 했다. 아버지의 얼굴을 꼼꼼히 살피고 그 모든 것을 확인하자 정옥은 왜서인지 또다시 불쑥 눈물이 솟구쳤다. 정옥은 손끝으로 눈곱에 고여오르는 눈물방울을 훔쳤다.

《왜 우느냐? 기쁜 소식인데...》

《그저요. 왜 그런지 몰고파요. 선생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정옥은 또다시 눈곱을 찍어냈다. 아버지는 그런 딸의 어깨를 말없이 두드려주고는 자기 방으로 갔다.

잠시후 아버지방에 들어서던 정옥은 옆에 낀 가방을 놓을 념도 못한 채 우두커니 서있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 아버지의 시선은 창턱우에 놓여있는 인삼화분에 가닿아 있었다.

무엇인가 해소할 길이 없고 또 쉽게 터놓지도 못할 그 어떤 피로운 상념에 시달리는 듯한 모습이였다. 그 순간 정옥은 강좌장선생님의 박사논문이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도 아직은 자기 가슴속에서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불안과 위구를 강그리 몰아내지 못했다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

정옥은 조심히 불렀다. 여전히 그 화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아버지는 걱정 말라는 듯 고개를 끄덕여보였다.

《아버지, 무슨일이 있었나요? 아버지의 얼굴색이... 난 아침부터 불안했어요.》

아버지는 깊은 상념에서 깨어난 듯 몸을 움쭉였다.

《정옥아! 왜 그런지 저런 인삼을 산삼으로 알고 기뻐서 캐갔다는 그 사람의 일이 생각나는구나. 그는 그것이 산삼인 줄 알고 정말 무한히 기뻐올제다. 하지만 그건 분명 산삼이 아니라 인삼이었다.》

《?!》

《정옥아, 너한테 할 말이 있다. 거기 좀 앉아라.》

정옥은 까닭모를 두려움에 몸을 떨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버지는 말없이 담배를 피워물었다.

파르스름한 연기가 그들사이에서 그물거렸다.

이윽고 아버지는 딸의 학사론문을 집어들었다.

《생산공정의 컴퓨터조종체구성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라고 쓴 결표제를 이윽도록 들여다본다.

《아침에 내가 말했지. 강좌장선생의 박사론문이 통과된다면 그것이 곧 너의 이 학사론문에 대한 인정으로 될거라구. 그래! 난 강좌장선생의 박사론문을 손들어 찬성했다. 하지만 난... 난 그것때문에 이 마음이 괴롭구나.》

정옥은 흠칫했다.

무엇인가 예감을 지나 어느덧 현실로 다가오는 엄청난 불행을 보는듯 했다. 그것은 파르스름하게 피어오르는 담배연기처럼 그를 휩싸안으며 점점 다가오는 무형의 압박이고 두려움이였다.

아버지는 자기를 지켜보는 딸의 시선을 마주보더니 결심한듯 한결 빠르고 정확하게 말을 이었다.

《강좌장선생이 교과서에 집필한 컴퓨터조종체제는 한마디로 <교>체계에 관한거다. 결국 네 학사론문도 바로 그 <교>체계에서 출발한것이구... 물론 컴퓨터가 출현한 다음부터 수십여년간 세계는 <교>체계를 공인된 체계로 일러왔고 리용해왔다. 하지만 지금 세계에선 컴퓨터기술부분에서 <교>체계로부터 <기>체계로 방향을 전환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땅을 꾸리려는 시도들이 뚜렷해지고 있다.》

순간 정옥은 흠칫 놀랐다. 강좌장선생님에게 닥친 무서운것을 분명 보았고 그래서 무턱대고 강좌장선생님을 지키고 싶은 조급한 열망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그것이 아직 학계에 공인된거야 아니지 않나요. 추상이거나 가설 혹은 부분적인 시도 단계들일수도 있지 않아요. 그 가설이나 시도들이 실용화되자면 아직은 많은 시간이 필요할거라고 난 생각해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옳다. 아직은 그것이 과학계에서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적인 시도들이다. 진통도 있고...》

아버지는 《기》체계로의 방향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어느 한 나라의 과학단위와 여러회사들의 실례를 들었다.

《<교>체계는 컴퓨터가 선택되면 그 컴퓨터에 맞는 프로그램밖에 리용할수 없다. 그러나 서로 다른 종류의 컴퓨터와 프로그램을 마음대로 선택하여 쓸수 있게 되어있는 리용자위주의 <기>체계는 많은 우점이 있다. <기>체계에 따라 여러대의 컴퓨터로 분산컴퓨터망을 꾸리면 전체 컴퓨터들을 하나의 컴퓨터처럼 관리운영할수 있고 컴퓨터들의 모든 자원을 공동으로 리용하게 된다.》

우린 이 점을 중시해야 한다. 다 개발되고 공인된 다음에 따라가자면 우린 또다시 몇년을 뒤떨어진다.》

아버지와 딸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불안하고도

조급하며 사연깊은 침묵이였다. 그 침묵을 먼저 깨것은 아버지였다.

《오늘의 과학은 <빛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온갖 가상과 예언이 현실로 되는 시대다. 여담 같지만 한마디 하자. 20세기의 첫 문어구에 들어서던 1901년 1월초 어느 한 나라 신문에는 20세기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에 의하여 일어나게 될 사회생활의 23가지문제에 대한 변모를 예언한 기사가 실린적이 있었다. 이 신문을 읽은 사람들은 놀랐다. 과연 그것이 실현될가 하고 의문을 품었다. 그런데 1981년 어느 한 나라 잡지에는 1901년에 예언한 23가지 문제들이 80년이 지난후 어떻게 실현되었는가를 비교론평한 논문이 실렸다.》

놀랍게도 20세기말도 아닌 1980년대에 벌써 이 예언들이 현실로 되었을뿐 아니라 적지않은 예언들은 그보다 훨씬 앞섰다는것이다. 너도 알겠지만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시대마다 다르다. 사진의 단순한 원리가 실제로 쓰이게 될 때까지는 100여년이 걸렸지만 집적회로가 실제로 쓰이게 될 때까지는 고작 몇년이 걸렸다. 이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자기자신을 속이는 짓을 할수 있겠니?》

아버지의 손끝에서 하얀 재가 구뭇하니 매달린 담배대가 시름겹게 연기를 피워올렸다.

그 손끝이 가볍게 떨리더니 담배재가 흐트러져 땅바닥에 떨어졌다. 무엇인가 다시는 돌이킬수 없는 처절한 모습을 상기하게 하는 광경이였다.

아버지와 딸은 거기에 그 어떤 커다란 의미나 깃들어있기라도 한듯 오래도록 그것을 내려다보았다. 아버지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정옥아, 지금 일부 대학졸업생들을 보면 도무지 대학공부를 한 젊은이들 같지 않아서 안타까울 때가 드문하구나.》

사회에 나와서는 다시 배워서 시작하는 형편이니... 대학에서 배워주는 학문의 높이에 도달했다는 그 만족감과 스승들에 대한 맹목적인 존경, 과학은 시간이 다르게 계속 전진하는데 일부 우리 대학들에선 이런 만족의 시간들이 아직도 흘러가고 있으니...》

아버지는 말을 더듬었다. 항변할길 없는 사실앞에 정옥의 가슴은 타들었다.

《물론 나도 인정과 도의에 못이겨 원칙에 양보했다. 무서운 병마와 싸우며 조국을 멀리 떠나있을 사람이라는 생각에... 그의 인생도 황혼기라는 생각에... 그 박사론문을 통과시켰지.》

난 아마 죽을 때까지 이것때문에 괴로움에 시달리게 될게다. 하지만 너만은... 대학생인 너만은 그러지 말거라. 고정불변한 담보로 받은 백개의 성공보다는 새 발자국을 내짚다 받은 한개의 실책이 더 귀중하다는걸 명심해라.》

그게 바로 전진이야. 그러자면 스승의 그 지식만으로 만족해선 안된다. 한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야 한다. 그런 전진의 시간이 매 대학생들에 의해서 한시간, 두시간 하다못해 5분, 10분씩이라도 당겨진다면 그만큼 조국이 전진하게 된다.》

아버지는 엄해보이는 시선으로 딸을 지켜보았

다. 정옥은 두려운 생각으로 몸을 떨었다.
 《아버진… 저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더듬거리듯 정옥은 물었다.
 이제 더는 그것을 명백히 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것만 같은 정옥이었다.
 아버지는 잠시 침묵했다. 이윽고 한마디 한마디를 음미하듯 천천히 말했다.
 《이 학사론문을 포기해라!》
 《예?!》
 정옥은 소스라쳤다.
 《물론 강좌장선생님이 알면… 그는 피로워 할 거다. 과학자로서, 교육자로서 그는 너무도 많은 것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별이 총총한 창밖에 오래도록 눈을 주었다.
 《태일 닢 우리 연구소에서 <Γ>체계에 대한 연구토론이 있다. <Γ>체계를 도입하려고 애쓰는 과학단위와 생산단위의 연구사, 기술자들의 발표회가 진행된다. 과학기술통보사에서 보내준 록화자료들도 방영된다. 네가 여기에 꼭 참가하거라. 꼭!》
 아버지는 마지막말에 힘을 주었다.
 《하지만… 강좌장선생님에겐… 알리지 말거라. 원칙상 알려야겠지만… 난 용기가 나지 않는구나. 하지만 너만은… 믿겠다.》
 아버지는 다시금 그 인삼화분에 눈을 주었다.
 정옥도 그 화분을 바라보았다.
 아래층에서 아까부터 울리던 피아노소리가 주변이 고요해지자 더 뚜렷하고 더 열정적으로 울려왔다. 놀랍게도 그 선율은 허주성강좌장이 즐겨 부르는 《단풍은 붉게 타네》의 선율이였다…
 바로 그것으로 하여 정옥의 번민은 시작되었다.
 다음날 아침 무서운 병마와 싸우며 제자들의 논문완성에 필요한 강의를 해주는 강좌장선생님의 모습을 보며 정옥은 무서운 고민과 방황을 느꼈다. 정옥은 보지도 듣지도 못한채 앉아있었다.
 문득 강좌장선생님의 목소리가 귀에 들려왔다.
 《정옥동무, 이 조종××××의 기본정수계산방법을 설명해보시오.》
 정옥은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어느새 강좌장선생님은 정옥의 학사론문의 기초로 되는 부분을 강의하고 있었던것이였다.
 어망결에 일어나기는 했으나 당황함과 부끄러움으로 정옥은 아무것도 가려볼수 없었고 대답할수 없었다. 정옥은 얼굴을 붉히며 서있었다.
 허주성강좌장의 얼굴에 노여운 빛이 스쳐지나갔다.
 강좌장선생님이 제일로 좋아하는 제자의 이러한 실책은 본인보다도 학급동무들을 더 당황하게 만들었다. 문제의 정수를 알려주는 속삭임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려왔다.
 그중에서도 차호남의 목소리가 더욱 뚜렷하게 들려왔다. 그는 일어난 정옥의 뒤에서 강좌장선생님의 눈에 띄지 않도록 주의하며 책으로 메가폰을 만들어 속삭이고 있는것이였다. 하여 정옥은

자기가 대답하여야 할 문제의 본질을 인차 알아차렸다. 그러나 그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대답할 요점을 알려주는 호남의 목소리는 더욱 뚜렷해졌으나 정옥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앉으시오.》
 저으기 서운해하는 목소리였다. 정옥은 숨막힐듯 한 수치와 죄스러움을 안고 자리에 앉았다.
 …
 오후 자체학습시간에 호남은 정옥을 조용히 불러냈다.
 《어떻게 된거요. 정옥동무? 동무가 대답 못할 정도의 문제가 아닌데… 내가 귀뜸해주던 말을 못들었소?》
 《들었어요.》
 정옥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
 《난 강의시간에 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닌보살하구…》
 《정옥동무! 우리 때문에 그렇게 애쓰는 강좌장선생님의 마음을 다름 아닌 동무가 섭섭하게 해드려서야 되겠소. 그런 때에야 어떻게 해서든 대답하구 봐야지. 그렇게 매 순간순간을 완성하구 나가야 자기자신에게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훌륭한 결실을 줄수 있지 않을까?》
 《현재완료시칭》이라는 그 별호가 다시금 생각났다. 아마도 호남은 이러한 노력으로 모두에게 호감을 주는 나무랄데 없는 인간으로 사는것인지 모른다. 자기 과목에 대한 궁지가 남다른 과목교원의 학과논문초고를 제출할 때에는 그 논문마감에 자기가 논문초고를 완성한 시간을 새벽 몇시 몇분이라고 꼭 적어놓는것을 잊지 않는 호남이였다.
 정옥은 그의 그러한 성격이 부럽기도 했다.
 《그런데 딴 생각이라는건 뭐요? 강의 시간엔 대포알이 터쳐두 모른다던 동무가 아니요.》
 호남은 인상좋은 미소를 침투하며 물었다.
 정옥은 입술을 깨물며 말이 없었다.
 《허허… 내가 알아선 안될 일인 모양이지.》
 《아니예요.》
 정옥은 끝내 아버지와 자기사이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야 말았다. 그는 자기의 이야기를 듣는 호남의 얼굴이 평소의 그답지 않게 컴컴하게 질리는것을 알아보았다.
 《<Γ>체계란 말이지?! <Γ>체계!》
 호남은 한참후에야 다시금 침착한 표정과 몸자세를 되찾았다.
 《그래 동무생각은 어떻게?》
 정옥은 발끝을 내려다보며 대답을 못했다.
 《정옥동무, 물론 동무의 심정은 이해되오. 하지만 학급동무들을 대표해서 내가 부탁하오. 제발 그 <Γ>체계에 대한 연구토론이 있다는 연구소에 가지 마오. 그 생각을 잊어먹소. 응?! 될수록 빨리 그리고 철저히 잊어버려야 하오.》
 호남의 마지막말은 거의 위협적으로 울렸다.
 《동무가 논문을 포기하구 그 원인을 공개하면 동문 오늘날에 도덕적인 지탄을 당하게 될거요.》

《예?!》

《그렇소! 강좌장선생님의 가슴에 가장 큰 상처를 입히게 될거구… 또 동무는 우리 학급이 대학의 첫 학사학급으로 되어 졸업하는 영예를 빼앗을거요. 무엇때문에 자기자신을 그렇게까지 학대할 필요가 있겠소. 오늘날에 도덕적으로 지탄을 당하구… 대학생으로서 얻을수 있는 명예를 다 얻지 못하구… 동무 혼자만 후보학사로 졸업할게 아니요. 그래 이게 아름다운 일이요?

동무자신에게나 우리에게 그리고 강좌장선생님에게… 또 오늘에나 래일에나 아름다울수 있는 일인가 말이요? 잘 생각해 보요.》

정옥은 자기의 마음속을 그대로 들여다보며 읽는 듯한 호남의 말이 두려우면서도 고마웠다.

자기자신이 그렇게 반박할수 없는 논리앞에 어쩔수 없이 지고싶었다.

《호남동무. 고마워요! 사실 나도 피로워요. 이제 한시간후이면 연구소에서 토론회가 진행될텐데…》

《자기에게 충실하요. 정옥동무. 해주고싶은 말은 이거요. 강좌장선생님과 동무자신을 생각해서라도 <Γ>체계를 잊어버리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두… 웅?! 자, 그렇게 하지?》

호남은 긴장한 눈빛으로 정옥을 지켜보았다. 말없이 서있던 정옥은 힘들게 그러나 뚜렷하게 고개를 끄덕여보였다.

《고맙소! 야, 동문 정말 사람의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데 뭐가 있구만. 늦과일은 서리를 맞아야 달구 명예하구 사랑은 곡절을 겪어야 완성된다는 건가? 결국 삼단론법으로 따지면 사랑과 명예는 다 늦과일이다 이렇게 되누만. 하하…》

호남은 소리내어 웃었다.

《동무나 나나 다 늦과일인 모양이요.》

호남은 자기의 이 의미심장한 말에 스스로 즐거워진듯 했으나 정옥은 맥이 진한 사람모양으로 서있었다. 호남은 달래듯 입을 열었다.

《어쨌겠소. 자동화공학이란 그런 학문인걸. 항상 발전하지. 그래서 나만해도 이 자동화공학에 한생 종사할 용기도 능력도 없고 또 의사도 없소. 아마 날 어느 대학교원으로 배치할것같소. 그게 나한테 제일 합당할것 같애.》

정옥은 놀란듯 호남의 얼굴을 지켜보았다.

교원?! 정옥은 그 소스라치도록 두려운 의미를 아프게 곱씹었다.

《교원?!》

우리 동무들중에도 각 대학의 교원으로 일할 동무들이 있을것이다. 문득 아버지의 목소리가 귀전을 쳤다.

《파학은 시간이 다르게 계속 전진하는데 일부 우리 대학들에선 이런 <만족>의 시간들이 아직도 흘러가고 있으니…》

정옥은 숨이 가빠 올랐다. 바로 자기가 선 이 자리에서 그 구태의연한 시간이 다시금 이어지고 있다. 자기의 가슴속에서 슬며시 눈을 뜨고 자기를 똑바로 지켜 보는듯한 엄한 눈길.

그것은 아버지의 눈빛 같기도 하고 어디선가

많이 보아왔던 낯익은 사람의 눈빛 같기도 했다. 지어는 놀랍게도 그것이 허주성강좌장의 눈빛 같기도 했다.

그것은 지나온 나날들에 그에게 아름다운것, 옳은것을 가르치던 사람들의 눈빛이었고 그것으로 하여 눈을 뜬 자기 자신의 량심의 눈이었다.

바로 그런 눈으로 정옥은 호남의 얼굴을 처음이라도 보는듯 바라보았다. 언젠가 허주성강좌장이 하던 말이 류다른 의미를 띠고 안겨왔다.

《그 동무에 대해선 나도 참 종잡기가 어렵소.

제일 힘든 과목시험을 앞두고는 강좌사무실 지어는 우리 집까지 찾아와 모를 문제들을 묻곤하는데… 아마 열번두 더 찾아올거요. 공부를 참 직심스럽게 하는 동무로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어떤 때는 시험성적이 생각했던것보다 썩 떨어지거든. 하지만 찾아와서 물어보던 그 성의를 생각하면 생각을 달리하게 된단 말이요.》

정옥은 모두에게 호감을 주던 그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그는 분명 훌륭한것, 아름다운것을 느낄줄 아는 인간이다. 그러나 그는 그 훌륭한것, 아름다운것을 저 하나만을 위한 리기적이고 타산적인 생활로 이어 가고있다. 그저 오늘 하루하루를 편하고 무난하게 넘기려는 그 《노력》, 그 《현재완료》.

하다면 나는 지금 그와는 무엇이 다르며 그와 나자신이 학급동무들마저 끌고 어디로 가려하고 있는것인가? 모르고서는 어쩔수 없다고 할테지만 알고서야 어떻게 자기자신과 동무들과 그리고 가장 힘에 겨웠던 《고난의 행군》의 나날 절절한 소원과 사랑으로 우릴 키운 조국을 기만할수 있랴?

정옥의 숨결이 흐느낌마냥 떨렸다. 눈물이 쏟아질듯 한 얼굴로 그는 속삭였다.

《호남동무. 우리가… 우리가 지금… 옳은결가요?》

《뭐?!》

정옥은 그 대답이 씩여져 있기라도 한듯 운동장 한쪽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러자 그 순간 호남에대한 불신의 감정을 지나 다음아닌 자기자신에 대한 의혹과 렬등감이 못견디게 솟구쳐올랐다. 자기가 그동안 무엇을 배웠으며 무엇을 할수 있는지조차 알수없고 따라서 그 어떤 자그마한 용기도 내지 못할듯 싶은 무력감이 그의 온몸을 칭칭 엮어맸다. 그는 반발하듯, 모지름쓰듯 머리를 흔들었다.

《아니예요! 못하겠어요. 난 정말 못하겠어요.》

몸부림하듯 하는 정옥의 그 모습에 호남의 얼굴은 굳어졌다.

《모르고서는 어떻게 몰라도 알고는 그렇게 못하겠단 말이예요.》

정옥의 눈가에 눈물까지 펴 서려돌았다.

《우린 조국이 가장 어렵던 때 대학공부를 했어요. 수많은 공장의 불빛은 꺼졌었지만 우리 대학들의 강의실불빛만은 꺼지지 않았어요. 몇개의 공장은 돌렸을지도 모를 그 귀한 자금이… 굶어서 쓰러진 사람들의 생으로 이어졌을지 모를 목숨갈

은 식량이 우리들에게 돌려졌어요. 매일에 앞서기 위해서! 매일에 잘 살기 위해서!

조국의 이 진정을 단 한순간이라도 깨닫고 단 몇분이라도 조국의 과학을 앞으로 떠민 시간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해야 할게 아니예요.》

그는 이미 호남에게가 아니라 자기자신에게 말하고 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호남이 아니라 주저하고 망설이는 연약하고 무기력한 한 처녀대학생이 서있었다.

《뒤떨어졌다는걸 아는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의문과 불만족이 없는 고정불변한 대학시간, 전진이 없는 대학시간은 천시간이 흘러갔다고 해도 무의미한거예요. 우린 대학졸업이라는 그 인생의 출발시간을 과거가 아니라 오늘, 아니 미래의 과학에 맞추어야 해요. 이것이 우리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의 시간표구 의지예요.》

호남은 얼굴이 컴컴해진채 말없이 서있었다.

오랜 시간이 흘러서야 짜내듯이 물었다.

《그럼... 어쨌예요? 강좌장선생님이...》

그는 스스로도 자기의 이 말이 김이 빠져 버렸음을 느꼈는지 의미없이 한손을 쳐들었다가 맥없이 내리워버렸다.

《그럼 마음대로 하오. 난 해줄 말은 다 해주었소.》

정옥은 목이 타드는듯한 안타까움속에 오래도록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호남동무, 전... 론문을 포기하겠어요.》

그 순간 호남은 흠칫 놀랐다.

《강좌장선생님에겐...》

그는 오래동안 바재였다.

《새로운 내용으로 더 완성하기 위해서라고만 말하겠어요. 하지만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연구토론회에는 이제 가겠어요. 이제 40분후이면...》

문득 다급한 발자욱소리가 들려왔다. 학습의 나이 어린 한 녀동무가 얼굴빛이 까맣게 질려 뛰어온다.

《강좌장선생님이...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순간 정옥과 호남은 흠칫 하며 굳어졌다.

《어디서?》

《저기 컴퓨터실습실에서...컴퓨터를 다루다가...》

《그럼 빨리 진료소로 가오. 빨리!》

정옥과 호남은 컴퓨터실습실로 달려갔다.

허주성강좌장은 실습실의 안락결상에 정신을 잃고 누워있었다. 영문을 알수 없는 도형들이 펼쳐진 컴퓨터의 화면에서 야릇한 형광빛이 쏟아져나와 그의 수척한 얼굴을 모질게도 부각시키고있었다.

《강좌장선생님의 주머니에 비상약이 있을수 있소. 좀 찾아보오.》

차호남의 목소리가 침착하게 울렸다. 몇학생이 강좌장선생님의 주머니를 더듬었다. 몇봉지의 각이한 약들과 함께 언제 넣은것인지 모를 시들시들한 굴 반쪽이 나졌다.

아마도 식사조차 못하는 강좌장선생님에게 안해나 자식들이 넣어준 굴일것이다. 그러나 그것조

차 편히 넘길수 없어 저렇게 주머니속에서 시들고 있는것이다.

정옥은 그 시들어가는 굴조각을 외면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 굴조각은 모질게도 눈을 잡아끌었다.

고통인지 공포인지 알수없는 감정으로 숨이 차오르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 순간 건반을 누르자 컴퓨터의 화면에서 알길없는 도형들은 사라져 버리고 경쾌한 화면음악이 쏟아져나오기 시작했다.

호남이 그쪽에 대고 언짢은 눈길을 보냈다.

그러나 컴퓨터를 정지시키려던 학습동무도 그리고 호남과 정옥도 그 순간 모두 굳어지고 말았다. 화면에 현시된것은 정옥의 학습동무들이 강좌장선생님이 이따금 피곤을 풀라고 마련한 다매체프로그람 《노래하는 선생님》이었다.

그것은 어느 한 성악배우가 출연하는 화면에서 그 배우의 얼굴을 강좌장선생님의 얼굴로 바꾸어놓은것이였다.

단풍이 붉게 타는 맑은 시내가에서 강좌장선생님은 불타는 단풍잎을 주어든다. 생의 무한한 의미를 더듬는듯한 그 숙연한 얼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은근히 울려나오는 서정가요... 그 성량이 풍부하고 아름다운 목소리...

꽃이 피는 봄이면 꽃이 그리워

단풍나무 한그루 하소연하네...

...

생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애착으로 충만된 그 젊고(학생들은 강좌장선생님의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선택했다) 행복해 보이는 얼굴, 단풍이 불타는 아름다운 산을 배경으로 커다랗게 다가오며 절절한 소원을 담아 노래 부른다.

온갖 열매 주렁진 가을이 오면

단풍나무 설레네 더욱 간절히

가을아 가을아 내 아지에도

향기론 열매 맺게 해주렴

...

선생님의 두리에 하나 둘 날아내리는 붉은 단풍잎, 그 단풍잎들속에는 선생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새겨져있었다.

그 사랑하는 제자들, 그 작열하는 《단풍》속에 웃고 있는 선생님의 모습, 그 단풍속에는 다름아닌 정옥의 얼굴도 있었다. 정옥은 제발 컴퓨터를 꺼달라고 애원하고 싶었다. 자기가 더는 견딜것 같지 못했다. 그는 울고만 싶었다.

아! 인간이 이렇게도 피로울수 있단말인가?!

의사가 달려오고 승용차도 왔다.

《자, 빨리 병원으로.》

차호남이 강좌장선생님을 부축한채 열좌석에 앉으며 하는 말이였다.

정옥도 저도 모르게 승용차의 문고리를 잡았다.

강좌장선생님과 함께 병원에 갈 마음이였다.

그 순간 그는 차호남의 눈길과 부딪쳤다. 호남

의 얼굴에 반가운 기색이 확 피어올랐다.

《병원에 가겠소?!》

그 반가운 미소를 보는 순간 정옥은 굳어졌다. 그제야 이제 30분후에 시작될 그 연구토론회를 생각했던 것이었다.

정옥은 물론듯 호남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호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옥은 호남의 눈빛에서 이런 목소리를 분명히 들은 듯 했다.

《그래 어디로 가겠소? 병원이요 아니면 연구소요?》

정옥은 숨막힐 듯한 안타까움을 느꼈다. 호남은 그를 똑바로 지켜보았다.

두 눈빛의 대화는 계속되었다.

《지금껏 자기가 한 모든 말을 책임지요. 동문아가 훌륭하게 말했소.》

《호남동무, 하지만...》

《인간적으로 파멸되면서라도 꼭 가야 할 길이 라면 가요. 그러나 그 값은 너무도 비쌀거요.》

정옥은 고개를 떨구었다. 저도 모르게 스프르 승용차 문손잡이를 놓았다. 그것은 몇 초 지나마나 한 사이에 있는 일이었다.

그를 지켜보던 호남은 안에서 승용차문을 광하고 닫았다.

《동문 오늘을 후회하게 될거요. 언젠가는 자기가 떳떳하고 아름다울수도 있었었다고 후회하는 <과거>형이 될거요.》

정옥은 호남의 이런 목소리를 분명 들은 듯 했다. 승용차가 한줄기 가벼운 연기를 남기며 달려가 버렸다.

《아니, 선생님! 호남동무!》

정옥은 저도 모르게 승용차를 따라 몇 걸음 달렸다. 그러나 승용차는 벌써 저쪽에서 동체를 번쩍이며 속도를 높는다.

망연하여 서있던 정옥은 따거운 눈물이 핑하고 서려도는 눈길을 푸르른 하늘로 쳐들었다.

가없이 푸르른 하늘이 그를 굽어본다. 끝간데없이 펼쳐진 조국의 푸른 하늘이...

정옥은 그 하늘가에 자기의 고맙고 소중한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그려보았다. 오늘은 자기를 원망할지도 모를 그 모든 얼굴들이 그 조국의 하늘가에서는 환하게 웃는 듯 하였다.

그것은 바로 래일의 우리 조국의 푸른 하늘이었다. 지금보다 더 푸르고 오늘보다 더 넓어질 조국의 하늘

...

한줄기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그의 볼로 흘러내렸다.

(선생님! 용서하십시오. 연구토론회가 끝나면 꼭 선생님에게 가겠습니다. 선생님!)

×

연구토론회는 끝났다. 정옥은 격전을 치르고 난 듯이 온몸이 땀에 젖어 텅 빈방에 서있었다.

아직 꺼지지 않은 록화텔레비존의 대형화면에서 쏟아져 나온 푸른 빛이 그를 휩싸안고 있었다.

아버지가 다가왔다. 모든것을 다 알아차린듯 말없이 딸의 어깨를 힘주어 그러쥐었다 놓았다.

그리고 딸이 채 이해하지 못했거나 미처 적어놓지 못한 자료들을 보충해주고 그 이해와 연구에 도움이 될 자료들이 입력된 컴퓨터자기원관들을 안겨주었다.

그렇게 썩 오랜 시간이 흐른뒤 아버지와 딸은 방을 나서기 위해 돌아섰다. 그 순간 두사람은 다 같이 숨을 훑 들이키며 놀라 벗어섰다.

차호남의 부축을 받으며 문가에 들어서서는 허주성강좌장을 본 것이었다.

그 얼굴은 땀에 젖어있었다. 그러나 그토록 땀에 젖은 얼굴은 차거운 빛으로 질려있었다.

네사람의 각이한 눈빛들이 서로 오고가고 부딪치고 또 서로 피하고 따라가고 했다.

《흥, 그러니 이제 딸의 <양육권>을 도로 찾아간다 이거구만.》

노여움인지 비웃음인지 모를 강좌장의 야릇한 어조였다. 아버지는 눈에 띄게 허둥거렸다.

《그런데 정당하진 못하구만. 정옥이가 아직 학사는 못된것 같은데...》

여전한 어조, 여전한 얼굴빛이다.

《주성이!》

《그만두게!》

허주성강좌장은 조용히 부르짖었다.

《자네 이 허주성이가 한푼값도 못하는 산<인간>으로 남아있게 하려했어. 그 <인간>이 옛날에 영 놀고먹지 않았다는 표적으로 박사메달을 달아주려 했지. 그러니 이제 병을 고치고 와서 대학정문에 그 박사메달을 달고 지나간 시대를 조상하는 비석처럼이나 서있어야지. 그렇지?!》

자기를 가까스로 다잡는 모지름이 푹푹히 느껴지는 어조였다.

《문제를 너무 극단으로 몰아가지 말게.》

《그만두게.》

허주성강좌장은 낮으나 예리하게 부르짖었다.

《자네하고는 죽을 때까지 말 한마디 안하겠네.》

당장 내 박사논문들을 취소해. 난 그런걸 바라지 않아. 자네가 진짜 내 친구라면 이 허주성이가 뒤떨어질가봐 뺄을 쳐서라도 이런 장소에 불러야지. 인간 허주성의 감정따위가 다 뭐야. 응?! 조국의 교육과 과학이 왔다갔다 하는데... 자네두 이제 늙구 폐물이 되고 마는구나. 보기도 싫네. 내앞에서 당장 사라져.》

아버지는 눈을 꼭 내려감았다. 참을수 없는 고통에 몸부림치듯 아버지의 그 한오리 긴 눈썹이 흠칫흠칫 떨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정옥은 그 한오리의 긴 눈썹이 우로 한껏 쳐들려 자기의 친구를 고요히 더듬는것을 푹푹히 알아보았다.

그것은 분명 고통과 감동, 한없는 우애의 열렬한 호소였다. 아버지는 허주성강좌장의 어깨에 한손을 묵직하게 올려놓았다. 그러나 허주성강좌장은 그 손을 쌀쌀하게 내리워버렸다.

잠시 손을 내리드리우고 서있던 아버지는 천천히 방을 나갔다. 그 다음은 침묵, 정옥은 고개를

떨군채 서있었다. 자기에게 와닿는 강좌장선생님의 시선을 분명 느꼈다.

죄의식인지 부끄러움인지 모를 혼탁된 감정들이 온 몸을 쿡쿡 치받으며 지나자 그는 이 순간 자기가 앞뒤로 비칠비칠하는듯한 어지럼증까지 느꼈다. 허주성강좌장의 목소리가 울려왔다.

《정옥이!》

정옥은 힘들게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그는 환한 미소가 어려있는 스승의 얼굴을 보았다.

그 환한 얼굴, 이 시각 그는 모진 병마를 깨끗이 털어버리고 그 기쁜 소식을 정옥에게 알리기 위해 여기 와선것 같았다. 그래서인지 그 강좌장의 옆에선 차호남은 별로 초췌해진듯 싶었다.

《고맙다, 정옥이!》

강좌장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선생님!》

정옥은 겁먹은 목소리로 불렀다.

《정옥이, 조국의 발전을 위해 우리 대학생들이 스승을 따라 배울뿐아니라 그 스승을 앞서나가야 한다는걸 넌 보여주었다. 고맙다!》

《선생님!》

《인삼을 길러 산에 심는다고 산삼이 되는게 아니었다. 산삼은 스스로, 오랜세월 누구도 모르는 심산속에서 자라는거다.

그때! 자기 스스로의 노력과 몸부림이 자신의 재부가 되고 자양이 된다는걸... 그해야만 앞설수 있다는걸 너도 알고 나도 배웠다. 우린 진짜 <산삼>을 켜다.》

가늘게 떨리는 강좌장선생님의 목소리였다.

《선생님...》

정옥은 목메어 불렀다. 눈앞이 확 흐려들었다.

《나도 사실은 <7>체제에 대한 초보적인 이해는 있었다. 그런데 그걸 두려워서 지켜봤지.

자, 정옥이 네가 알고 배운 오늘 연구토론의 내용들을 나에게 강의해다오. 오늘은 네가 내 스승이 되고 내가 네 제자가 되자꾸나. 응?!》

《선생님?!》

정옥은 소스라쳐 뒤걸음까지 쳤다. 강좌장선생님에게 애원하듯 고개를 가로 저어보였다.

《안됩니다! 제가 어떻게?!...》

그러나 강좌장은 웃으며 책상쪽으로 걸어갔다.

《선생님!》

정옥은 강좌장선생님의 팔을 붙잡았다.

《이러지 마십시오. 제발! 예?! 차라리 절 옥해 주십시오.》

허주성강좌장의 얼굴에 엄한 빛이 흘렀다.

그는 지그시 힘을 주어 정옥에게 잡힌 팔을 빼냈다.

《넌 무슨 소릴 하는거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말이야? 나라 대 나라의 경쟁은 대학생 대 대학생의 경쟁이야. 대학생은 마땅히 스승을 뒤흔들것을 죄스러워 할게 아니라 법도로 공지로 여기구 더 한껏 올라서야해. 정신차려라! 지금 이 순간도 과학은 전진하고 있다. 그 과학을 우리는 명실공히 조국의 과학으로 만들어야 해. 자, 정옥동무! 푸른 것을 활짝 피야지.》

허주성은 힘겹게 걸어 책상에 가앉았다.

책을 펼쳐놓고 안경을 꺼내어 닦아간다.

만년필을 꺼내어 써본다.

마치 강의를 받는 대학생마냥.

《선생님임-!》

정옥은 끝내 눈물을 쏟으며 오열하고 말았다.

컴컴해진 얼굴로 우뚝히 선 호남은 숨이 끊어진듯 기척이 없다...

그 30분간 정옥은 허주성강좌장의 스승이 되었다. 제자는 강의를 했고 스승은 강의를 받았다.

그 길지 않은 시간의 의의를 그들 자신인들 바로 알수있었으랴? 다만 그것은 우리 조국의 시간, 우주강국들을 순간에 따라잡고 우리 조국의 지혜와 힘을 저 우주에 선언한 조국의 영광찬란한 시간만이 소리높이 증명할것이였다.

×

그로부터 몇년후 20대의 젊은 나이에 조국의 첫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의 발사에 크게 기여한 리정옥에게 박사의 학위를 수여하는 모임이 있었다. 이 모임에서 허주성강좌장은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의 박사메달을 뜨거운 손길로 끌어보았다.

속담이야기

《박쥐구실》

봉황새의 생일잔치에 온갖 새들이 모여 와 축하를 하였다. 그런데 박쥐만이 오지 않았다. 봉황새는 그를 불러다놓고 나무랐다.

《그래 내 밑에서 사는 네놈이 어쩌서 그리도 오만한것이나.》

그러자 박쥐는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며 《허참, 난 다리가 있기때문에 짐승류에 속하는 몸이라 무엇때문에 당신을 축하해야 한단말이요.》 라고 하였다.

또 어느 하루는 기린의 생일잔치날이였다.

모든 짐승들이 다 모여와 축하를 하는데 유독 박쥐가 또 빠졌다. 기린은 박쥐를 불러다놓고 되게 꾸짖었다.

그러자 박쥐는 《내참, 여보시오. 난 날개가 달린 몸이라 새류에 속한단말이요. 그런데 무엇때문에 당신을 축하한단말이요.》 하고 발뺌을 하였다.

이처럼 어떤 일을 피하거나 이 핑계 저 핑계 주어대며 묘하게 빠지는 자를 여기에다 비겨말한다.

수필

고향의 이름은 어떻게 빛나는가

박용전

사랑하는 고향의 이름이 세상에 널리 빛을 뿌리기를 바라는것이 사람들의 한결 같은 심정이다. 나역시 벽촌이지만 내 고향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그 마음처럼 고향의 이름이 빛나길 간절히 바란다.

나는 신평에서 제일 높은 백년산기슭의 막바지에서 태어나 수십년간 군급기관에서 사업을 하면서 군전체가 어디나 떼놓을수 없는 고향으로 되었다. 무릇 사람들은 지방행정경제발전의 중심을 이루는 군을 단위로 하여 《곡산태생》, 《봉산태생》 등으로 자기 고향을 일컫는다.

신평군은 예로부터 전해온 지명이 아니다. 주체 42(1953)년 곡산군에서 세간나온 새군이다. 그때부터 곡산군은 미루벌을 기본으로 차지하고 신평군은 산악지대에 속하게 되었다. 때문에 옛적부터 《신계곡산》하면 깊은 산골이라고 생각하던 그 대명사를 신평군이 가지게 되었다.

그래도 모르는 사람들, 특히 동해안지대들에서 시집오는 새각시들은 《넓을 평》자가 붙어 평야지대인줄 알고 왔다는 일화들이 적지 않다.

하다면 왜 부디 신평이란 이름을 붙였는가. 그것은 지금의 군소재지자리가 그중 넓다고 해서 《새번대기》, 《새벌》로 불러오다가 《신평》이란 비교적 큰 마을이 생겼는데 그 이름을 군의 이름으로 올린것이였다.

그러니 전후시기를 거쳐 그 이후시기에도 신평이란 이름은 잘 알려지지 않아 먼 고장사람들은 신평이 어느 쪽에 붙어있는지조차 몰라 섭섭한 때가 한두번이 아니였다.

전후시기에 한 문학교원과 도음리 문학통신원 청년이 단편소설과 벽소설을 발표하기 시작했고 남천리 로농통신원이 신문에 글을 써냈지만 그것만으로는 군의 이름이 빛을 낼수 없었다.

고향의 이름은 오직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빛내여주시였다.

주체46(1957)년이면 아직 전쟁의 피해가 다 가서지지 못한 어려운 때였다.

하지만 어버이수령님께서 그해 6월 홀동에서 신평으로 길 아닌 험산길을 헤쳐오시였다. 그때

수원들이 길이 너무 험하여 못가신다고 막아나서 자 우리 수령님께서 정 그렇다면 삽을 차고 가다 길을 내면서라도 인민들이 사는 곳이면 다 가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떠나오시였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몸소 그 험한 로정의 길안내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때 작은 규모로 갖 조직된 생양과 유동마을의 산골협동조합을 찾으시여 살림살이형편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산을 종합적으로 리용하여 산간지대 농업과 산골농민들의 생활이 꽃피게 할 지름길을 환히 열어주시였다.

그날부터 천지개벽이 일어나기 시작한 신평땅은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한 현지도사적이 빛나는 력사적인 고장으로 되었고 두분들께서 언제나 마음 쓰시며 크나큰 사랑을 기울여주신 은혜로운 땅, 복받은 고장으로 되였다.

과수원이란 말조차 없어 머루, 다래나 따먹고 산뽕누에나 치던 고장에 사과, 배, 감, 살구 등 수백정보의 과원과 뽕밭이 생기고 산골짜마다 집집승들이 옥실거리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로 평양-원산도도가 산악을 뚫고 헤치며 군의 중심을 횡단하게 된것은 산골군에 새로운 문명과 번영의 시대를 열어준 큰 행운이였고 놀라운 전변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이 도로개통의 테프를 끊어주신 날 우리 군 도화동에 오시여 세상길이 환히 열린 산촌의 전변을 못내 기뻐해주시면서 남강을 막아 발전소까지 세워주라고 은정깊은 말씀을 주시였다.

빠스라고 기차타고 양덕을 거쳐 수백리 에돌아가던 평양길이 문앞에 큰길로 환히 열려 사람들이 산천경개 아름다운 우리 군의 절경을 부감하면서 즐겨 휴식도 하고 가는 고장이 되였다.

그런가 하면 평양의 창작가들과 배우들도 달려와 예술영화 《도라지 꽃》의 《고향》이 되기도 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도화동에 오시여 친히 터를 잡아주신 발전소가 완공될 때에는 여러대의 발전기를 손수 보내주시여 것처럼 전기사정이 어려울 때에도 신평은 별세상이란 말을 들으며 살아왔다.

그 옛날 우리 군은 너무도 궁벽한 적막강산이여서 울며왔다 울며가는 정배살이고장이라고 했는데 지금이야말로 조국땅 행복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술재령을 넘으시다가 류달리 소리높은 도음리 매양천의 물소리를 들어주시고 친히 대학생 3대혁명소조원들을 보내주시여 물원천과 락차고가 좋은 이 골개물에 11개의 소형발전소를 세워 농촌전기화의 본보기로 온 나라에 내세워주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주체78(1989)년 11월 27일 일군들에게 자신께서도 도음리에 건설한 발전소들을 텔레비존으로 보시었다고 하시면서 산골물을 리용하여 발전소를 건설하여 놓으니 도음리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뜻깊은 말씀들을 하시었다. 깊고 깊은 산골인 나의 고향의 이름은 이렇게 되어 세상에 더욱 널리 소문나게 되었다. 이름조차 모르던 산골군의 이 놀라운 전변의 력사 갈피갈피마다에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이 뜨겁게 깃들지 않은 곳이 어디 있으랴.

어느 옛날 책을 보니 곡산은 인재가 나지 않은 고장이라고 썼었다. 하긴 봉건말기의 유명한 문호였던 정다산도 한때 곡산에 와 군수를 한적이 있다지만 그도 이렇다할 인재를 키워낸 기록은 없다. 말하자면 그때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한명도 없었던 것이다.

일제식민지통치시기에는 현대문명과 멀리 떨어진 이곳 산골사람들이 무지와 몽매속에서 살아왔던 것이다.

아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두메산촌에도 골고루 비쳐주신 은혜로운 인간사랑의 해빛, 배움의 혜택으로 수많은 대학생들이 나오고 나라의 역군들이 자라났다.

그뿐아니라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속에서 장편소설과 단편소설, 시와 텔레비존소설을 써낸 나라의 관록있는 작가들도 자라났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선군시대 우리 고장 출신의 병사들과 영웅들을 키워주고 내세워주시여 고향의 이름을 더욱 빛내여 주시었다.

시해감문건설장과 안변청년발전소건설장, 아니 조국의 방방곡곡에서 위훈을 세운 우리 군태생 영웅들은 수십명이나 된다.

영웅들은 고향의 이름을 빛내여 준 가장 생동한 초상들이었다. 때문에 영웅이 난 소식은 소식 중에도 가장 기쁜 소식이었고 경사중에도 큰 경사여서 온군이 들썩했고 온 나라에 소문을 냈다.

어느 해 최전연부대를 찾으셨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적들의 무분별한 도발을 짓부시는 격전에서 총상으로 한발을 잃어버린 한 분대장이 원수를 천백배로 복수하기전엔 총을 놓을수 없다고 하면서 의족한 다리로 전투임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으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그 분대장이 못내 대견하시여 아주 좋은 동무라는 과분한 치하를 주시었다. 그 분대장 역시 우리 군 생양리 잠업 1반 농장원가정의 둘째 아들이었다.

이처럼 선군시대 고향의 이름은 용감하고 슬기로운 장군님의 병사들이 빛내고 있는 것이었다.

당의 품속에서 산골샘물처럼 깨끗하고 푸른 이 갈숲처럼 대바르게 자라난 우리 고장태생들은 한결같이 소박하고 성실하며 산악처럼 억세고 용감한 것이다.

선군시대의 장엄한 진군길에서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 드리고 고향의 이름을 빛내일 영웅들과 위훈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는가.

한 나무에 주렁진 열매들을 보시라. 뿌리에서 가까와 크게 열리고 아지골이 멀다고 작게 열리던가, 은혜로운 해빛이 고르롭고 물려준 어머니대지의 젖이 달고 달아서 먼 아지골에 열리어도 하나같이 크고 탐스럽고 향기 넘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 고향의 이름은 어떻게 빛나는가.

천출위인이 보살피시고 령도하시는 땅, 자애로운 아버지 품속에서 한식술을 이루고 사는 복받은 산천엔 무릉도원이 솟아나고 선군시대 위대한 령장의 슬하에서 자라는 우리의 아들딸들은 기적과 위훈으로 고향의 이름을 끝없이 빛내일 것이 아니겠는가.

하기에 그 품속에서 일군으로, 시인으로 자라나도 고향의 전변을 뜨겁게 체험해오면서 《고향시초》를 발표하였고 중편실화문학 《고향과 영웅》을 썼다.

아, 정든 나의 고향이여, 끝없이 번영할 강성대국의 화원속에서, 수많은 애국자들과 영웅들의 위훈속에서 그 이름 더더욱 빛을 뿌리라.

전기로의 동음소리 외 1편

문선건

너무도 오랜 세월 함께 살아
내 마음 이렇듯 젖어있는것인가
그 언제 들어도
이 가슴 못견디게 달아오르는
전기로의 동음소리

동음소리 끊임없던 벽찬 그날에도
내 언제나 그리움에 살았고
드문히 듣게 되는 시련의 나날에는
바쁜 걸음도 멈추고 들곤하던 소리

동음소리
동음소리
너는 무엇이기에
내 한생토록 안고 사는것이나
그리움에 사무쳐 안고 사는것이나

아 전기로의 동음소리는
한갓 쇠물을 꿰어내는
크나큰 무쇠가마의 울림소리만이 아니구나
그것은 나와 함께 운명을 함께 해온
나의 숨결소리 박동소리

하기에 나는

온갖 쇠붙이들 한껏 끌어안고
세찬 전류를 빨아들이며
우뢰울고 번개칠 때에도
마치 우리의 대기계화군단이
적진으로 육박하는듯
통쾌하게 들었다

흰 연기 물물 피워올리며
첼로의 소리처럼 웅글게 들릴 때에는
이름높은 악단의 교향곡을 듣는듯
한없는 기쁨에 가슴 설레였더라

아, 전기로의 동음소리는
나의 피를 끓게 하는 소리
쇠물처럼 심장을 달구어주는 소리
언제나 젊어 값있게 살라고
나를 부르는 소리
나를 이끄는 소리

내 잠시 닥쳐온 시련앞에 무릎 꿇고
놈들의 《압살》에 숨질소냐
다시는 노예의 멍에를 쓸수 없기에
내 언제나 가슴에 안고 사노라
동음소리 높이 더 높이 올리며

나의 시

총대와 쇠장대를 잡았던 손에
펜대를 잡고
불밝은 탁상등아래 펴놓은 하얀 종이우에
나는 시를 쓴다
쓰다는 지우고
지우고는 또 쓰고

미국놈들의 뒤통수를 조기며 내닫던 50년그날
모조리 남해가에 처넣지 못한 후회가 있어
시를 쓴다
한톤의 강재가 그토록 그림던 복구의 나날
더 많은 쇠물을 부어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
시를 쓴다
당사업의 나날에
사람들의 심장에 불을 달아
더 많은일 하지 못한 자책이 있어

나는 시를 쓴다

살아 한생
피도 흘리고
땀도 뿌리고
숨이 가쁘도록 뛰고 달렸어도
돌아보면 회회와 아쉬움과 자책만이 있어
쓰고 또 쓰는
나의 시

그대로는 살수 없는 몸
아니바치고는 못견딜 이 열정
흰 머리가 더더욱 젊음을 주어
나는 시를 쓴다
한없이 은혜론 어머니 나의 조국에
달리는 살수 없는 나를 바친다

달마산기슭에서 외 1 편

계훈

여기 강선땅 달마산기슭에
사람들 걸음을 멈추게 하는
류다른 하나의 묘가 있다
무쇠의 말뚝을 묘비로 세운...

용접의 불꽃으로 지저 새긴 이름
그는 압연공, 그것도 스물셋의 꽃나이 제대군인
어찌하여 56년전후의 그날에 그는 갔는가
어찌하여 무쇠의 한토막을 안고 여기 누워 있는가

3년간 원쑤의 총탄도 다치지 못한
그 젊은 심장 어이하여 멈추었는가
애어린 백양나무 함께 가꾸던
사랑하는 처녀를 남겨두고 그는 어디 갔는가

압연기의 숨결을 멈추지 않기 위해
불타는 가열로속에 뛰여든 사람이여
목숨은 버리어도 당앞에 다진 맹세 어길수 없다
고
계급의 의리를 깨우쳐준 사람이여

아, 그가 뽑은 강철의 한토막을
눈물젖어 눈물젖어 묘앞에 박아주던
열두명 작업반동지들 가슴에
그날 그대는 무엇을 새겨주었는가

이 땅에 원쑤가 남아있는 한
싸움을 해도 건설을 해도 한목숨 내대고 해야 함
을
아아 강철을 그리안고
강철의 쪼쪼한 울림으로 웨치는 사람이여!

아이들이 달려간다

(개천-태성호물길우에서)

잔디 푸르른 방축길로
아이들이 달려간다
웃고 떠들며
손을 흔들며
-물이 와요, 대동강 물이 와요

좌- 좌-
파도쳐 흐르는
물소리에 놀라선가
산들은 우뚝우뚝 머리를 들고
앞벌은 기쁨에 설레이고 설레이고

저 보아라
해가 웃는 파아란 하늘엔
놀라 풍기는 잠자리떼

애들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춤을 추며 날아에는 갈매기들

마음껏 웃어라
노래불러라
축복받은 아이들이아
강없는 고장에 태어난 너희들에게
우리 장군님께서 대동강을 주셨구나

푸른 강물 품에 안고
춤을 추어라
춤을 추어라
산이여, 벌이여 축복받은 사람들이여
천지개벽 이뤘으니 우리 삶도 밝구나

바줄당기기

바줄당기기는 여러 사람들이 두편으로 나뉘어 긴 바줄의 양쪽을 갈라잡고 힘껏 당겨 자기편쪽으로 상대편을 끌어오는 것을 겨루는 집단적인 민속놀이이다.

옛 기록들에서는 바줄당기기를 《색전》, 《갈전》, 《조리회》라고 하였으며 전라도일대에서는 《고싸움놀이》라고도 하였다.

바줄당기기는 농사와 관련하여 생겨난 집단적인 힘내기 경기로서 이미 집단적인 힘내기 경기로서 이미 삼국시기부터 널리 진행되어 왔다. 바줄당기기는 집단의 단합된 위력을 시위하며 힘과 인내력을 키우는 민족경기로서 전국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널리 진행되었다.

바줄당기기는 대체로 정월대보름에 진행하였으며 지방에 따라 5월 봄명절날, 7월 백중 또는 8월 한가위에 하는 곳도 있었다.

바줄당기기는 흔히 부락단위로 진행되었는데 때로는 리대항전으로까지 확대되어 선수와 응원까지 합하여 수백수천명에 이르기도 하였다.

바줄당기기를 하기 위해 먼저 바줄을 준비하였다. 논고장에서는 벼짚으로 바줄을 꼬았으며 어떤 곳에서는 벼짚과 칩렁쿨을 섞어 꼬기도 하였다.

바줄을 꼬는 방법은 줄을 높은 나무가지에 걸어 놓고 짚을 세갈래로 단단히 비벼서 끈 다음 다시 그것을 세개 합쳐서 보다 굵은 삼합줄을 꼬는데 이러한 공정을 여러차례 반복하였다.

이렇게 해서 직경이 20~30cm, 짚 되는 줄들이 만들어지면 다시 그것들을 3~4개 합쳐서 그 우를 단단한 짚줄이나 칩줄로 여러겹 묶었다. 이렇게 완성

한 원줄의 굵기는 대체로 직경 50~60cm, 길이는 300~400m 나 되었다.

원줄은 지나치게 굵어 사람들이 직접 잡고 당길수 없기때문에 원줄에 1m 정도씩 간격을 두고 직경 9~10cm, 길이 2~3m 의 짚고 가는 줄을 런던하여 늘이었다. 이것을 동줄이라고 하였는데 실지 사람들이 붙잡고 당기는 줄은 이 동줄이었다.

줄을 만들 때 수줄과 암줄을 구별하는데 이것은 오랜 관습에 의하여 각기 담당하는 편이 정해져 있었다.

바줄당기기는 처음에 12~13살쯤 되는 소년들이 두편으로 갈라져 작은 바줄당기기를 하는것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것을 《애기줄당기기》라고 하였다. 겨루는 두편은 오랜 관습에 의하여 언제나 상대하는 아래우 혹은 물건너 두 마을로 고정되어 있었다. 두편의 소년들은 정월초부터 각각 자기 마을의 집집을 돌아다니며 벼짚을 거두어 바줄을 준비하였다.

바줄당기기가 처음 시작될 때 줄은 굵지도 않았고 어른들은 참가하지도 않았으며 두 마을의 아이들끼리 하였다. 그러나 동네사람들은 기본놀이의 서막으로 되는 이 애기줄당기기의 승부에 관심을 높이고 여러가지로 도와주었다.

애기줄당기기는 정초에 시작되어 정월 12~13일쯤까지 매일 밤 계속되었다. 애기줄당기기가 여러차례 거듭되는 과정에 줄을 점점 굵게 하였고 양편의 동원되는 인원수도 늘어났다.

정월 13일 또는 14일에 큰 바줄당기기가 진행되었다. 경기는 두 마을 또는 두 고을의 경계점으로 되는 큰 풀밭이나 마

당에서 하였다. 큰 바줄당기기는 애기줄당기기때와는 달리 대낮에 하였다.

경기가 진행되는 날은 아침부터 양편에 속한 많은 동네의 사람들이 각기 농악대를 앞세우고 사방에서 모여 들었다.

각기 자기 편에서 준비한 원줄들을 서로 런던한 다음 총심판의 신호에 따라 힘을 합쳐 잡아당기었다. 줄은 끌려가고 끌려오면서 경기가 치열하게 진행되었다. 사람들은 극도로 흥분하여 형세가 불리하게 된 편에서는 남녀로소 가림없이 온 동네사람들이 모두 줄에 달라붙어 당기기도 하였다. 경기에 직접 관계없는 구경군들까지 달라붙어 돕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줄이 어느 한쪽으로 끌리워 줄을 런던한 중심점이 어느 한편의 결승선까지 가게 되면 경기는 끝나게 된다.

승부가 결정되면 이긴 편은 자기줄과 함께 런던도니 진편의 줄까지 끌고 농악을 울리면서 마을을 한바퀴 돌며 기세를 울리었다.

지방에 따라 특색있는 바줄당기기를 하는곳도 있었다.

바줄당기기를 통하여 마을사람들은 단합된 힘을 과시하였을뿐아니라 경기에서의 승부를 농사의 흥풍과 결부하여 설명하였다. 즉 바줄당기기에서 이긴 편에는 풍년이 들고 진 편에는 흉년이 든다고 해석하였다.

바줄당기기는 줄 하나를 통하여 전체 참가자들의 힘과 마음을 한데 묶어세우며 서로 런던시키는 매우 통쾌하고 신명나는 놀이이며 단결 된 힘을 과시하는 집단적인 놀이로서 우리 인민들속에서 오랜 기간 전통적으로 계승되어 왔다.

《작가, 예술인들은 미제승냥이들의 교활성과 악랄성, 포악성과 야만성을 온 천하에 날날이 폭로하여야 합니다.》

김일성

단편소설

승냥이

1

수길이는 선교사네 젓소의양간 뒤편 웅덩이에서 커다란 고무공 하나를 얻었다.

좀 낡기는 했으나 반반하게 닳아 고운때 오른 품이라든지 손에 닿는 찹찹한 맛이 본시는 조만한 것이 아닌 듯 싶었다.

《이게 웬떡이나.》

수길이는 너무 기뻐서 한참동안 앙금질로 뛰어 돌아갔다.

그러다가 공을 힘껏 공중에 올려뜨려보기도 하고 내려오는 것을 정중정중 뛰어오르며 잡아보기도 하였다. 매번 그리 쉬이 잡혀지지는 않았으나 쫓아가는 것이 그리고 다섯번에 한번이나마 덩쿨 뛰어오르며 냉큼 잡는 것이 실없이 재미났다. 수길이는 학교마당에서 학생들이 공차는 광경을 련상했다.

수길이는 다음으로 공을 발길로 질러보았다. 공이 저만큼에 떨어져 뒹굴어가는 것을 보며 그는 그편에 누가 있어 이편으로 도로 차보내주었으면 하였다. 수길이는 동네아이들이 와주었으면 하고 사면을 휘휘 둘러보았다.

(계득이랑 장수랑 무얼 하고 있을가.)

그러나 실상 이리로는 아이들이 좀체 들어올 수 없기 마련이었다. 선교사네 너른 울타리에는 빙 돌아 가면서 뽀뿌라 혹은 아카시아나무가 빼먹하게 둘러 서있는데 더욱 그 나무 아래도리에 가시철을 배게 둘러 쳐놓아서 외인은 감히 열썬 못하였다.

젓소의양간뒤에 솟은 높은 언덕배기 옷당반의 안침진 수림속에 들어앉은 선교사의 주택은 두말할 것 없고 외양간과 그앞의 가탈진 비탈에 들어선 과수나무까지 모두 선교사의 주택구내로 되어 있어서 아무리 세찬 장난꾸러기 아이들일지라도 감히 범접할 엄두를 못냈다.

수길 어머니는 선교사네 잡역부다. 빨래도 빨고 화독에 불도 때고 물도 길고 혹시는 소젖 짜는 시중도 들고 또 가을이면 과실 따는 일도 하였다. 수길의 모자는 외양간곁에 달린 조그만 막간에 살고 있었다.

이 막간 한방에는 최령감이라는 늙은 잡역부가 살고 있었다. 최령감은 본시 지주 강돼지네 머슴으로 있었는데 사람이 지나치게 어리무던해서 10년나마 하루같이 강돼지네 두엄을 주물러 심사비틀어진 사람들이 툇물에 빠진 최서방이라고 비웃었다. 그러나 나이들고 허리가 꼬불자 전공도 보람없이 따돌리게 생겨서 전에 선교사네 외양간

글 한설야

저름을 처가던 반연을 밟아 이리로 드난온후 가난한 이웃사람들은 최령감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수길 어머니는 이 늙은이의 연줄로 이리로 들어왔다. 최령감에게 비하면 수길 어머니는 수월찮게 영악한 녀인이나 두사람 다 맘씨 착한 탓으로 서로 의지하고 의중계 지내는 터이었다.

대체로 선교사네 과수원앞 비탈과 열은 골짜기에는 구차한 사람들이 적지 않게 살고 있었다.

이들은 대개 시가지바닥에서 밀려나서 관청의 눈을 속여가며 여기에 곤돌막과 달개집들을 꾸렸던 것이나 근년에 이르러 이 부근 풍치좋은 언덕에는 별장 비슷한 양옥들도 더러 들어앉았다.

20년도 전에 미국선교사가 조선에 오자바람으로 지금 사는 일대를 그때 돈 20원으로 사서 풍치좋은 별장지대로 만들었고 또 근년에는 이 부근에 리목사네와 새 부자 한두사람이 번듯하게 2층벽돌집을 세웠다. 그러나 예전부터 살아오던 구차한 곤돌막의 살림살이는 늘기는 커녕 갈수록 배틀리고 꼬이기만 하였다.

그런데 이 동네도 다른 모든 가난한 동네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은 많았다. 수길이는 이리로 온 뒤에 이내 이아이들과 섞들려졌으며 그들과 섞여 노는 것이 가장 유쾌하였다.

오늘 뜻밖에도 좋은 장난감을 얻은 수길이는 젓소의양간 마당에서 뛰어나와 이웃아이들에게로 갔다. 아이들은 수길이가 가지고온 고무공을 보더니만 기급할 듯이 펄쩍 뛰며 《야, 거 매끈매끈하고나. 바람도 안 빠졌어.》하고 손가락으로 찢어보기도 하고 뺨에다 대고 문질러보기도 하였다. 그리고 어떻게하면 이걸가지고 잘 놀가하는 것을 궁리하였다.

그리하여 공중에 높이 올려뜨리고 서로 던져받으려고 머리를 맞조으며 달려다녔다. 이편 아이가 주먹으로 지르면 저편 아이가 받아서 주먹으로 되질러 보내기도 하였다. 발길로 찰내기도 하였다. 어쨌든 재미났다.

수길이와는 잘 놀지 않던 아이들도 또 조그만 공을 가지고 늘 혼자만 놀던 과수원집 아들도 왔다. 그리고 비단조끼주머니에 손을 지르고 그속에서 눈깔사탕과 도로뽀스를 꺼내서 입속에 팔매질 하듯 던져넣고 얌얌거리는 리목사아들 요한이란 아이도 한몫 끼려고 들었다. 그러나 수길이는 이 놀이 제일 싫었다.

《넌 안돼. 저리가. 너 이 새끼 우릴 더럽다고 하지 않았나.》

사실 수길이는 요한이놈에게 단단한 앙치가 있었다. 요한이는 얼굴이 해쓱해서 뻔뻔하고 다니는

주체에 심사는 많아서 어떤 때는 일부러 수길에게 가서 《오타, 이거 먹어라.》하고 도로쁘스 싸는 빈종이깍지를 던져주었다. 그리고 한번은 그놈과 과수원집 아들이 공을 가지고 노는데로 수길이 쫓아가보았더니 《비켜. 네게선 소풍내가 나. 메시겁다.》하고 밀어던졌다.

그래서 수길이는 저희들 놀음에 그놈들을 끼지 못하게 하였다. 그래도 그놈들은 수많은 아이들이 와야와야 떠들며 노는것이 부러운듯이 먼장에서 구경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요한이눔은 심사가 나는지 침을 테테 뱉으며 제 집으로 돌아가버렸다.

수길은 밤에 집에 돌아가서도 요한이란 놈의 일이 생각나서 어머니한테 꾸녕하였다.

《요한이새끼 오늘 얼굴이 지지벌개서 가구 말았어.》하고 수길은 언제 만져보아도 대견한 고무공을 만지며 뇌까렸다.

《요한이라니 리목사 아들 말이나?》

《그간놈이 글썄 내 공을 차려고 들겠지.》

《그래 못차게 했단 말이나?》

《그럼.》

《애, 큰일났구나. 리목사가 선교사와 아주 친하다. 그리고 또 무슨 학교랬나, 네가 이 봄에 들어갈 교회학교말이다. 그 학교에서는 리목사가 교장보다 더 높다. 성세가 서양사람 담에 간다는데 요한이가 제 아버지한테 일러바치문 너 학교 못 들어가.》

이 말에는 수길이라도 명문이 뜨끔했다. 그도 그럴것이 수길이는 벌써부터 올봄에는 꼭 교회학교로 들어가려 맘먹고 있었으며 그래서 그 학교를 바라보는 때마다 속으로 가만히 《우리 학교》하고 불러 보는터이다. 참말 몸이 근지럽도록 유쾌한 부름이었다.

사실 수길이 학교 들고싶은 향념은 여느 아이들보다 수수백배나 가날된것이 있었다.

수길이는 작년이 소학 들어갈 나이여서 그해 봄에 원서를 내고오라는 날에 어머니와 함께 학교에 가보았으나 결국 까불리고 말았다.

그래서 수길 어머니가 선생을 붙들고 비두발팔 한즉 입학지원한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들일만큼 나이차레로 뽑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수길이가 딸리온 이유는 그것이 아니고 집이 구차한것과 선생들에게 미리 술병이나 닭마리를 고여올리지 못한데 있었다. 아닌게아니라 퇴물깨나 찌른 집 아이들은 수길이 보다 뒤에 난 아이도 들어갔던것이다.

본시 이웃에서는 수길이를 교회학교에 넣고라고 말들했으나 당시 감옥에 있던 수길 아버지가 교회학교로 보내지 말고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시내 큰 학교에 넣어서 발천부터 많은 아이들속에서 달귀내라고 해서 그 말대로 하자다가 그만 그렇게 되었던것이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궁이로 들어가서 굴뚝으로 나오듯이 고만한 반생의 어느 쓰라림보다 더 쓴맛을 보았고 따라서 이해에는 어찌하든지 교회학교에 넣으려고 생각하였고 수길이라도 그것을 바라고 있었다.

한것은 남들 말이 교회학교는 오히려 구차한

집 아이들을 잘 받아준다 하였고 또 하나는 선교사네 집에 있으니까 그 학교 선생이나 리목사에게 청을 드려볼수도 십상 있으리라 생각하였던것이다.

《가난한 집 아이들은 어디 다른 학교에서 받아준다니. 더구나 애비 없는...》하다가 어머니는 자발없이 나오는 말을 그만 중동무이하였다. 남편 없는 홀어미, 아비 없는 외아들-이것은 거덜못처럼 앙심에 매달려 떨어지지 않는 생각이나 하마 입밖에 내고싶지 않은 말이었다.

그의 남편은 정평농민조합 재건사건으로 왜놈에게 붙들려 4년반동안 예심에서 썩어나다가 7년 징역을 받고 1년나마 벽돌굽는 고역을 하다가 바로 지난 겨울 추위에 심장마비로 그 부르고 싶던 수길의 이름도 한번 불러보지 못하고 줄지에 옥사하여버렸다.

수길이네는 본시 농촌에 살아서 수길 아버지가 감옥에 들어간 뒤 수길 어머니는 90리나 되는 농촌에서 수길이를 업고 남편면회하러 다녔다.

수길 어머니외에 아들을 감옥에 보낸 수길이네 동네 로파들도 그때마다 수길 어머니를 따라서군 하였다. 로파들은 기골 좋고 주눅 좋은 수길 어머니와 함께 가지 않고는 으리으리한 감옥문앞에서 오금이 저려 어찌할바를 몰랐다.

수길 어머니와 로파들은 한번 면회에 4~5일이 레상사로 걸렸다. 그래서 떠날 때는 그 동안 먹을 량식으로 기장떡이나 좁쌀떡 같은것을 만들어서 허리에 차고 나갔다. 잠은 늘 길가 산기슭 후미진 곳에서 머리를한데 오봇이 모으고 새우등처럼 꼬부린채 앉아자군하였다. 위낙 손이 텅 비인터이라 남의 집에 들어가 자잘 찰치가 없어 고박한 아낙네들은 아예 그런 업무를 내지 않았다.

한번 그 녀인들은 바로 선교사네 뒤편 언덕 밑에서 잔 일이 있었다. 그때 우연히 수길 어머니는 최령감을 만나 알게 되었고 그 반연으로 뒤에 선교사네 잡역부가 되었다.

그가 면회갈 때마다 수길 아버지는 수길이를 잘 기르라고 신신당부였다. 한번 수길이가 백일해로 앓는것을 업고간 일이 있었는데 그때 수길 아버지는 그 소리를 듣더니만 호되게 안해를 나무람하였다.

《수길이 나을 때까지 면회 절대로 오지 마오. 나는 아무 걱정 없으니 아이간수나 잘하오.》하고 남편은 화를 내기까지 하였다. 언제나 강강한 남편은 이때에도 결코 못한 얼굴을 보이지 않았으나 그 철석 같은 마음이 수길의 병을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 안해는 알수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얼마전에 면회갔을 때 안해는 그의 몸이 심상치 않은것을 직감하였다. 남편은 첫째 백골같이 말랐고 목을 잘 가누지 못하였다. 몸이성하냐고 물었을 때 남편은 《아무 병없소. 요 며칠전에 벽돌에 손가락을 내보였을뿐이고 이어 안해 등에 업힌 수길이를 유심히 바라보며 《래년 봄이문 수길이 학교가겠군. 이제 반년이문.》하고 매우 만족한 표정이였다. 간수놈들이 수길이를 떼놓고 면회 들어가라고 울러대기때문

에 수길 어머니는 멀리 남은 수길이를 늘꾸동쳐 업고 먼회실로 들어가곤 하였다. 하긴 수길이가 영양부족으로 자소해보이었고 또 앓는 아이 같기도 보였다.

그로부터 얼마뒤에 얼굴이 해쓱하고 좀 부석부석해보이는 젊은이 하나가 수길 어머니를 찾아왔다. 캡을 벗고 인사하는 그 젊은이의 까까중이머리를 볼 때 수길 어머니는 곧 자기 남편을 연상했고 감옥에서 갓 나온 사람이구나 생각하였다. 얼굴에 박힌 어루러기도 옥고의 자취인것이 분명하였다.

《수길 어머니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서?...》

수길 어머니는 어느덧 뉘여멈출 줄 모르는 가슴을 누르며 물었다.

《네, 저는 수길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시다.》

《아, 그러세요. 언제 나오셨어요?》

자기 남편도 이렇게 나올 날이 있다는 희망이 이때 일월처럼 그의 앞을 비쳐주었다.

《네, 수일됩니다. 곧 온다면서... 수길 아버지는 별고 없습시다만 수길 이때때 걱정하더군요.》

《아, 수길아.》

수길 어머니는 대답보다 수길이를 아버지 친구에게 보일 생각이 더 급하였다. 그러나 마침 수길이는 어디로 놀러가고 없었다.》

《수길이는 잘 있어요. 좀 돌아오시지요.》

《아니 또 오겠습니까. 요 가까운데 있습니다.》

《아니 어디?...》

《바로 저어 앞 벽돌구목 선 집 앞입니다.》

《네네, 그래 누구?...》

《네, 나는 리동건이라고 부릅니다.》하고 동건은 수길 아버지 소식을 대강 전하고 돌아갔는데 그 뒤 얼마 아니하여 천만뜻밖에도 남편이 옥사하였다는 기별이 나왔다.

그때 수길 어머니가 맨 먼저 찾아간것이 동건이였고 수길 어머니와 감옥에 가서 수길 아버지 시체를 찾아온것도 또 최령감서견 산에 가서 매장해준것도 동건이었다.

그리고 그뒤에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수길 어머니는 그를 먼저 찾아갔다. 수길 어머니는 한때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도 해보았으나 수길이를 공부 잘시킬 일념으로 쉬이 뜨지 못했다.

고향은 부근에 학교가 없고 토막한 산전 고향이나 굽어 가지고는 도저히 수길이를 공부시켜낼 도리가 없어서 두루 궁리끝에 또 동건을 찾아갔다. 동건이도 역시 수길 어머니의 뜻과 같은 의견이여서 그는 그대로 선교사네 잡역부로 놀러 있었던것이다.

수길어머니는 동건이와 래왕하는 사이에 그가 어떤 사람인것도 대강 알게 되었다. 동건이는 본시 도립병원 급사로 있다가 부지런하고 령리한 보람이 있어 약제사 조수까지 되었는데 그뒤 한때 세상을 놀래우던 태평양로동조합사건에 관계하여 감옥에 갔었다. 그는 병원에 있으면서 자주 동지들간의 연락을 취해주었고 또 동지를 획득하는 사업을 하는 일방 병원약품을 빼돌려 동지들 병치료에 이바지하였다.

한번은 어느 동지 하나가 형사들의 습격을 받아 총을 맞고 부상한채 도망한것을 산중에 있는 폐광굴속에 두고 치료하여 그를 구원해낸 일도 있었다.

동건이는 감옥에서 나와 정양도 변변히 할 사이없이 직업을 구하러 돌아다녔다. 그러더니 얼마뒤부터 H 화학공장 로동자로 취직하여 경편차로 통근하게 되였노라고 수길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왜 인공이 그만한 사람이 로동자로 들어갔는지 수길 어머니에게는 의심되었으나 그것은 여하튼 그는 동건이를 선생이라고 불렀다.

얼마전에 수길이가 입학때문에 찾아갔을 때에도 동건이는 자기 일처럼 걱정해주었다. 동건이는 소학교선생중에 옛날동무들이 있기는 하나 별로 자신이 없고 차라리 교회학교가 들기 쉬우리라고 말하고 자기는 교회에는 전연 인연이 없는터이라고 걱정하던 끝에 《그러나 수길이는 령리하니까 들게 되겠지요. 학교에 가서 때를 쓰십시오. 나도 가보겠습니다.》하고 안심시켜주었다.

사실 동건이도 수길이가 학교드는 일이 못내 걱정되었다. 다만 한가지 믿는것은 그 애의 재주였다. 학교입학시험때 선생이 그 애와 문답해보기만 하면 당장 들이고 싶으리라고 동건이는 생각하였다.

동건이가 수길 어머니를 찾아갔을 때 수길이는 장난치다 말고 높은 나무를 뵈히 쳐다보고 있었다. 그래서 무얼 그렇게 보고 있는가고 물었더니 수길이의 말이 《아저씨, 나 어서 저 나무만치 키가 컸으면 좋겠어요.》하고 대답하였다.

《키가 커선 무얼 하니. 전보대와 경쟁하겠네.》

《키 크면 좋지요. 감옥담장도 훌쩍훌쩍 넘을수 있지 않아요.》

《웁아.》

그제사 동건이도 그의 속을 알만 하였다. 아버지의 자유를 가로 막고 있는 감옥담장이 지금 수길에게 있어서는 가장 미운 존재였던것이다. 동건이는 수길의 그 심정을 리해할만 하였다.

《알만하다. 그리고 기운도 세고... 재주도 썩 많고... 그럼사 좋구말구. 옛날 우리 장수들에게는 따발칼이라는게 있었단다. 그 칼은 도로로 말면 주머니에도 들어가는데 꺼내서 원썬놈을 칠 때는 십리도 백리도 넘게 좌르르 퍼지면서 원썬놈들의 모가지를 단칼에 다 잘라 버렸단다.》

《아저씨, 그런 칼 지금도 있어요?》

《글쎄 있긴 있을건데 사람들이 아직 찾아내지 못하는가보다.》

《난 찾아낼테야, 아저씨.》

《그렇지, 수길이는 찾을거야.》

동건이는 이렇게 말했다. 그뒤부터 동건이는 진짜 수길이가 장차 동쁜 인물로 되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수길의 집으로 찾아갈 때마다 수길이를 잘 기를것을 그 어머니에게 당부하고 저도 그 애를 잘 키우는 일에 무슨 도움이든지 해주려고 생각하였다.

수길 아버지가 죽은 뒤에는 더욱 그랬다. 저나 수길 어머니나 힘은 없지만 종이도 맞들면 가볍

다고 힘을 합해서 수길이를 잘 키우리라곤 동진이는 생각하였다. 그러니 수길 어머니는 더 말할 것이 없었다.

수길 어머니는 어찌하든지 아들을 잘 길러 주는 남편의 뒤를 잇게 하리라고 마음 먹었다.

수길의 머리를 어루만지는 때 어머니는 자기도 장차 문을 활짝 열어붙이고 맑은 날을 우러러 살 날이 꼭 있으리라는 희망이 솟았다.

수길 어머니는 수길이한테 하나에서부터 백까지 세세는것도 또 생일 생시도 가르쳐주고 또 선교사집 주소를 알아다가 이것이 네 사는 주소라고 가르쳐주고 그밖에 입학때 선생님이 흔히 묻는다는 문제들을 알아다가는 수길에게 가르쳐주곤 하였다.

그러는중에 수길이는 한번 《어머니! 미국과 일본이 어느기 더 세나?》하고 엉뚱한것을 물었다.

그러나 어머니도 그런것은 잘 몰랐다. 하면서도 어머니는 그저 일본이 밋다는 생각에서 《일본이 약하지...》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일본이 나쁘나?》

《그런건 묻지 않아. 선생이 순사한테 불들려가자구 그러겠니.》하고 어머니는 이내 말머리를 돌려가지고 자기도 골뜩히 생각해가며 《일곱에 다섯을 넣으론 몇이냐?》, 《열셋에서 여섯을 빼면 몇이냐?》하고 곰곰 물었다.

남들 말이 학교에서는 무엇보다 산수 잘하는 아이를 제일 많이 뽑는다 하였고 부자집아이들은 돈회계를 잘해서 산수에 익은데 구차한 집 아이들은 그렇지 못하다 하여 어머니는 그것이 또 은근히 걱정되었다.

하긴 수길이뿐아니라 어머니자신도 그런데에는 아주 서툴렀다. 그래서 어머니는 조그만 감자알과 굵은 감자알을 내놓고 하나는 일전짜리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오전짜리라고 한 다음에 《이것이 열개면 얼마나? 이것이 스물다섯개면 얼마나?》하고 물었다.

그러나 수길이는 손가락을 꼽아가며 더듬더듬 대답해서 어머니는 암만해도 불안하였다.

그래서 어머니는 꼭 한번 죽을셈 큰 맘 먹고 《선교사님!》하고 그에게 애원해보려고 마음 먹고 있었다. 그러던차에 수길이가 세도 좋은 리목사 아들을 까주었다는 말을 들은 다음부터 수길 어머니는 실낱같은 희망이 바람받이초불처럼 흠기 는것을 느끼었다.

《아무래도 선교사의 힘이라야...》 하며 수길 어머니는 때 따라 속으로 닭알날가리를 가리곤하였다.

2

아직 2월 초생이건만 날씨는 유난히 맑고 잔풍 하였다.

수길은 아침에 일어나자바람으로 산등성이를 밟아 올라갔다. 첫봄의 황금빛해별이 원근산천에 우렁이 서리운 푸른 하늘을 훨훨 날아보고 싶도록 맘이 들뜨는 산뜻한 아침이 었다.

이 거리 북쪽에 완연히 뻗은 느릿한 산세가 C 강가에 다하는 곳, 거기서 산은 갑자기 잔주름을

잡으며 우로 오똑한 봉우리를 개여올리고 아래로 잘게 잘게 물결지어 내려가며 수많은 등성이와 구릉과 골짜기를 이루어놓고 있다.

높은 봉만 나무없이 홀랑 벗겨져 고깔 쓴것 같고 그 아래는 일면으로 나무가 들어 서있는 아래 기슭에 교회당이며 교회병원이며 교회학교며 하는 희고 붉은 우중충한 건물들이 띠엄띠엄 들어 앉아 있었다.

그리고 고깔봉에서 C 강을 향하여 두팔을 벌린 것처럼 내려뻗은 좌우 두줄기 산밭에 안겨 후미진 그안은 마치 소라아가리처럼 넓고 우묵하게 되어있으며 소라뿔다귀 같은 고깔봉의 아래기슭 수림속에 선교사의 현저력이 그윽히 들여다보이고 그 집 좌우등성의 소나무숲을 구별도리로 하고 일단 낮게 사과나무, 배나무, 복숭아나무들이 줄지어 들어 서있었다.

잘 다스려진 사과나무는 겨울에도 줄기에 푸르 무례한 자주빛이 보이고 더우기 선교사네 집 서편구석에 수독이 들어선 살구나무들은 한무더기로 열려서 어느새 웃는 연분홍 살구꽃빛을 편상케 하는 뽕안 빛갈을 자아내고 있다.

그것을 쳐다보며 땅에 어리는 황금빛봄별을 밟을 때 수길이는 자귀자귀 견딜수 없이 기쁘기만 하여 함부로 뛰놀고싶었다.

수길은 뒤편우리에서 내려와 조밥을 가래질하듯 퍼넣으며 흘리며 대강 설때리고나서 고무공을 가지고 총총히 아래동네 아이들을 찾아갔다. 그리하여 이날도 종일 아이들과 공차기를 하고 놀았다. 그 동안에 아이들은 공을 차고 받고 지르는 숨씨들이 많이 늘었다. 중학생들이 빨차는것을 흉내내며 판에는 아주 거들먹지게 차는 아이도 있었다.

공을 발끝으로 슬슬 물고차는 아이도 있었고 옆에 섰다가 모로 뛰어들며 그것을 빼앗아 판 방향으로 굴리며 달리는 아이도 있었다. 한 아이는 요전에 중학교학생들이 하는걸 본 일이 있어서 날아오는 공을 머리로 받아넘기려다가 곁에 아이와 어깨를 맞부딪고 그만 둘이 다 그 자리에 나동그라졌다. 그래 공이 그 아이들뒤에 떨어지는것을 쫓아 수길이는 너무 성급히 뛰다가 그만 발목을 비끄떠리고 앙금질하듯 그 다리를 안고 돌아갔다. 그래도 수길이는 《나도 구두만 신으문사...》하고 거면 딱지가 들어왔은 까마귀발을 설설 문지르며 흰소리였다. 정말 구두만 있으면 선교사네 2층이라도 넉넉히 차넘길것 같았다.

수길이가 간신히 일어나서 절름발로 다시 공을 차려던 순간에 누가 뛰어들며 공을 덥석 잡아쥐고 소리질렀다.

《누가 이 공을 훔쳤느냐?》하고 그놈은 노라발간 족제비눈깔로 아이들을 하찮게 쬈보았다.

그것은 선교사의 아들 시몬이었다.

그러나 아무 아이도 말이 없고 다만 한두 아이가 무심 곁에 수길이를 바라보았을뿐이다.

그 순간에 시몬의 억센 손이 술개미발처럼 수길의 덜미를 덥석 그러쥐었다. 단박에 수길의 목이 자라목처럼 움츠러들었다.

그 순간 시몬의 한주먹이 수길의 턱아래에 번

쩍하며 딱소리와 함께 수길이는 공중제비로 땅바닥에 머리를 쳐박고 나딩굴었다. 수길의 머리가 땅에 부딪는 반발로 조금 들먹하는것을 시몬의 구두발이 확 내려 밟자 수길의 두발길이 바들바들 떨렸다. 수길 어머니가 매일같이 짜올리는 우유에 기름살이 오른 시몬의 넘치는 혈기가 굶주린 수길이를 단절에 까무러치게 하였다. 그러자 시몬은 서슬이 도도해서 다른 아이들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아이들은 그만 간이 쿵알만 해서-그러나 수길의 일이 걱정되어 뒤를 훌끔훌끔 돌파보며 뿔뿔이 달아뻤다.

조선땅에서 누가 그들에게 준 권리인지는 몰라도 조선아이들은 열다섯살에 난 시몬에게도 감히 범접해서는 안된다는 선입견이 박혀서 산산이 도망치고만것이다.

시몬은 한손에 공을 들고 메뚜기다리 같은 긴 다리를 휘청거리며 유유히 제 집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러다가 《시몬!》하고 부르는 소리에 그 높은 흠칫놀래듯 그편을 바라보다가 《아버지!》하고 달려갔다.

교회에 볼 일이 있어 내려갔던 선교사는 집으로 돌아오는 언덕길에서 이제까지의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앞으로 달려려는 부르독의 고삐를 당기며 잠시 멈춰섰다.

《그게 뭐냐?》

《공이에요. 내 공을 저 외양간집 도적놈이 훔쳐갔어요.》

《훔쳤어?》

《그래서 뺏아와요.》

《그래 조선애들이 차고 만지던걸... 에이, 더러워.어서 저기 내버려. 전염병균이 묻었는지 누가 아느냐.》

선교사는 아들이 공을 광가치는것을 바라보다가 다시 《시몬...》하고 기도할 때처럼 엄숙한 목소리로 불렀다.

《도적은 하느님이 벌을 주어. 우리 미국사람은 더러운 자에게 신성한 손을 대서는 안돼. 알았어.》

《그렇지만 아버지! 미국사람은 흑인을 때려죽일 권리가 있지 않아요. 하느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용서해주었거든요.》

《흑인은 하느님의 자식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럼 조선사람은 하느님의 자식인가요?》

여기서 선교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선사람도 더러운 하느님자식들이 있어. 리목사, 김목사, 안장로...》

《그건 정말 하느님아들인가요?》

《아들이 되겠다고 맹세했고 또 하느님이 용서했으니깐... 그리고 하느님은 워낙 자식이 썩 많으니깐...》

《그렇지만 도적놈은 하느님아들이 될수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흑인과 같지요.》

《도적은... 개가 있어. 개가 물어죽여. 여기 있지않아. 김둥이는 흰 손으로 때리지 않고 몽둥이로 때려야 하는걸 알지 않아.》하고 선교사는 부르독고삐를 늦추며 다시 걷기 시작하였다.

선교사부자가 안침진 수림속 처택으로 들어가 버릴때까지 수길은 아무의 보살핌도 받음이 없이 까무러친대로 땅바닥에 코를 박고 있었다. 그의 코앞에는 선지피가 엉키여있었다.

조금뒤에 계득이와 장수가 함께 비슬비슬 가까이 가보았으나 피흐르는 수길이를 건드릴 엄두를 못내고 집으로 달려 들어갔다.

그러자 이내 계득 어머니가 달려나왔다. 계득 어머니 역시 과부로 수길 어머니와 속주고 통정하는 사이였다.

그는 코앞에 피가 엉킨 수길이를 보자 자기의 외아들 계득이를 생각하며 분명 제 육신 맨 깊은 곳이 화침에 찔리는것을 느꼈다.

(아! 무서운 놈들이구나. 이 화단이 계득에게로 미치는 날이 있지 않을까.)

이런 공포와 애처로움이 함께 왔다. 계득 어머니는 수길이를 꼭 껴안아들고 자기 집으로 들어갔다. 들어 가서 땡수에 수건을 짜가지고 수길의 코를 닦고 이마를 식혀주었다. 수길의 몸은 불덩이같았다. 동가슴이 병아리 심장처럼 팔딱팔딱 뛰는것이 손끝에 알려졌다.

계득 어머니는 별안간 불길한 생각이 들어서 포대기에 수길이를 꼭 싸업고 대숨에 수길이네 집으로 달려갔다. 요행 최령감이 과수를 가꾸고 있어서 그는 곧바로 선교사네 구내안에 들어설수 있었다.

《왜놈들만 사람을 죽이는줄 알았더니 미국놈도...》

계득 어머니는 입속으로 이렇게 뇌까리면서도 입밖에는 차마 내지 못하고 그저 혼자 혀만 끌끌 차며 달렸다.

《이래저래 죽다가 남은 조선사람 씨명이나 남을라구.》

계득 어머니는 이 험한 세상에서 자기의 외아들을 키워갈 일이 기나긴 그믐밤같이 까마득하게 생각되었다. 그러면서도 계득 어머니는 속으로 빌었다.

《죽지 말아. 죽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살아라. 그렇게 천지가 천년만년 무심하겠느냐.》

3

수길 어머니는 아무리 생각해도 분통이 터져 견딜수 없었다. 수길이 학교 들일 청탁만 아니면 벌써 뛰여 올라가 떡살을 잡고 늘어졌을것이나 아직 마을 한편에 《그래도 흑시》하는 희망이 있어서 여직껏 바재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젠 좀 더 참을수가 없었다.

수길이가 살아야 학교도 있는것이다. 그런데 천금맞잡이 수길이를 눈 깜박할 사이에 이 지경을 만들어 놓았으니 낸들 살아 무엇하랴. 죽던살던 요정을 내리라고 수길 어머니는 그 으리으리한 선교사네 집으로 오늘은 다리꼬임도 모르고 대숨에 올려달렸다. 바위돌이라도 꼭 받아보고 싶도록 가슴은 설설 끓어번졌다. 그러나 그리면서도 일면에는 (설마한들 죽기야.)하는 생각도 또는 (어찌 하든지 살려야지.)하는 욕심도 있어서 그의 날치는 복수심이 얼마큼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선교사네 무거운 방문을 뚝 열어제끼는 바람에 수길 어머니의 말문도 사납게 터져나갔다.

《내 아들은 죽소다.》

그러자 선교사는 새잎에 눈을 질린 짐승처럼 우멍눈을 습벅거리며 앞을 막듯 한손을 번쩍 쳐 들고 위풍을 돋구려하였다.

《어어.》

《당신 아들때매 내 아들은 죽게 됐소다. 당신 아들을 내놓소다.》

수길 어머니의 두팔은 부들부들 떨렸다.

《어어, 이게 무슨 소리요.》

《제 자식 귀하기는 마찬가지요. 똥물에 던진 고 무공을 집었다기로 사람을 쳐죽이는 법 우리 조선엔 없소다.》

《어어- 당신 마귀들었소. 저리 가시오.》

《마귀? 생사람 잡는것이 마귀지 누가 마귀요. 어서 썩 그놈을 내놓으란 말이요. 백정놈을...》

악에 받친 수길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먹살을 질린듯 선교사는 턱주자리를 뒤로 히끈 당기며 얼음에 자빠진 소년같은 두눈을 습벅거리고 있었다.

그럴만치 선교사 부인이 달려 들어왔다. 본시 여우같이 간특한 계집인데 더욱 무섭결에 그 본성이 발에 밟힌 먹자구 눈깔처럼 불끈 얼굴에 내비치며 《형님... 조선형님! 이거 무슨 일이요.》하고 상냥한 얼굴로 《형님》을 개여올리며 그 똥똥한 몸으로 선교사를 막아주며 수길 어머니앞에 나섰다.

《그래 여태 몰라서 묻소? 당신 아들과 물어보시오. 하느님자식들은 다 그런 법이요? 내 아들은 맞아 죽게 됐소. 당신 아들한테 맞아죽게 똥단 말이요.》

《아, 그런 일 없소. 거짓말하는 사람 벌받소. 이 집은 하느님의 집이요.》

《거짓말? 누가 거짓말하는거요? 동네공판에 붙여 봅시다.》

《우리 그 사람들 상관 없소. 우리 시몬 하느님 아들이요.》

《하느님아들은 사람 잡는 법이요? 어서 내놓소. 사람 잡는 놈을 내놓으란 말이요.》

《아, 형님! 당신 아들 벌받소.》하고 선교사 부인은 구미호 같은 가름한 눈을 사르르 내리깔며 《조선형님, 내려가보요. 하느님께 우리 당신 아들 기도 드리겠소. 떠들면 당신 아들 해롭소.》하고 선교사 부인은 수길 어머니의 독오른 얼굴에 질린듯 떨리는 목소리로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곳 마귀 내 주의 보혈을 더럽히려 하옵나이다. ...》하고 기도를 올리다가 수길 어머니가 안간힘 주는 바람에 흠칫하며 말을 끊고 장끼에 놀란 새처럼 눈만 깜짝거리고 있었다.

수길 어머니의 눈에는 문득 까무러쳐 늘어진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동침을 질러도 피 한방울 없을 목석 같은 이 년놈들과 맞서 있는 사이에 수길이의 생명이 아삭바삭 깎여 들어가는것만 같았다.

그리고 또 그는 그 순간에 구차하나 서로 통정

할수있는 이웃들을 생각하였다. 더욱 동건이가 아닌 밤중의 불빛처럼 눈앞에 선히 떠왔다.

《어디 보자구. 내게도 사람이 있소. 조선사람 다 죽은줄 아오.》

수길 어머니는 그들을 향해 시선끝에 불찌를 담아붓고 돌아서 나오다가 아무래도 분이 치밀어서 《내 아들만 잘못돼 봐라. 네 아들 잘 살라구가만 들줄 아니.》하고 불끈 권 두주먹을 뒤로 채치며 머리를 번쩍들고 종종걸음으로 걸어나갔다.

수길 어머니는 집에 들러 수길이의 머리와 몸을 두루 만져보고 선발로 동건이를 찾아갔다. 동건이는 마침 주근을 마치고 돌아와 있었고 그의 늙은 어머니와 어린 누이동생도 반색하며 맞았다.

그러나 수길 어머니는 인사말할 경향도 없이 《아니, 우리 수길은 맞아서 죽게 됐소다.》하고 하소부터 터쳤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글쎄 사람이 살다가 이런 변도 있소.》

수길 어머니는 울음섞인 소리로 사정을 대강 말하고나서 《선생, 좀 가봅시다. 내사 어디 하늘에도 땅에도 말할 곳이 있소.》하고 애원하였다.

《네, 가봅시다.》

그리하여 두사람은 총총히 그 집을 나서 부리나케 걸어갔다.

동건이는 파수원입구에 이르렀을 때 선교사네 집 발코니에서 선교사 부인이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것을 언뜻 보았다. 선교사 부인도 이편을 보았는지 끼웃거리며 한동안 뻔히 내려다보더니 다시 실내로 들어가버렸다.

동건이는 수길이네 집에 이르러 방에 들어서며 수길의 머리와 몸을 두루 어루만져보았다. 코앞에 피흔적이 조금 남아있을뿐으로 외상은 없으나 울기오르고 지쳐 나부라진몸이 필시 내출혈인것 같았다.

동건은 한참 잠자코 내려다 보고만 있었다. 아무 말도 나가지지 않았다. 가슴 막히는 일이었다. 절대로 다시 보기를 원치 않는 광경이 여기 또 하나 텅굴고 있는것이다. 그것은 자기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전연 생각하지 않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하는 자들만이 저지룰수 있는 일이었다.

《조선사람이기때문에 그럴수 있단 말인가. 조선사람은 언제나 남에게 죽음을 강요받아야 한단 말인가. 대체 누가 그들에게 이런 권리를 주었던 말인가.》

생각할수록 결창이 터지는 일이었다. 조선사람 하나쯤 죽었대야 무슨 일이 있으랴 하는 이자들은 제 마음대로 조선사람앞에 칼도마를 들이대고 있는것이다.

《죽일놈들!》

동건은 무중 입으로 튀어나오는 말을 입속에서 우무리고 수길 어머니에게 말을 돌렸다.

《집에 두기보다 병원에 입원시켜야겠는데요.》

《입원이요?》

《네, 그래 지금 생각중인데... 나 아는 의사가 한사람 있어요. 아마 또 그리로 가보는수밖에 없

습니다.》

《그러문사 여복 좋겠소.》

《그런데 그 선생에게 하도 여러번 폐를 끼쳐서
... 또 그뿐 아니고 그 선생은 우리들때에 경찰에
불들려도 다니고 죽을 줄경까지 쳐서...》

동건이가 생각하고 있는 류의사는 본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예이제없이 구차한 환자들 하정을
알아주고 아주 할 길 없는 환자는 돈 안받고 보
아줄뿐 아니라 지하에 숨어다니는 몇사람을 무료
로 치료해준 일이 있어 경찰서에 불려가 문초받
은 일도 한두번이 아니었다.

동건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가 밖
에서 찾는 기척이 들리더니 뒤이어 《조선형님!》 하
는 귀 서툰 소리와 함께 문이 삐걱 열렸다. 선교
사 부인이었다.

감기고꼰도 남 안주던 선교사 부인이 한손에
속이 환히 들여다보이는 유지에 쓴 파자봉지를
보라는듯이 추켜들고 한손에는 하이얀 손수건을
펴서 코를 막 싸쥐고 귀퀴한 냄새나는 방안으로
마지못해 들어섰다.

《형님, 나 기도드리러 왔습네다.》

아까보다 한결 고분고분한 말씨다.

《기도요?》

수길 어머니에게는 선교사 부인의 말이 바람
같이 잡을수 없었다.

《네, 하느님은... 모든 사람 다 구원해주십
네다.》 하며 선교사 부인은 파자봉지를 수길 어
머니에게 맡기려다가 그 서술에 질린듯 살며시 수
길의 머리맡에 내려놓았다.

선교사 부인은 아까 발코니에서 수길의 집으로
웬사나이가 들어가는것을 보고 어심에 마치는
데가 있어서 남편에게 이것을 알렸다. 한즉 선교
사도 어쩐지 그것이 께름해서 동정을 살필겸 안
해를 내려보냈던것이다.

그들에게는 조선사람이란 맘놓을수 없는 존
재였다. 일제확정아래에서 그놈들 란도질에 토
막토막 잘리면서도 그 토막토막이 그래도 꿈
틀거리고 있는것이다.

기미년(1919년) 만세때만 해도 왜놈의 군
인과 기마순사들이 거리를 피로 물들이고 소
방대들까지 불끄는 도비구찌(조개)로 사
랑대가리를 불집히 치듯 쫓아 당기었던
조선사람들의 성난 행렬은 몇을 줄 몰랐다.

행렬의 앞장을 선 기수가 군도에 맞아 관
자노리에서 피가 철철 흐르는것을 그뒤에 사
람이 제 두루마기를 찢어 싸매주고 군중은
손을 맞잡아 각지결이를 지는 다음 그우에
기수를 올려앉히고 총창을 꾸지르며 나
갔다. 기마순사의 말이 쇠꼬챙이에
뒤혀벅다리를 찢려 남의 관장을 찢르고
도 망갔고 순사놈들은 노한 물결에 떠다
박질려 개천에서 헤엄치고 다녔다.

밖에 사람들뿐이 아니었다. 사전에 정
찰서에 검거되었던 학생, 시민들도 민
족적약속을 지켜 바깥과 같은 시간에
경찰서 유도장과 류치장안에서 만세를
불렀다. 그 선두에는 중학생들이 섰다.
교회중학교 학생들도 그중에 섞여있었다.

유도장에서 밤을 새워가며 경찰놈에게
혹독한

문초를 받던 학생들중의 한사람이 나
는듯 탁자에 뛰어올라 가슴에서 기
발을 꺼내 흔들며 만세를 높게 웨치
자 그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시에 고
함쳐 일어났고 동시에 여러 취조실과
류치장에 갇혀있던 사람들마저 이
에 호응하여 기와골이 찢렁찌렁 울
리도록 만세를 불렀던것이다.

경찰서장놈과 헌병대장놈이 칼자
루로 만세소리와 함께 밀림처럼 치
솟는 손들을 후려갈기고 순사놈들이
총대를 휘두르고 유도쟁이놈들이 사
람들을 존명태 치듯 뺏아쳐 많은 사
람들이 피가 터지고 팔다리가 부러
졌으나 만세소리는 좀체 멎을 줄 모
랐다. 놈들에게 덜미를 박질려 한
눈깔이 빠진 한 학생은 손으로 그
것을 되밀어 넣으며 만세를 불렀다.

경찰은 많은 사람을 감옥으로 넘
기고 거리에서 탁치는대로 사람들
을 비웃처럼 엮어다가 소방대 무
자위두는 고간속에서 불기를 쳐서
내쫓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것으로 일은 끝나지
않았다. 조선사람은 결코 항복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1년 몇개월만이었다. 그
때 이 사건으로 감옥에서 옥사한
교회중학교 학생의 장례식이 있었
는데 그 상여뒤에는 광목필이 두
줄로 길게 달려있어 거기 학생들이
주렁주렁 매달리고 시민들도 그
뒤에 따라서나갔다.

교통을 방해한다는 구실로 순사
들이 그들을 해산시키려 하였으나
사람들은 끊어졌다 잇기고 헤어
졌다 또 줄달리곤하였다.

선교사는 이날도 발코니에서 C
강 긴 다리를 행렬지어 나가는 이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러며 선교사는 속으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미개한 사람들
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러면
서도 결으로는 《조선사람 참 용
감하오. 나는 기미년에 조선형제
위해 일본경찰서에 가서 항의했
소. 나는 이렇게 말 했소-조선사
람 머리 불붙지 않소. 그런데 소
방대가 쪼개로 사람머리 불을 끄
고 있소...》

선교사는 이런 말로 조선사람의
호감을 사려하였다. 조선사람이란
알수 없는 존재인데 또 지독히 무
서운 존재이기도 하였다. 자기에게
별로 무어라고 하는것은 아닌데
잘 구슬리지 않다가는 무슨 변을
당할것 같은 생각이 선교사의 머
리에 서 떠나지 않았다.

사실 조선사회는 언제나 조용한
날이 없었다. 갈수록 풍세는 높아
지고 넓어지는것 같았다. 그리고
두만강을 넘나드는 바람이 더욱
거세여졌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
이 불거질지 몰랐다.

사실 사나운 바람은 몇을 날이
없이 줄창 내리 계속되고 있었다.

그런데 또 선교사 부치는 수길
아버지가 감옥에 오래 있다가 옥
사한 사람이라는것을 알고 있는
터이다. 그것이 선교사 부처에게
는 어쩐지 몹시 께름하였다.

선교사 부인은 수길 어머니와 동
건이를-그들의 몸과 손을 한번
흘끗 결눈질해보고 그들의 손에
쟁기 같은것이 쥐여있지 않는것
을 확인한 다음-같은듯 만듯
눈을 지그시 내리깔고 기도를
시작

하였다.

《전지전능하옵시고 거룩하옵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도 정하옵니다. 어지러운 마귀 항상 질병과 재난을 뿌리고 있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고 죄 많은 어린 양 어두워 길건기 곤난하오니 불밝혀 도와주시옵기 간절히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어머니는 무슨 소린지 알지 못했으나 《죄많은 어린 양》이란 말이 몹시 귀에 거슬렸다. 자기들은 결코 남에게 죄 지은 일이 없고 있다면 그것은 곧 선교사의 아들일것이다.

그런데 지금 수길이가 누워있는것이 마치 수길의 죄값인것처럼 덤터기 씌우려는것이다. 그뿐 아니라 떨어지는 벼락을 보는것처럼 바쁜 이 시간에 알지도 못할 허튼 소리를 길게 늘어 뱉아서 어머니는 고스란히 동건이더러 류선생 병원으로 가보아달랄 생각만 간절하여 목에 걸린 가래를 뚫으며 《선생!》하고 나지막하게 불렀다. 그 바람에 선교사 부인은 흠칫 놀라며 부지중 결눈을 팔았다. 그 순간 수길 어머니와 동건의 시선이 번쩍하며 마주치는것이 선교사 부인의 눈에 얼른하였다. 그것은 비수같이 번쩍하며 마치 무슨 무언의 약속을 주고 받는것 같았다.

선교사 부인은 별안간 왕성한 환상에 사로잡혔다.

쇠마치, 식칼 그리고 외양간에 있는 삽, 쇠스랑과 창고에 있는 곡괭이... 그리고 이것을 들고 덤벼드는 수길 어머니와 동건이... 이런것이 지긋이 눈앞에 서물거리 어느덧 생각과 말이 혼선되려 하였다.

《하느님아버지시여! 오늘밤부터 앞뒤문에...》 하다가 선교사 부인은 제김에 놀라 말을 끊었다. 오늘밤부터 자기 집 앞뒤문에 사나운 개를 지켜서 해 하리라는 생각을 자칫하더면 그대로 기도에 올려버릴뻔했던것이다.

선교사 부인은 다시 정신을 가다듬어가지고 기도를 계속하였다.

《만복의 구원 하느님아버지시여! 이 어린 양을 굵어 살피사 하늘처럼 높으신 은혜로 안아주시고 일으켜 주시옵기 간절히 간절히 비읍니다...》

그러나 벌써 수길 어머니에게는 그 소리가 전혀 귀에 들려오지 않았다. 그는 동건이를 향하여 중얼거리듯 말하였다.

《선생! 이 애를 어서 입원시켜야겠는데... 이러다가는...》

수길 어머니는 말을 맺지 못하고 뛰는 가슴을 손으로 눌렀다.

《네, 이제 내려가보겠습니다. 입원실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때 쵸보겠는데...》

그러며 동건이가 나가자 선교사 부인은 또 흠칫하며 이제 《아-멘.》하고 기도를 끊었다.

만일 수길이가 오늘밤에라도 죽어서 조선의사가 와서 해부하게 된다면지는 또는 곧 죽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선사람병원에 입원하게 된다면 말썽이 시끄러워질는지 모른다고 선교사 부인은 생각하였다.

《조선형님, 안심하십시오. 이제 곧 낫습네다. 좋은

약도 있고 의사도 있소.》

선교사 부인은 우선 이렇게 안심시켜놓고 이어서 《이 방이 청결하지 못하오. 환자에게 좋지 못하오. 병원에 입원시키는것이 좋소.》

《그래서 지금...》

《아니, 우리 교회병원이 제일 좋소. 아주 비싼 약 많이 있소. 우리 미국에만 있는 약이요. 다 죽는 사람도 살아날수 있소.》

수길 어머니는 그 말에 맘이 깜빡 누그러질사 하였다.

《내가 병원에 말하겠소. 그럼 돈 안받고 보아주오.》

《그럼사 얼마나...》

《우리모두 하느님자식이요. 다 같은 형제요. 서로 사랑해야 하오.》

구미호같은 선교사 부인은 자기의 구슬림이 외척없이 수길 어머니의 마음을 불들어놓것을 보자 그 방을 나가 불에 쫓긴 거위처럼 군살이 처져 늘어진 궁둥이를 비뚜덩거리며 곧바로 교회병원으로 올라갔다.

그는 바로 원장실로 들어갔다. 그리하여 원장 맥부인과 대강한 사정을 이야기하고나서 《절대로 타박상으로 그런것이 아니고 다른 병으로 그렇다고 해야 하오. 그러니까 다른 의사에게 보이지 말고 당신이 직접 보아야 하오.》하고 타일렀다.

《알았습니다.》

《그러니 먼저 응급주사를 놓아서 하루이를 그렇게 지난 다음에 이것은 다른 무슨 열병이라고 하란 말이요. 그래야 죽더라도 문제될 건지가 없소.》

《념려마세요. 여기 들어만 오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어서 환자운반차를 보내시오.》

그래서 수길은 그날 석양에 생래 처음으로 복식복식한 병원침대에 누워보게 되었으나 그는 여전히 의식을 잃고 있었다. 그러나 졸지에 새까만 세상이 들이던친 수길이 모자와는 달리 이날 밤 선교사는 하느님 은혜에 감사를 올리며 늙은 부인을 마치 젊은 신부처럼 힘있게 껴안고 감탄하였다.

《하느님은 당신에게 지혜를 특히 많이 주셨소. 우리는 은혜받은 미국사람들이요.》

그들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도 아닌보살하고 살수있는 그들의 《밝은 세상》을 노래하며 이날 밤 식탁으로 나아갔다.

4

그날 밤 수길은 주사덕으로 의식을 회복하였다. 그는 몹시 배가 출출했던탓으로 병원에서 주는 흰죽 한사발을 거의다 먹었다. 그리고 또 달고 시원한것이 먹고싶다 하여 어머니는 계득 어머니에게 가서 돈을 꺾가지고 거리에 내려가 파이내를 한통을 사다주었다.

《어서 나사만 나라. 먹구실은거 다 사주께.》

《돈이 있나 뭐. 안 먹구실어.》

《애, 아무리 돈이 없기로 너 먹구픈걸 못사주겠니.》

수길 어머니는 감옥에서 배굶아 죽은 남편을 생각할 때마다 수길이란 어찌하든지 허리띠를 끌러놓고 살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지금 생각해도 남편 같은 고집불통은 없었다. 처음 감옥에 들어갔을 때 면회를 가서 사식을 차입하겠다고 한즉 남편은 화를 버럭 내면서 그따위 걱정말고 수길이나 잘 기르라고 꾸지람이었다.

그때 사식 한끼에 50전이니까 아무리 치마두른 녀인일지라도 하루 한끼는 뉘 수 있었고 또 남편 집 안해들도 모두 그렇게 했는데 남편은 배가죽이 등에 가붙으면서도 종시 오근 귀를 펼줄 몰랐다. 그것이 모두 아들 수길이라든가 또는 자기를 위해 서인것을 모른바이나 막상 남편이 죽고보니 영원히 맺혀 풀리지 않는 한이었다. 무어니 무어니 해도 세상에 귀한것은 역시 사람이었다. 그러니만큼 어머니는 이제 오직 하나인 외아들 수길을 잘 기쁨으로써 그 한을 푸는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어머니, 몇밤 자문 학교 가니?》

수길이가 별안간 그런 소리를 물었다.

《아직 서른밤도 더 있어.》

《서른밤?》

수길은 손가락을 꼽아가며 서른을 세고 내쳐 백까지 세었다.

《너 학교 들어갈 걱정은 없어. 교회학교는 가난한 아이들을 더 잘 받는다더라.》

수길 어머니는 말만은 이렇게 외워보나 요새 세상이 그리스도교라고 탄 바람 불리 없는것을 잘 알고 있어서 속으로는 여전히 원새끼를 꼬고 있었다.

《학교 들어가몬 꼭 일등먹을테야.》

《일등먹고말구. 수길이란한 아이가 어디 있나.》

이런 이야기에 밤드는줄도 몰랐다. 그러나 밤중부터 수길이는 또다시 머리가 쭈신다고 하더니 피로움에 못견디어 이까지 빠득빠득 갈다가 그만 지치고 기진하여 또 혼수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얼마뒤에 간호부가 들어와서 기운이 들어다보고 그저 《이제 잠이 들었으니 깨우지 마시오.》 하고 나가버렸다.

어머니는 눈 한번 붙이지 못하고 꼬바기 수길을 지키고 있었다. 수길이는 몹시 피로와하는 몸골이 험동하였다. 얼굴이 잔뜩 질리고 이따금 안면근육과 입술이 발발 떨리는것이 아무려나 심상치 않았다.

수길 어머니는 별안간 저도 모르게 제 가슴에 손을 대었다. 명문이 찌쪽찌쪽하며 뼈와 살짬으로 화침을 찌르는듯한 아픔이 주욱 흘러갔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아픔이라는것보다 바로 수길의 아픔이었다.

어머니는 수길의 머리에 살며시 손을 얹었다. 그러며 그는 자기의 살속에 따끔한 쭈심을 느꼈다. 그는 자기의 살이 지금 수길의 아픔을 뽑아내는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어머니는 한손으로 수길의 이마를 짚고 한손으로 그의 뒤통을 감싸쥐며 속으로 부르짖었다.

《나는 얼마를 아파도 좋다. 너만 살아다구.》

그러다가 어머니는 다시 자기의 이마를 수길의

뺨에 대고 소꿉이 었드렸다.

그리고 눈을 지그시 감으며 무엇에게 빌듯이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내 아픈것이야 무엇이오리까.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죽어 수길이가 산다문 나는 지금이라도 기쁘게 가겠습니다.》

어느덧 어머니의 눈에는 방울방울 이슬이 맺혔다.

그 이튿날 아침 회진시간에 녀의사는 수길에게 또 주사 두대를 놓았다.

그 보람인지 수길이는 얼마뒤에 다시 의식을 회복하였다. 그러나 몸은 지쳐 나부라지고 얼굴은 또렷또렷한 기색이 없이 흐리멍텅하였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어머니는 우선 기뻐했다. 수길의 눈이 다시 띄어질 때 어머니는 캄캄한 덧문을 활짝 열어제끼고 아침해발을 받아들이는것 같았다.

《수길아, 나 누구지?》

《알아.》

《사과줄가?》

《안먹구싫어.》

수길 어머니는 순간 영락없이 그 애비에 그 아들이라고 생각하였다.

작년에 수길이는 눈병으로 병원에 간 일이 있는데 그때 어머니의 훌쩍한 주머니를 본 수길이는 그 담날부터는 기어이 안 간다고 우기고 병원에서 시키던대로 불독을 달구어가지고 재 손으로 눈찜질을 하고 있었다. 수길의 아버지도 죽는 날까지 제 고집을 굽힌 일이 없었다.

《사람이사 억대우갈지만 왜놈들은 그이를 죽이지 않았는가.》

수길 어머니는 이가 갈렸다. 그런데 또 그이의 뒤를 이을 수길을 주먹이 물어떨어질 미국 노랑불개미새끼가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은것이다.

생각만 해도 수길 어머니는 앞이 희감해지고 귀가 멍멍해졌다.

그에게는 벌써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다.

총검도 대포소리도 꿈에 넷들이었다. 제 몸은 모진 탄알인것 같았다. 그것은 아무속에서라도 불벼락이 되어 탁 터질수 있을것 같았다.

《어느놈이 내 아들들... 안된다. 내 아들은 죽이지 못한다.》

수길 어머니는 혼자 웅크로나 어디서 《그렇소.》 하고 그 소리에 대답하는 소리가 어슴푸레 들려오는것 같았다. 그것은 바로 수길 아버지의 소린지도 모른다고 어머니는 생각하였다.

수길 어머니는 문득 지난날의 한가지 기억을 더듬었다. 그것은 남편이 아직 감옥에 있던 때였다. 하루는 수길 어머니가 선교사네 빨래를 하고 있는데 수길이가 현관 저편 등나무아래에 앉아서 무엇인가 하고 있었다.

수길 어머니는 그저 무슨 장난을 하고 있거니 생각했다. 그런데 오래도록 한자리에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있어서 수길 어머니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빨래 첫물을 빨아놓고 가만히 걸어서

그뒤에 가보았다. 한즉 수길이는 선교사네 구두를 닦고 있었다. 분명 시몬의 구두도 거기 섞여있었다. 수길 어머니는 대뜸 눈에서 모닥불이 일었다. 제 일을 도와주려는 수길의 동심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수길아, 너 거기서 무얼 하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아니야.》 하고 수길은 닦던 구두를 뒤로 돌리며 시치미를 뻘뻘했다.

《이 새끼, 널더러 그런 일 하라던!》

《안야... 일 안해.》

《난 남의 심부름한다만 넌 아버지 아들이야. 널더러 그런 일 하라더냐. 이 망할 놈의 새끼 그렇게 종노릇하고싶으냐.》

《안야, 어머니...》

《이 새끼 더럽다. 썩 내던지지 못해.》 하고 수길 어머니는 수길이가 뒤에 돌려주고 있는 시몬의 구두를 빼앗아 땅에 내동댕이쳤다.

《안야, 안할래.》

사실 수길은 어머니의 구두닦는 일만이라도 덜어주려고 한 것이었다.

《이 새끼야, 내가 남의 일 해주는것만 해도 원통하다는데 너까지 종노릇할게 무어냐. 썩 가서 놀아라. 아버지가 보았으면 넌 맞아죽어.》

그렇게 욕하고 어머니는 구두를 걸어다가 현관 안에 팽개치듯 던져버리고 다시 나왔다.

그런데 어느날 같으면 벌써 어디로 놀라 뛰어갔을 수길이가 여태 동나무아래에 우두커니 서있었다.

《저리 가 놀아라.》

어머니는 아이들이 현관앞에서 노는것을 선교사네가 좋아하지 않는것을 알기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것이다. 그러나 수길은 여전히 가지 않고 그대로 서있었다.

수길 어머니는 수길의 바지에 흙이 묻은것을 보며 그에게로 가서 그것을 털어주고 조끼단추 빠진것을 채워 주었다.

《어머니, 아버지 언제 오니.》

《...》

《아버지 오문 우리 집으로 가자구.》

수길이가 무심히 하는 말에 수길 어머니는 그만 눈물이 콧 쏟아져서 수길을 꼭 껴안았다. 그런데 도리어 그 바람에 그만 수길 어머니는 흐느껴 울고야 배겼다.

《이내 온다. 오면 아버지랑 집으로 가자.》

《그런데 어째 어머니 우니.》

《안운다, 안울어.》

그러면서도 수길 어머니는 수길의 가슴에 얼굴을 박고 더욱 흐느꼈다.

수길 어머니는 이제금 다시 그때 일을 생각하며 《어찌하든지 수길이는 살려놓아야 한다.》 하고 부르짖었다.

수길은 그뒤에도 주사덕에 이따마금 정신을 돌렸다. 늙은녀원장은 무슨 까닭인지 꼭꼭 자기가 와서 보아 주고 다른 환자보다 주사도 자주 놓아주었다.

《제놈들 지은 죄가 있으니까.》

수길 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어쨌든 이리해서 수길이는 닳새가 넘도록 목숨이 붙어갔다. 병세는 덜리는 기미가 보이지 않으나 크게 더치는것 같지도 않았다.

그러나 수길이는 그 며칠뒤부터 이따금 잠꼬대를 하기 시작하였다.

주사를 놓고난 뒤면 잠시동안 잠꼬대를 하고 그리고나서 뼈죽이 눈을 뜨고 의식을 회복하곤 하였다.

수길 어머니는 잠꼬대라도 어쨌든 수길의 말소리를 듣는것이 짐짓 탐탁했고 그것은 정녕 주사덕이며 병이 덜리는 증상이라고 생각하였다.

수길 어머니는 어느날 밤 스텐이 꺼진 라지에 타결에 기대여 잠시 곤한 눈을 붙였다. 비몽사몽간에 그는 품에 무엇이 안긴것을 느꼈다. 분명 수길이라고 생각하며 꼭 껴안았다. 그러나 껴안고보니 그것은 차디찬 돌이었다. 불현듯 《주검!》이라는 의식이 무서운 공포와 함께 어머니의 등골을 죽 흘러갔다. 그는 그 곤경에서 벗어나려고 바둥바둥하면서도 종시 벗어나질수 없었다.

그럴판에 어디서 애처로운 부르짖음이 그를 흔들었다.

《어머니... 아, 어머니...》

수길 어머니는 소스라쳐 눈을 뗐다. 그러며 호-숨을 토하려는 순간에 다시 무서운 부르짖음이 그의 나오려던 숨을 속으로 되몰아넣어주었다.

어머니는 더욱 숨이 막히는것을 느꼈다.

《어머니! 저놈을, 저놈이 나를...》

수길 어머니는 제 가슴을 두손으로 꼭 누르고 엎어지듯 수길에게로 달려갔다. 목에서 모진 거불내가 났다. 터질듯한 숨막힘이었다.

《시몬, 시몬... 저놈이...》

《애 수길아, 수길아...》

어머니는 수길의 몸을 꼭 껴안으며 부르짖었다. 화끈하는 수길의 체온이 가슴에 안겨질 때에야 어머니의 막혔던 가슴은 조금 트이며 긴 한숨이 하아 나왔다.

그러나 그뒤 수길이는 더 잠꼬대할 기맥도 없이 파김치처럼 나부라쳐갔다. 어머니는 때로 불길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런데 그 동네 아낙네들 말이 그를 더욱 불안하게 하였다.

《그 병원에서야 교인 아닌 사람 잘 봐준답데.》 하는 말이든지 《돈 안받고 보느기 그렇지. 잘 봄 얼마나 잘보겠소.》 하는 말에 수길 어머니는 가슴이 찢렁하고 머리칼이 하늘로 쭈뼛이 일어섰다.

그런데 또 어떤 녀인은 말하기를 그 병원속내는 외인으로는 잘 알수 없으나 그 병원에 오래있다가 개업해나온 의사들을 보면 그 속관을 미루어 알수 있다고 하였다.

그 병원에 오래 있던 합의사고 로의사고 모두 약속이나 한것처럼 허름한 환자가 가면 돈이 있나, 얼마나 있나 알아본 뒤에 약을 주고 돈없는 환자는 금시 죽을 사람일지라도 다른 병원으로 가보라고 진단을 거부하고 밤에는 절대로 환자를 받지 않고 그리고 또 안속으로 탄 장사들을 한다 하였다. 그 탄 장사란 대개 고리대금업이었다. 그

들은 교인을 상대로 빗놓이하는데 만일 기한에
물지 못하게 되면 《우리 하느님아들 거짓말 없소.
하느님 벌 주오.》하고 차압이나 강제집행을 레상
사로 하며 심지어는 차고 있는 금시계까지 떼간
일이 있다 하였다.

《그러니 돈만 아는 사람들이 돈없는 사람 잘
보아줄력이 있소.》

이웃아낙네들의 결론이었다.

그리고 그 반면에 어느 병원이 잘하느니 어느
선생이 다 죽었던 사람을 살렸느니 하는 말들을
하였다.

개중에서도 류의사의 선성이 제일 높았다.

《그 선생은 좋은 약 많이 가지고 있대요. 그러
기 남이 주사 세대 놀걸 한대에 낫군다지 않소.
약값도 싸고...》

《저 아래마을 뉘집 아이가 갑자기 목이 배틀리
고 눈이 가루선걸 그 선생이 등구슬뼈에서 물을
뽑고 주사놓아 살렸답데다.》

그래서 수길 어머니는 또 동건이한테로 달려가
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라도 류선생 병원에
입원시킬수 없겠는가 물어보았다.

《글쎄, 요전에 오라고 했는데... 그런데 교회병
원에서 어쩔는지. 좌우간 내 류선생을 한번 더 만
나보고 올라 갈터이니 먼저 올라가시오.》

해서 수길 어머니는 조금 마음을 놓고 병원으
로 올라갔다.

한참 이윽히 지나서 동건이도 올라왔다. 류의사
병원에 입원시킬수 있으니 이 병원 퇴원수속을
하라는것이였다.

그래서 수길 어머니는 담당간호부를 찾아가서
그 뜻을 말하였다. 간단히 될줄 알았는데 간호부
는 원장선생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의젓한 표정
으로 말하였다.

그래서 수길 어머니는 《아니 내 자식 내 가져
가는데 어떻단 말이요.》하고 말하고 동건이도 그
러면 원장에게 곧 그 말을 전해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간호부가 원장실에 갔다오더니 정색하
며 《일단 병원에 입원시킨 담에는 아무리 부모라
도 맘대로 드내지 못한답니다.》하고 다시 더 묻
지 말라는듯이 돌아서서 주사기를 소독하기 시작
하였다.

그래서 수길 어머니와 동건이는 바로 원장실로
찾아들어갔다. 그런즉 늙은 녀원장은 의외로 상냥
한 얼굴을 지으며 《아니 퇴원시키더라도 내가 한
번 더 봐야겠소. 요전에도 말했지만 다른 증세가
발생할것 같은데... 내가 말았으니까 내게 책임이
있소. 오늘은 늦었으니 래일 오전에 다시한번 자
세히 보고 적당한 처치를 한 담에... 그러니 오늘
밤은 그대로 두시오.》 하여 수길 어머니도 맘이
적이 풀려 래일 아침을 기다리기로 하였다.

그러니만큼 수길 어머니는 이날 밤이 수길의
운명을 재촉하는 저주의 밤으로 될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5

그날 밤 선교사 부처는 맥부인의 사색을 방문
하였다.

선교사는 어떤지 이름 없는 조그만 조선의 어
린 애때문에 마음이 몹시 절박하였다. 언제 어디
서 어떻게 무슨 화단이 벌어질지 알수 없는 불안
이 매달려 떨어지지 않았던것이다.

사실 선교사는 조선에서 이름있는 사람들과 돈
과 지위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아무런 위험도 느껴
보지 못했다. 그러나 어떤지 조선사람이란 맘을
놓수 없는 존재라는 인상이 깊이 박혀있었다.

조선사람은 선교사의 보는바에 의하면 자기들
의 사회가 앞가림으로 쳐놓은 그물과 방패를, 즉
자기들의 법률이니 도덕이니 사회질서니 하는것
을 그대로 꼼꼼뵈고 다니는것이 아니고 경우에
의해서는 그것들을 단꺼번에 걷어차버리고 목적
물에로 경중 뛰어드는 사람들이였다.

선교사는 요사이의 불안이 조선의 어린이로 해
서 오는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씻어
버릴 한 방법에 대하여 원장과 상론하러 간것이
였다.

그러나 맥원장에게서 수길이는 머리의 내출혈
로 도저히 구할 길이 없다는것을 들었을 때 선교
사는 《우리는 언제나 미국인이라는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하고 말을 큰데로 돌렸다. 자기가 짓는
죄가 아주 문제거리 안되는 조그만것이라는것을
말하기 위해서 선교사는 크나큰 죄악의 화신인
미국을 들고 나설 필요를 느꼈던것이다.

《미국사람 무엇때문에 조선에서 일합니까. 무엇
때문에 조선사람에게 하느님은혜 베풀어줍니까.》

그러자 암여우가 《미국때문입니다. 미국사람때
문입니다.》하고 맞장구를 쳤다.

《그렇습니다. 미국사람 명예위해서는 조선사람
생명 고려할 필요없습니다. 하느님이 모르는 생명
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질 아무런 리유도 없습니
다.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느님이 버린 존재는 떨거지와 같습니다.》

암여우가 췌기나 치듯이 다시한번 더 조지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애를 퇴원시켜주지 않
았습니다.》

《그건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의사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진작부터 타박상이 아니라 다른 병
이 발생한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무지한것들이란 용감합니다. 밤에 그
아이를 몰래 꺼내가면 어찌합니까.》

그러자 부인이 또 입을 종긋거리며 《그렇습니
다. 도적해갈수 있습니다. 미국사람 지혜 부족합
니다. 당신은 조선사람이 돼서는 안됩니다. 무지
한 사람에게 당신이 전염돼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미국사람의 지혜와 용기와 도덕이 필요합니다.》
하고 종알종알 껴들었다.

《결단성이 있어야 합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
지 않습니다. 위험한 전염병이라고 딱 진단을 내
리고 그 자리에서 격리시켜버리란 말이요. 그리고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란 말이요.》

《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미국사람 그래야 합니다. 우리에게

는 우리의 도덕이 필요합니다. 조선사람도덕 또는 다른 아무 도덕도 필요 없습니다. 미국도덕은 세계의 도덕으로 돼야 합니다. 그래야 미국은 세계를 지배할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의사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덕을 남에게 강요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전염병이 아닌것을 세균주사를 놓아서 전염병으로 만드는것도 필요합니다.》

《미국인을 위하는것이이라면...》하고 암여우가 또 부연하였다.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원장선생!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을 또 생각해야 합니다. 가령 말입니다. 전염병을 감염시키는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전염병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시간만에 죽는것이 필요하다면 그때는 더 주저할것이 없습니다. 미국에는 좋은 주사약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병원엔 그것이 없습니까.》

《아니, 있습니다.》

《좋습니다. 꼭 있어야 합니다. 미국도덕, 미국사람을 위해서는 교회만 필요한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탄환을 주십니다. 비행기와 군함을 주십니다. 우리 선교사가 든 성경을 당신은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의사가 잡은 주사기를 당신은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

《그것은 미국과 미국인을 위한 무기입니다.》

맥부인에게서 인간 또는 의사의 양심이 돌가보아 걱정인 선교사 부인이었다.

《총을 가지고도 남의 총에 맞아죽는 사람은 어리석고 가련한 자입니다. 먼저 사용해야 합니다. 미리 예방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당신이 가진 무기는 소용없게 됩니다.》

선교사는 오금 박듯 내리먹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내 하느님을 대신해서 원장선생께 하나 물겠습니다. -전염병환자의 시체가 다른 의사, 아니 조선의사의 손에 넘어가 엄밀한 감정을 받게 된다면 그때는 어찌될가요?》

《누가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조선사람 무지합니다. 용감합니다.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일본사람의 총칼에 대해서 맨주먹으로 싸웁니다. 자기 아들의 시체를 빼앗아갈수 있습니다. 여게 있어서는 법률과 순사만을 믿는 사람보다 몇배나 용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없애버려야지요.》

너원장도 결심한듯이 단정을 지어 말하였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미국사람 현명합니다. 미국사람 세계를 지배할 날 멀지 않습니다. 나는 원장선생에게 미국사람의 영예를 드립니다.》하고 선교사는 손을 들며 잠시 기도하는 시늉을 하다가 다시 말하였다.

《그러나 땅속의 시체도 검진하면 사실이 판명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체를 그 즉시로 화장하게 하란 말이요. 그것은 의사의 권리입니다. 일본

경찰은 여기 간섭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선교사는 생각하였다. 만일 수길이를 전염병으로 죽여 매장한다 하더라도 이내 파내서 조선의사들이 검진한다고 하면 두가지 사실이 함께 탄로될것이다.

즉 시몬에게 치명적타박상을 받은 사실과 동시에 병원에서 그것을 속이기 위해서 전염병을 감염시킨 사실을 알게 될것이다. 그러니 이것은 위불없이 조선사람의 분노를 더욱 크게 할것이다.

조선사람은 언제나 이런 일은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사회적인 문제로 보아 벌떼처럼 떠돌고 일어나는것을 선교사는 여러번 보아왔다.

그 한가지 실패로 이런 일이 있었다.

한번 일제관청은 토질병(지스토타)이 있는 지방사람들에게 에메핀주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주사의 중독으로 조선사람 하나가 사망하였다. 일제관청은 위자료까지 보냈으나 이것이 곧 사회문제로 되어 한동안 벽적 고아였다. 그리고 이런 공기속에서 죽은 사람의 안해는 주사를 놓은 공의를 죽인다고 해서 공의는 종시 그곳을 도망치고 말았다. 선교사는 이 사실을 생각하고 몸서리를 쳤다. 그러나 선교사는 이내 그 생각을 몽매리듯이 《하느님아버지시여! 미국사람에게 영광을 주시옵기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멘.》하고 기도를 올렸다. 그러자 부인이 또 그뒤를 받아 보충하듯이 《맥원장선생에게 복을 베풀어주십시오. 아-멘.》하고 빌었다.

그 이튿날 아침이었다.

수길 어머니가 병원에서 집에 돌아가 아침을 지어먹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간 때는 벌써 수길이는 그 자리에 없었다.

그리고 코를 찌시는 소독수냄새만이 악물스럽게 풍기고 있었다. 수길이 결집대에 누운 특막염환자도 소독액냄새에 밀취한듯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다가 수길 어머니 들어오는 소리를 알아듣고 창백한 얼굴을 빠르게 내밀었다.

《아니 우리 수길이 어디 갔소?》

《전염병이래요. 나도 누웠다가 생벼락을 맞았소다. 윈동 야단이 났답니다.》

그때 입에 꺼랭이같이 커다란 마스크를 한 간호부와 위생복입은 사나이 하나가 쫓아들어왔다. 그들은 다짜고짜로 수길 어머니를 붙들어 세우고 고약스런 소독수를 냅다 뿌렸다. 숨이 각각막히고 코구멍이 얼얼하였다.

《여보, 우리 수길이 어디 갔소?》

수길 어머니는 느끼며 웨쳤다. 땀뻑한 소독수가 허바닥을 쭈셨다.

《우리 수길이 말이요.》

《당신 아들 전염병이요. 그래 당신도 소독하지 않소.》

《염병?》

《격리병실로 갔소.》

《그곳은 어디요?》

《거긴 가지 못하오.》

《글쎄 어디 있소?》

《못간다니까. 어서 집으로 돌아가오.》하고 그들은 뿔뿔이 나가버렸다.

수길 어머니는 아무리 해도 이해할수 없었다. 그는 간이 조여 두주먹을 불끈 쥐고 반달음질을 쳐 원장실로 쫓아 올라갔으나 마침 원장은 어디 나가고 없었다.

어디 가서 누구를 두드릴지 막연하게 된 수길 어머니는 한참 서성거리다가 하는수없이 다시 입원실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후들후들 떨리는 다리를 허정거리며 복도로 정신없이 왔다갔다 하다가 안면있는 간호부 하나를 만났다.

《여보시오, 우리 수길이 어디 있소?》

그는 애원하였다.

《수길이라니요?》하고 간호부는 잠시 수길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난듯이 《아니 저 병실에 있지 않소?》 하였다.

《아니 저 무어라든가 격리실이라나...》

《네, 네... 그리로는 못갑니다.》하고 지나쳐버리려하는것을 수길 어머니는 앞을 막아서며 《아니 좀 가르쳐주시오.》하고 소매를 잡으며 다가들었다.

《집에 가있소. 환자는 병원에서 잘 치료해줍니다. 안심하고 나가시오.》

《나를 그 애 방에 함께 있게 해주시오. 네, 부탁합니다.》

《그건 안돼요. 당신께 전염됩니다.》

《아니, 나는 염병이 아니 들어요. 들어서 죽어도 좋아요. 네, 꼭 같이 있게 해주시오. 내 머리를 베여 신을 삼아 드리리다. 네.》

《안됩니다. 경찰서에서 알문 집아가요.》하고 간호부는 다른 방으로 들어가버렸다.

병원치들은 모두 한속이라고 수길 어머니는 생각하였다. 어디 가서 누구를 잡고 하소할지 명문이 막히고 눈앞이 캄캄하였다.

수길 어머니는 하는수없이 입원실 뒤문밖에 나가 이 건물, 저 건물을 끼웃끼웃 엿보며 돌아다녔으나 어디가 어딘지 바이 알수 없었다.

그는 원장실로 들어가는 문밖에 가서 섬돌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원장이 얼씬 나타나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간이 바질바질 말라붙는 몇시간이 지나간 뒤에야 수길 어머니는 원장이 어디 갔다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려하는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미친듯 뛰여 올라가 녀원장 앞길을 막아섰다.

《원장님! 우리 수길이 어데 있소.》

그 목소리보다 그 눈은 더한층 애절하였다.

녀원장은 침은 조금 놀라는 상이었으나 이내 애절하는 눈매를 알잡아보고 위의를 둔구며 《당신 아들 전염병이요. 격리병실로 갔소.》하고 옆으로 빠져져 자기 방으로 들어가려하였으나 수길 어머니가 지남철처럼 지곳이 따라오는 바람에 다시 멈춰섰다.

《원장님! 나를 그리로 가게 해주시오 네.》

《안됩니다. 저기는 다른 사람 못 갑니다.》

《그럼 우리 수길일 내주시오.》

《안됩니다. 전염병환자 아무데도 못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시오.》

《아닙니다, 원장님!》

《비키시오.》

《원장님! 수길일 내주시오. 가져가문 꼭 낫게

하겠사와요.》

《안된다니까. 경찰서에서 알문 당신 잡아가요. 비키시오.》

《아닙니다. 내 자식 내 가져가는데 무슨...》

《글쎄 안된다니까.》

《원장님, 죽던 살던 내 손으로... 네.》

《안돼요. 경찰서에 전화할테요. 비키시오.》

《나는 죽어도 내 자식을 찾아가지고서야 가겠소다. 내 자식 주기전엔 죽어도 못가겠소다.》

《비키라니까... 여보. 거기 누구 없소.》

《안됩니다. 내가 어떻게 기른 아들이기 남의 손에 죽이겠소. 안됩니다, 안돼요.》

《비키라니까. 어서...》하며 녀원장은 발길로 차 줄듯이 몸을 솟구치며 빠져져 나갔다.

《안됩니다.》

순간 수길 어머니는 녀원장의 소매자락을 덥석 거머쥐었다.

《어마나!》

늙은 녀원장은 뺨에 든 쥐처럼 눈이 휘둥그레지며 도망치려고 바둥거렸다.

《우리 수길일 어서 내와요, 내와.》

《거기 사람 없소?》

《안되요, 안돼. 우리 수길일 어디다 빼돌렸느냐 말이요. 내와요.》

《여보, 미친 사람 왔소. 저 누구 없소?》하고 평생 독신으로 늙은 녀원장은 트일 구멍이 종시 다 트이지 못한 염소목소리 같은 비린청을 지르며 꼭두각시같은 머리를 뻘뻘 내저었다.

그의 안경이 코끝에 걸리고 한 팔소매가 어깨를 미끌어 벗어지려 하였다.

《내 자식 내가 가져가는데... 내와요, 내와.》

그때 간호부들과 소제부 하나가 달려왔다. 그들은 수길 어머니에게 달라붙어 사나이는 수길 어머니 손목을 비틀고 간호부는 손가락을 찌렀다.

그리하여 녀원장은 간신히 빠져 제 방으로 들어갈수 있었다.

수길 어머니가 소제부와 수위에게 붙잡힌채 등을 밀려 문밖으로 나가는것을 유리창밖으로 내다본 때에야 녀원장은 숨을 호- 쉬며 소독수로 손과 소매를 문질렀다.

《이 더럽과 냄새가 빠질수 있을가.》

녀원장은 수길 어머니가 잡았던 여기저기를 한 겹질 흘랑 벗도를 연신 문지르며 속으로 (꼭 오늘 밤중으로... 그리고 래일 아침 일찌기 살라버려야겠다.)고 곰곰 생각하였다.

6

수길 어머니는 병원수위 두사람에게 등을 밀려 집으로 돌아갔다. 물론 그는 돌파서서 다시 병원으로 가려면 갈수도 있었다. 그러나 야차같은 그들과 맞서보았대야 끝내 수길이를 만날것 같지 않았다.

수길 어머니는 그 물인정한것들을 상대해 말썽질하는 사이에 그들과는 정반대의 참된 인간을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로 동건을 찾아갔다.

그러나 동건은 아직 공장에서 돌아오지 않아서

수길 어머니는 선발로 다시 병원으로 쫓아갔으나 수위에게 다시 밀려나고 말았다.

수길 어머니는 병원뒤 언덕배기에 올라가서 망연히 붉은 벽돌집을 내려다 보았다. 그속 어디에 수길이가 숨소리 가랑가랑 홀로 드러누워 있을것이다.

수길 어머니는 날아다니는 새들이 부러웠다. 자기를 병원소제부로 써주었으면 맘놓고 수길의 병실로 들어갈수 있으리라는 공상이 잠시 달았다.

봄하늘은 찌프린듯 음산하고 머리우에서 전선줄이 뽁뽁 울고 있었다.

그때 웬 사람 하나가 비탈길로 올라오는것이 보였다. 병원약제사였다. 예전에 레배당에서 성경책을 끼고 나오는것을 보아하니 인품이 매우 젊잖은것 같았는데 더욱 요사이 병원에서 몇번 본일이 있었다.

수길 어머니는 바로 그를 쫓아갔다.

《선생님!》하고 두어번 부른 때에야 약제사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는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약제사는 수길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은 등만등 하다가 《미국의사들에게 맡겼으문 하느님께 맡긴것이나 일반입네다.》하고 기도식으로 설교하였다.

《아니 선생님! 하느님에게 맡기다니요!》

수길 어머니에게는 약제사의 말이 도리어 매우 불길하게 들렸다. 하느님이 아무리 좋다 한들 어찌 어미만 하라 싶었다.

《미국사람은 거짓말이 없습네다. 보십시오. 그분들은 조선서 병원을 짓고 학교를 세우고... 의사선생님이 오시고 선교사님이 오시고...》

《아니 선생님!》

수길 어머니 귀에는 그런 소리가 통 들어가지 않았다. 수길이 누워 있을 병원건물들을 바라보는 것만도 못한 소리따위였다.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이름만 조선사람이지 속은 모두 미국사람이나 다름바 없는-자기와는 아주 딴 세상사람같았다.

내려다보느니 건물들은 근감하게 많으나 어디가서 누구와 말하랴. 수길 어머니는 그래도 교인이나 미국인은 왜놈들보다 나을줄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알고보니 가재는 계편이지 자기를 보아줄 사람은 거기 있지 않았다.

수길 어머니는 바라보는 눈이 지쳐 눈물이 고이는줄도 몰랐다. 그 유착스러운 벽돌집들이 주먹만큼 줄어들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 손바닥에 올려 놓고 살살이 들여다 보았으면 거기서 반드시 수길이를 찾아 만날것 같았다.

그래서 《아, 수길아!》하고 불렀으면 당장 가슴은 열릴것이었다. 수길 어머니의 지금 심정에는 아무 다른것이 없었다. 다만 아들의 손을 잡고싶은것. 그리고 《수길아!》 불러보고 싶은것, 그것뿐이었다.

그러나 말도 할길 없고 눈에는 모닥불이 달렸건만 수길에게 비쳐줄 길이 바이 없었다.

수길 어머니는 주위를 한번 휘둘러 살펴보았다. 홀랑 벗어진 고깔붕아래의 침침히 우거진 나무숲

을 바라보니 마음은 한결 더 무거워졌다.

그러나 저 숲속에도 해발은 비치지 않는가. 속담에 쥐구멍에도 별들 날이 있다고 했는데 내게는 언제 별이 들것인가... 수길 어머니의 마음은 별을 그려 이글이글 타는것 같았다.

그럴판에 뒤흔 숲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들의 노래소리였다. 구차한 집 아이들이 땀나 무하러 해동무렵부터 산속에 들어가서 나무검불이나 락엽이나 삭정이같은것을 걷어가는것을 수길 어머니는 알고있었다.

《아! 어쩌면 남의 집 아이들은 저렇게 즐거울가.》

수길 어머니는 답답한 가슴을 주먹으로 두세번 두드렸다. 그의 발은 어느덧 그쪽으로 옮겨졌다.

남의 아이들의 얼굴이라도 보고싶었다. 남의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수길이가 어디 그 모양으로 살아있는것을 느낄수 있을것 같았다.

《남 다 사는데 어찌 내 아들인들 살아있지 않겠느냐.》

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하며 걸어가는데 점점 가까와지는 노래소리가 또 유심히 그의 마음을 그러쥐었다. 수길 어머니는 발소리를 죽이며 그 노래를 가만히 엿들었다. 언제 어디선가 들은 일이 있는 노래와 같았다.

앵무새라 말을 할가 태양이라 비칠건가
입도 귀도 다 있건만 병어리만 갈아여라
산천초목 들을지라 검은 시름 붉게 탄다
흙매듭 그 맘이야 하마나 풀릴소나

수길 어머니는 자세한 의미는 몰랐으나 몸끝 세상, 악한 놈들에 의하여 강요당하는 검고 무서운 암흑과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불처럼 붉게불게 타오르는 자기와 같은 마음들을 그 노래속에 서 읽을수 있었다.

(동건이를 만나봐야 하겠다!)하는 생각이 삽시에 불같이 솟았다.

수길 어머니는 집에 돌아갔다가 그 길로 바로 동건이를 찾아가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동건이는 어둑어둑해서 돌아왔다. 동건이는 오늘 의 자초지종을 듣고 필시 무슨 곡절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나 과연 무슨 속판인지는 역시 알길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되나 안되나 래일 석양에 공장에서 돌아오는 길로 수길 어머니와 함께 원장을 찾아가기로 약속하였다.

하루밤을 거의 뜬눈에 새운 수길 어머니는 이를날새벽녘에야 겨우 자는듯 마는듯 깜빡 눈을 불었다. 그러자 이내 꿈이 왔다. 그는 무서운 도적에게 쫓기고있었다. 도망치려 하나 달릴수가 없었다. 한참 바둥거리는데 도적이 눈앞으로 달려들었다.

그런데 별안간 누가 시퍼런 비수로 그놈을 보기 좋게 각 찢러번쳤다. 그것은 분명 남편인줄 알았는데 자세 보니가 동건이었다.

수길 어머니는 숨을 하아 쉬며 기지개를 주욱 켜다가 그만 잠이 깨었다. 잠이 깨니 까치소리가

들려왔다. 반가운 소리였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라나.》

수길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며 마음을 조렸다.

그날 오후에 웬 사나이가 수길 어머니를 찾아왔다. 수길 어머니는 어쩐지 대뜸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얼굴이 거무테테하고 조는듯한 거적눈아래에 오뉴월 소불알처럼 축 늘어진 개발코가 달린 흉물스러운 사나이였다. 그는 분명 병원에서 본 수위인지 소제부인지 한 사나이였다.

《이게 리수길 집이요?》

《그 사나이는 말도 전하기 전부터 돌아가려는듯이 뒤뚱거리며 물었다.

《네, 그렇소. 어째 그리오?》

수길 어머니는 가슴이 뿌쳐 손으로 지그시 누르고 한쪽고무신이 부엌문턱에 걸려 부엌문앞에 나뒹구는것도 모르고 쫓아나갔다.

《병원으로 오래요.》

《병원으로... 아니 무슨?...》

《이 집에 입원한 사람 있지요?》

《네, 있어요.》

《그 사람이 죽었대요.》

《죽...》

수길 어머니는 그만 정신이 팽그르 돌며 다리가 꼬여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다. 그러나 그 사나이는 아랑곳없이 엉거주춤하고 암말없이 비슬비슬 돌아나가버렸다.

《수, 수길아!》

수길 어머니는 손벽을 한번 크게 치며 쫓아나갔다.

나오느라니 그만 목이 칼 메며 설음이 쏟아져 다시 그 자리에 푹덩 주저앉았다.

《수길아! 수길이 죽다니 웬말이냐.》

그는 땅을 치며 통곡하였다. 숨이 꺼질듯 몹시 흐느껴졌다.

그러나 다음순간 그의 가슴에 곤장같은것이 불끈 치셨다. 그는 모든것을 깨달았다. 수길이를 죽인것은 선교사네 승냥이떼들이고 병원 원장년임이 틀림없었다.

《오냐, 알았다. 이 년놈들, 내 자식을 잡느라고 그 작간을 꾸몄구나. 그러나 안된다. 안돼.》

수길 어머니는 뜰에 굴러다니는 작대기를 들어 땅을 힘껏 갈겼다.

《이 년놈들, 안된다, 안돼. 생사람을 가지구 전염병이라구... 살려놔라, 살려놔. 그러지 않으면 당장 너희 년놈들을 씹어먹구야 말겠다.》

수길 어머니는 다시 달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아직 수길이가 죽지 않고 숨이 가랑가랑하게나마 붙어있는것 같은 환상이 머리속에서 죽음의 검은 그림자와 맞물고 매대기치며 땀을 돌았다.

그는 길이 어떤지, 발이 어디 가놓이는지 몰랐다. 그러나 수위보다 더 먼저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가 입원실 현관에 들어섰을 때 누가 수부에서 불렀으나 그는 듣지 못하고 긴 복도를 허겁지겁 달려들어갔다.

《수길아, 아이고, 수길아!》

《여보- 여보-》

흰 위생복을 입은 사나이가 쫓아와서 수길 어머니의 팔을 꼭 잡았다.

《우리 수길이 어데 있소?》

《떠들지 마오. 환자들이 놀랍네다.》

《여보- 우리 수길이 어데 있소? 나 좀 어서 보게 해주오.》

《이리 오시오.》

그리하여 수길 어머니는 안침지고 으스스한 구석에 있는 한 방으로 안내되어 들어갔다. 그러나 거기에도 수길이는 없었다.

《수길이 살아있지요? 날 좀 어서...》 하며 수길 어머니가 도로 문밖으로 뛰어나가는것을 그 사나이는 다시 붙잡아당기며 《여기 앉으시오.》 하고 결상에 잡아앉히려 하였다.

《아니... 나 가야...》

《글쎄 앉으시오. 이제 아들을 보게 해드립네다.》 하고 수길 어머니를 억지로 주저앉히며 정색하고 물었다.

《당신이 리수길의 어머니신가요?》

《네, 수길이 아직 살아있지요?》

《당신 아드님은 우리 병원의 따뜻한 기도를 받으며 하느님에게로 갔습네다.》

《가다니요?》

하늘이 왈각 무너져 내리며 골통을 때리듯 어머니눈에서는 푸른 불빛이 번쩍하였다. 자칫하면 그 자리에 폭 꼬꾸라질뻔한것을 간신히 참고 있었다.

《하느님품으로 돌아갔습네다.》

《하느님?》

수길 어머니는 소스라쳐 일어나다가 또다시 폭 주저앉아버렸다.

《병이 워낙 고약한 병이 되어서 집에도 알릴수 없었습네다.》

《수길일 누가 하느님에게 주렸소. 내 자식을 내게 주시오. 산대로 도루 주시오.》

《본시 병원규칙이 그렇습네다. 그리고 또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은 그 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곧 화장하는 법입네다. 그래서...》

그러나 수길 어머니는 그게 무슨 소린지 알아듣지 못하였다.

《수길이 어데 있소?》

《네, 여계 있습네다. 이제 올리겠습네다.》 하고 위생복을 입은 사나이는 선반우에 가서 흰 보자기에 싼 조그만 상자를 내리여 두손으로 수길 어머니에게 내주며 《이게 바로 당신 아들입네다. 받으십시오.》

그러나 수길 어머니는 멀끔히 바라볼뿐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받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제 당신 아들입네다.》

《...》

《불 살르고 남은 유골입네다. 받으십시오.》

《불에?》

《네, 법이 그렇습네다.》

《내 아들을 불에...》

《네, 바로 이겁네다.》

《이거?》

《...》

《이게 수길이란 말이요?》

수길 어머니의 눈길은 삽시에 사납게 치셨다.

《...》

《생사람 잡구 증거를 없애려고 덩지채 살라버렸구나. 이 날백정 년놈들아, 너희는 내 손에 죽을줄 알아라.》

수길 어머니는 두주먹을 부르쥐고 소스라쳐 일어났다.

《안된다, 안돼. 내 아들을 내보라.》

설음도 잊고 수길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며 또 웅크렸다.

《누가 내 아들을 사르랬느냐.》

위생복입은 사나이는 뒤뚱하며 한두걸음 뒤로 물러섰다.

《안된다, 안돼. 너희가 내 아들을 때려죽이고 흔적을 없앨려고...》

《진정하십시오. 사람이 죽고 사는건 하느님께 달렸습니다. 성경에 다 적혀있습니다.》

《내게는 하느님이 없다. 내 아들을 내보라. 내 아들이 하느님보다 낫다.》

《하느님뜻을 거역해서는 당신께 해롭습니다. 그리고 당신 아드님께도...》

《내게 리를 줄려고 천금같은 내 아들을 불살랐느냐. 안된다. 썩 내 아들을 내보라. 못내놓네냐.》

《선교사님께서도 당신 아들의 영생을 축복하는 의미에서 자아, 이렇게...》

그러며 위생복을 입은 사나이는 종이봉지 하나를 내놓았다. 그것은 선교사가 보낸 약간의 향연이었다.

《선교사...》

수길 어머니는 종이봉지를 내미는 그의 손을 탁 찌러버리며 《이놈, 하느님을 팔아 살인하는 백정놈을 선교사라구. 그놈의 아들새끼를 살라서 뺨다구를 가져오너라.》

《진정하십시오. 당신 아들은 천당으로 갔습니다.》

《천당? 천당은 백정놈들이나 가거라. 내게는 소용없다. 원수놈들을 내보라. 내 아들을 죽인 원수놈을 내놓으란 말이다.》

《오, 하느님아버지시여! 이 녀인에게 복을...》

《복? 개소리 말아...》

수길 어머니는 위생복 입은 사나이손에 들린 유골상자를 채가듯 빼앗아 한품에 끼었다. 그바람에 상자우에 놓였던 선교사가 보낸 돈봉지가 나뒹굴어 떨어졌다.

수길 어머니는 마치 술개미가 병아리를 채가듯 그 봉지를 한손에 와사삭 거머쥐고 문을 차고 부리나케 내달렸다.

7

고무신이 벗어진채 흰 양말만 걸고 있는 수길 어머니의 한발이 돌부리를 걸어차서 피가 터졌으나 그는 알지 못하였다. 깨물어 텅텅 부어오른 아래입술에는 선지피가 엉키어있었다.

쑥대머리에 화등잔 같은 눈, 그 눈앞에 나타난

수길 어머니가 선교사네 벽돌양옥 무거운 초아셋을 돌개바람치듯 순차로 열어제낀 때 식탁에 둘러앉은 세 원수의 얼굴이 가까운 과녁판처럼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그것은 마치 움직이는 화면처럼 수길 어머니의 눈앞에서 커졌다 작아졌다 하였다.

후치날 같은 매부리코끝이 흉물스럽게 옷입술을 덮은 늙은 승냥이와 금방 두꺼비를 삼킨 구렁이배때기처럼 배통이 불쑥 내밀린 암여우와 지금 바로 쟁데기를 벗고 나오는 독사대가리처럼 독기에 반들거리는 매끈한 이리새끼 시몬... 그것들의 우묵한 여섯눈같이 한결같이 송장을 기다리는 무덤구멍같이 수길 어머니에게는 보였다.

이 이리떼들은 염라대왕앞에 선 악령들처럼 수길 어머니의 형클어진 머리, 살기등등한 눈, 피벌건 발, 찢어진 옷자락앞에 몸소름을 쳤다.

《오! 하느님...》

암여우의 입이 먼저 열렸다. 그의 목소리는 무서움에 질려 가늘게 떨렸다.

그러나 그들이사 무어라고 짓든지 울든지 그런것은 아잘것없이 수길 어머니는 다리를 절구공이처럼 들었다 놓으며 한걸음한걸음 저들에게로 육박해갔다.

저들은 불맞은 짐승처럼 식탁에서 우뚝 일어났다.그바람에 식탁에서 접시 하나가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요란히 들렸다.

《...항상 당신의 자식을 보살피고 사랑하시는 하느님...》

그럴 때 그 기도소리를 단칼에 두토막내듯 수길 어머니의 발이 한걸음 앞으로 각 밟고 나섰다. 그것은 바로 저들에게 육탄과 같이 보였다. 저들은 두어걸음 뒤로 물러섰다.

《여보시오, 조선형님! 여기 하느님이 계십니다. 우리 지금 당신과 당신 아들 기도 올렸습니다. 당신 도움받을것입니다.》 하는 암여우의 말을 받아 늙은 승냥이가 뒤에서 부르짖었다.

《우리 당신에게 돈 보냈소...》

그러자 수길 어머니는 손에 거머쥐고 있던 선교사가 보낸 돈봉지를 늙은 승냥이면상에 뱉다 뿌리고 이리새끼를 향하여 손을 번쩍 내밀었다. 그 순간 수길어머니의 팔이 한두서너자 불쑥 늘어나는것 같이 선교사의 눈에는 보였다. 마치 그 팔이 아들 시몬의 모가지를 칭칭 휘감아가는것 같았던것이다.

그때 암여우가 다급히 손을 내저으며 수길 어머니의 앞을 막아서서 《오! 안됩니다. 조선형님, 별 받습니다.》 하고 바스라지는 소리로 웅크렸다.

수길 어머니의 거뭇게 죽고 메마른 입술이 자개바람 들린것처럼 떨리며 그는 입속에서 무엇을 지근지근 씹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한걸음, 작도나 디디듯이 각 밟고나가며 손을 다시 번쩍 쳐들었다.

《아이고, 안되오. 하느님은 그것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선교사 부인은 뚱뚱한 몸으로 선교사와 아들을 감싸주듯이 하며 수길 어머니의 손을 막으려고 제 손을 내저었다. 그러면서도 수길 어머니의 손

이 달을가봐 그의 손은 허공에서 발발 떨고 있었다.

《오! 하느님 아버지시여! 이 사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그때 수길 어머니의 한발이 자기앞을 가로 막는 암여우와 늙은 승냥이를 단번에 짱총 뛰어넘어 이리새끼에게로 날아갈듯이 부들부들 떨리고 그의 두눈은 쌍초롱처럼 이리새끼를 노리고 있었다. 그 눈에서 푸른불, 붉은 불이 펄펄 날리는 것처럼 암여우에게는 보였다.

그때 암여우는 제 아들을 감싸주며 얼른 피신하라고 눈짓하였다. 그러자 시몬은 제 에미의 평퍼짐한 뒤통등이밑으로 살살 기어 다른 방으로 빠져버렸다.

그것을 본 수길 어머니는 나래치듯 어깨를 숙구치며 시몬에게로 쫓아갔다. 그러나 선교사 부인의 손이 죽어라고 그의 가슴을 뚫다 미는바람에 그만 뒤쪽 멈춰섰다. 선교사는 안해뒤에서 한손으로 안해의 몸을 떠밀어주고 있었다.

수길 어머니는 제 가슴에 닿은 암여우의 손목을 잡아 마치 허리춤에서 뱀 집어던지듯 휙 뚫다 뿌렸다.

선교사 부인은 질겁해서 뜨물에 빠진 바퀴눈처럼 해가지고 두손으로 제 골치를 싸쥐며 뒤로 뒤뚱거렸다.

그때 아들 시몬이란 놈이 들어간 방에서 전화신호 돌리는 소리가 찰찌러렁 울려왔다. 한즉 그 소리에 구원 받은듯이 선교사 부인은 소리높이 기도를 올렸다.

《아- 하느님! 이곳 마귀 당신의 자식들을 해하려하옵나이다. 항상 자애로우신 당신의 이름으로...》

그러자 늙은 승냥이도 기운을 얻은듯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마귀 물러가라!》

그러나 그때 바로 수길 어머니는 또 한걸음 그들에게로 다가가며 피엇킨 입술을 지근지근 깨물다가 입에 물었던 침에 엇킨 피를 휙 내뿜었다. 그리고 이리새끼 들어간 방쪽으로 픽 돌아섰다.

《아야야.》

암여우는 무슨 불벼락이나 맞는듯이 바스라지는 소리를 지르며 수길 어머니가 돌아선쪽으로 따라돌며 그앞을 막아섰다.

《조선형님, 당신에게 마귀 들렸습네다.》

선교사 부인이 그렇게 말하자 선교사가 또 웨쳤다.

《하느님을 모르는 야만 어서 물러가라.》

그러나 수길 어머니는 들었는지 말았는지 아랑곳 아니하고 별안간 머리를 푹 숙이더니 절구통같은 암여우의 동가슴을 뚫다 받으며 꾸지르고 나가려하였다.

《아가자... 하느님...》

암여우가 모진 비명을 지르자 뒤에 선 늙은 승냥이가 다급히 웨쳤다.

《시몬! 총, 총...》

이윽고 이리새끼가 기다란 사냥총을 들고 나와 암여우뒤에서 수길 어머니의 가슴팍에 겨누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수길 어머니가 탄환을 먹은 순간에 제어미, 아비의 배통을 짹 갈라번지는 무서운 환상이 시몬의 뇌수를 때리며 총 잡은 손이 사시나무 떨듯 하였다.

그러자 늙은 승냥이가 그 총을 받아들고 수길 어머니의 가슴에 내댔다.

《쏴테다!》

《오냐, 썩봐라.》

수길 어머니는 가슴을 짹 벌리고 다가갔다.

그런즉 늙은 승냥이는 총을 쏘지는 못하고 그저 총부리로 수길 어머니의 가슴을 뚫다 밀었다.

그바람에 수길 어머니는 한두걸음 뒤로 뒤뚱거렸으나 이내 몸을 가누어가지고 두팔에 죽을 힘을 주어 총대를 거머챈다. 그러자 늙은 승냥이는 앞으로 몸을 꾸뻑 수그리며 두어걸음 끌려오다가 그만 총을 놓고 말았다.

수길 어머니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총을 꺼꾸로 잡고 젓먹은 힘까지 다 내서 총허리로 유착스러운 무쇠난로 모서리를 죽어라고 내리쳤다. 총신이 우지끈하고 부러져버렸다.

그바람에 년놈은 무엇에 떠다박질린것처럼 제깎에 뒤로 흘쩍 물러서고 새끼놈은 놀란 토끼처럼 다시 결방으로 달려 들어가 전화통을 요란히 울렸다.

《아, 경찰서요?... 빨리빨리... 아, 떠났어요? 네, 네... 지금 그 녀자가 총으로 사람을...》

그 소리가 어슴푸레 들려왔다.

수길 어머니는 이리새끼를 쫓아 그 방으로 들어가려 하였다. 그러나 두 년놈이 앞을 막아서서 한동안 밀고 밀리고 하였다.

《으응-》

별안간 수길 어머니의 배밑으로부터 먼 벼락치는 소리 같은 소리가 뚫어올랐다. 그것은 몸서리나는 소리였다. 그런데 또 뒤이어 빠드득하는 이갈리는 소리가 마치 입속에서 유리가 바사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바람에 년놈은 함께 뒤로 물앉듯이 하며 물러섰다. 선교사 부인은 남편을 뒤에 두고 제 넘적한 궁둥이로 감싸주고 있었다.

선교사는 벌써부터 시몬이 있는 방으로 빠져 들어가버리려고 바시대며 그 방을 흘끔흘끔 눈짓하고 있었다. 그러나 무서운 벼락아래에 안해를 의뢰로 두고갈수 없어 자저하고 있었다.

그때 수길 어머니의 두손이 또 번쩍 들리더니 연심한데로 오그라붙으며 앞으로 내밀렸다. 그것은 바로 그의 앞에 선 선교사 부인의 목줄띠를 향하고 있었다. 암여우는 궁둥이로 늙은 승냥이를 비비적거리며 연심뒤로 물러섰다.

그바람에 식탁위의 커피잔이 넘어져 쏟아지며 차물이 방바닥으로 질질 흘러내렸다.

수길 어머니에게는 그것이 마치 승냥이들의 가슴에서 쏟아지는 피인듯 잠시 장쾌한 환상이 미풍처럼 울기찬 가슴을 스쳐지나갔다. 그러며 그의 손에는 힘이 벅쩍 올랐다.

그 순간 수길 어머니의 손은 무쇠갈구리처럼 선교사 부인의 목줄띠를 범석 거머쥐었다.

《으악...》 하며 암여우는 히끈 사빠질듯이 뒤로 물러섰으나 이내 벽에 붙어선 늙은 승냥이에게

질려서 더 드릴수 없게 되자 악을 써 몸부림을 치며 년놈끼리 비비대기치고 있었다.

수길 어머니의 모든 힘이 이빠디와 손아귀에 밀려있었다. 악마의 몸뚱아리를 갈가리 찢어발기고 싶은 충동에 그의 전신 만신이 발발 떨리고 있었다.

선교사 부인은 마침내 먹살을 잡힌채 벽가에 놓인 쏘파에 가서 늘어졌다.

그러자 선교사는 불난 강변에 덴 소 뒷듯 날치며 식탁에서 그릇이며 칼을 집어들고 수길 어머니 머리와 잔등을 함부로 후려갈겼다.

그러나 그래도 안되니까 이번은 수길 어머니의 뒤에 가서 그의 두팔을 거머잡고 뒤로 비틀어당기었다.

수길 어머니는 두팔을 잡히자 또 하나의 무기인 머리를 책 뒤로 제꼴다. 그 바람에 선교사는 사근코를 지끈 맞고 손으로 막 싸쥐며 물러서버렸다.

선교사의 손가락사이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럴판에 뒤에서 누가 벼락치는 소리를 지르며 수길 어머니의 덜미를 소리개 덮치듯 짹 거머잡았다. 그리고 묵직한 무릎이 수길 어머니의 영치를 런겨퍼 들이질렀다. 수길 어머니는 허리가 시큰하도록 뒤로 몸이 휘어졌다.

《이년아, 놓지 못해.》

그답은 구두발이 정갱이로 연송 들이박혔다. 일본순사놈이었다.

그때 수길 어머니는 이젠 또 웬 놈이나 하듯이 꺾 돌파서며 입에 물었던 피를 다시한번 내뿜었다. 그리고 《홍, 너희들이 모두 한당이로구나. 좋다, 죽으나사나 해보자!》하고 그놈에게로 다가갔다.

그바람에 순사놈도 뒤뚱거렸다. 그러나 다음순간 《이년...》하는 소리와 함께 솔뚜쟁같은 순사의 손이 수길 어머니의 뺨에 와서 절걱하며 수길 어머니의 눈에서 불씨가 날렸다.

《이년아, 이게 어디라고 와서 행패나. 죽일년씩 나가지 못해.》하고 순사놈이 다시 덜미를 잡아젓히는 바람에 수길 어머니의 목대가 시큰하였다.

《너희가 나가거라. 이것은 우리 땅이다.》

수길 어머니의 입에서 피가 툭툭 튀는 바람에 순사도 얼굴을 찡기고 손을 부채질하듯 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수길 어머니는 마침내 쾅쾅 얹히고야 말았다. 그때 저편 방에서 이리새끼가 빠끔히 문을 열고 내다보다가 수길 어머니의 피영킨 창날같은 눈초리에 맞아 문을 도로 각 닫아버렸다.

그 동안 선교사는 코앞을 닦고 안해를 쏘파에서 부축해 일구고 있었다.

그때 일본순사는 선교사를 향하여 말하였다.

《선교사님! 미안합니다. 진작 알았으면 이런 일

없을걸 그랬습니다.》

《아니, 수고합네다. 하느님이 아시고 지금 벌을 내리넵네다.》

《네, 단단히 중치하겠습니다. 이 총은 증거품으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때 선교사는 위신을 갖추며 점잖게 말하였다.

《나는 미국사람으로 한마디 부탁합네다. 저 사람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주기 바랍니다. 착한사람 되게 해주시오. 모든 착한 사람, 모두 우리 미국사람 형제네다. 이것은 하느님의 뜻입네다.》

그렇게 말하는 선교사의 눈에는 죽었다가도 되살아나는 조선사람, 없다가도 툭 튀어나오는 무서운 사람들, 자기들이 생사람 잡기 위해 꾸며낸 도깨비 숨박꼭질보다 몇갑절 더 신출귀몰한 조선사람들-그들의 사나운 싸움이 주마등같이 선교사의 눈앞에서 춤을 쳤다.

《이년, 이 총 들어라.》

순사가 웨쳤다. 증거품으로 가지고 가자는것이였다.

그러나 수길 어머니는 어깨로 탁 밀쳐버리고 포승을 진채 옹을 수그려 수길의 윗팔이 든 상자를 두손에 들었다.

《두고 보아라. 조선사람 다 죽지 않았다.》하고 수길 어머니가 밖으로 끌려나갔을 때 마을사람들이 울타리밖에 모여서서 하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계득 어머니는 수길이네 부엌문앞에서 주은 수길 어머니의 고무신 한짝을 그의 피영킨 발에 신겨 주었다.

《비켜, 웨들 모아섰어.》

일본순사가 호기를 부렸다.

그러나 이웃사람들은 헤여지지 않을뿐아니라 슬금슬금 뒤를 따라가고 있었다.

어둠이 깃들은 황혼의 거리를 수길 어머니는 터벅터벅 걸어갔다. 그때 문득 수길 어머니의 머리에는 어저께 산에서 들은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다시 떠올랐다.

웁매듭 그 맘이야 하마나 풀릴소나

물론 이 구절들이 꼭 그대로 기억된것은 아니나 그 내용은 틀림없이 그의 머리에 박혀져 있었다. 미국놈, 왜놈이 시시로 검은 시름을 조선사람에게 가져다 주고 있으나 그러나 조선사람의 마음은 마디마디 땀하여 꺼질줄 모르는 불길로 붉게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지금도 그 소리는 아름다운 리들을 타고 수길 어머니의 귀에 쟁쟁 울려왔다. 수길 어머니는 문득 하늘을 쳐다보았다. 깃을 찾는 새들이 낮은 하늘을 날아가고 날아오고 하였다.

(1951년)

환상과 현실

한인준

독자들은 몇해전에 작가동맹기관지에 발표된 환상소설 《찬란한 아침》을 기억하고있는지 모르겠다.

《통일이 되었다. 아, 통일이 되었다.

반세기가 되도록 민족이 그렇게 갈망하던 통일, 겨레가 뼈를 깎고 피를 뿌리며 일구워온 그 하나를 위하여 싸워온 통일... 그 통일이 드디어 성취되었다. 전민족의 단합된 힘에 더는 못이겨 외세는 쫓겨나고 이땅위에 범민족통일국가-고려민주련방공화국이 일떠섰다.》

이렇게 시작된 소설은 남쪽정부의 초청으로 공화국의 여러 부문 전문가들이 련이어 남으로 파견되는가운데 광주시로 나간 젊은 건축설계가 유정수가 아버지의 약혼녀였던 정인옥을 찾아가 만나며 그것을 계기로 그의 딸 송미혜와 련정이 깊어지는것으로 발전한다. 말못할 마음속 고충을 속속들이 겪은후에 그들은 드디어 한쌍으로 결합되게 되며 나라의 분별로 장장 50여년살이 찢긴 아픔을 안고 갈라져 살아온 유정수의 아버지 유현과 송미혜의 어머니 정인옥-홍안의 청춘시절 약혼자였던 그들이 감격적으로 만나는것을 기약하면서 소설은 이렇게 끝난다.

서로 손을 꼭 잡고 해쑃는 바다가 백사장을 달음질치는 유정수와 송미혜.

정수가 환희를 터뜨린다.

《통일된 우리 조국, 우리 조국의 앞날 저렇게 무궁하고 아름다울거요.》

미혜가 태양을 향하여 두팔을 높이 쳐든다.

《조국아, 너 이제 어떤 나라 되려니?》

시를 읊듯 정수의 대답

《사랑이 넘치는 나라》

노래 부르듯 미혜의 화답

《정의롭고 부강한 나라》

...

내가 오늘 오래전에 나간 소설을 왜 새삼스럽게 떠올리게 되는가.

바로 오늘 나는 출장길에서 우연히 서울에서 열린 8.15민족통일대회에 참가하였던 친구를 만나게 되었다. 친구는 나의 손을 부여잡고 무척 반가와하면서 통일행사의 나날들에 있었던 감격적인 일들을 흥분에 넘쳐 이야기하다가 문득 이런 말을 하였다.

《난 이번에 북과 남의 각계층 대표들이 다 모여 격정을 터뜨리는 통일행사에 참가하면서 자네를 생각했네.》

《나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네의 환상소설 <찬란한

아침>을 생각했던 말일세.》

《그래...》

이제는 기억에서사 라졌을수도 있는 나의 작품을 생각했다는것이 고맙기도 했지만 서울에 나가 통일행사를 하는 류다른 분위기속에서는 심분 그럴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품이 발표되었을 때에도 환상과 현실을 착각했다고 말한바 있지만 난 이번에 그 소설이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네. 그렇게 오고싶던 고향에 유현도 왔겠구나. 얼싸안고 돌아가는 저 사람들속에 유현과 정인옥은 어디있는가. 유정수와 송미혜는 누군가 하고 찾아까지 보게 되드라니까. 허허허》

《그래?》 나도 큰소리로 웃었다.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라...》

불현듯 그 소설을 쓰던 때의 사연이 어제런듯 삼삼히 밝혀왔다. 내가 살고있는 지방의 소도시에 농기계작업소 초급당비서 로정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소설에 형상된 유현이었다.

나는 정현동지와 여러모로 매우 친밀하게 지내면서 그의 통일열망이 얼마나 강렬한가 하는것을 매번 뜨겁게 감수하였다.

어느 하루도 두고온 자기 고향 령광군과 갓 결혼하여 석달짜리 컷 애기를 보았던 안해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은적이 없으며 어떤 사업, 어떤 생활이든지 통일과 련관되지 않은것이 없었다.

오죽했으면 꿈에 고향에 갔겠다고 하면서 어린애처럼 마냥 기뻐 외우곤 했겠는가.

그러던 그가 그만 불치의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다.

림종을 앞둔 시각에 그는 나의 손을 꼭 잡고 《한동무, 고향에 끝내 못가보고 마는구만. 인옥이도 못만나구... 딸애도 컸으면 마흔이 펴 넘었을텐데...아, 통일! 기어이 그날을 보자고 했는데...》

이 말을 두번째번 곱씹다가 감기지 않는 눈을 감았다.

가을바람 소슬하게 불어치는 산언덕에 그를 안장하면서 나는 북받치는 오열을 누를수 없었다.

(그렇게도 고향땅을 그리던 동지, 통일성업을 위한 길에 그렇게도 온 넋을 불태우던 동지. 끝내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한줌 흙으로 된단 말인가. 그 소원을 풀어줄 길 과연 없는가?)

찾아가게 해주고싶었다. 만나게 해주고싶었다. 불갈던 소원을 실현시켜주고 싶었다.

그것은 동시에 나도 가고싶은길, 나도 만나고싶은 사람, 나의 가슴에도 타고르는 활화산이었다.

그래서 써낸것이 그 소설이었다. 글로나마 이제

라도 그 념원을 이루어주고싶어서였다.

나는 소설에 고향도 그의 고향, 경력도 그의 경력, 이름도 성만 바꾸어 모두 그대로 하였다. 처음엔 종류도 단편소설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편집부의 의견을 받고 새겨보니 가슴아프게도 환상은 환상이었다.

소설이 나간후에 우리 문단에 처음으로 등장한 사회환상소설이다.

통일된 조국을 보는것만 같다...

물론 창작실천상 결함도 많았지만 왜들 그렇게 기뻐했겠는가.

그것은 누구나 통일을 것처럼 갈망하기때문이었다. 통일된 조국에서 살고싶기때문이었다.

나는 작품이 발표되었을 때 성공의 기쁨보다도 정현동지의 생전의 념원을 실현시켜주었다는 기쁨으로 더 가슴이 후련하였다.

책을 읽은 사람들의 말처럼 《통일이 되었다.》고 활자로 찍혔으니 통일이 된것이 아닌가...

나는 잡지를 가지고 정현동지의 묘를 찾았다.

소설을 펼쳐놓고 령혼을 불렀다.

《정현동지, 통일이 되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어서 일어나서 고향으로 나갑시다.》

생각하면 이 역시 환상이었다. 그때로부터도 또 어언 10년세월이 가까와온다...

친구는 확신에 넘쳐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여보게, 내가 이번에 무엇을 뜨겁게 절감하고 새겨안았는지 아나? 그것은 남조선인민들이 경애

하는 장군님을 끝없이 그리며 마음속으로는 이미 통일의 광장에 높이 모시고 있다는 그것일세.

그들의 가슴속에는 그저 어버이장군님만 짝 차있네.》

마음속으로는 이미 위대한 장군님을 통일의 광장에 모시고 산다.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는 말이였다.

친구와 헤어진후에도 나의 가슴은 마냥 흥분으로 설레였다.

지금 제국주의자들과 반통일분자들이 나라의 분열을 영구화하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고 있지만 그것은 노도와 같이 사품치는 격랑을 장대기로 막으려는것과 같은 어리석은것이다. 통일기관차는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며 질풍같이 달리고있다. 그 기관차를 조종하시는분은 우리의 천출명장 **김정일**장군님이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는 대경륜을 펼치시고 조선민족을 총결기시키시였다. 용용한 굽이침, 세찬 격류를 일으킨다. 인민의 마음속에 벌써 통일을 안겨주셨다. 민심은 천심이다. 그누가 천심을 거역할수 있랴.

나는 두주먹을 꼭 부르짖고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이 격류앞에서, 이 천심앞에서 나의 소설이 언제까지 환상으로 남아있겠는가. 아니다. 그것은 환상이 아니다.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현실이다.

내 고향아!

리진협

먼 출장지에서 돌아오는 저녁
열려진 대문가로 들어서는듯
나는 고향산천이 시작되는 여기
수리령고개를 넘어선다

얼마나 자주 이렇게 다녀오더냐
했어도 울적마다 다급해지는 걸음
저녁밥짓는 연기냄새에조차
가슴 이리 두근거려지는 곳이어

반가와라 어데선가 어슴푸레 소영각소리
성큼해서 날 넘겨보는 강녕이이삭들
향기 뿜내는 반롱골 배밭을 흔들며
방목지에서 넘어오는 저녁염소울음소리

고래등마냥 웅크린 포전머리 풀거름엔
노래만큼 일이라던 그 얼굴도 짙이어온다
그사이에도 회관무대는 비우지 않았을
용섭이, 명복이, 세근이, 창숙이

그리웠노라 이 순간 맞이하는 그모두
오이랭국에 땀들이던 논밭을 바래우고

송이버섯 자래우려 솔숲을 흔드는 산촌바람
평온한 저녁가에 벌써 날으는 밤새의 퍼덕임

세월이 갈수록 생각많은 그 모든것으로
너는 더더욱 나를 반하게 하였지
그래서 먼곳에 가면 네 사무침에 잠 못들고
나는 때없이 너에게 사랑을 고백하거니

풍족해도 어려워도 인정미 변함없이
위해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사는 산천
무료로 배우고 치료받는 세월이 흐르고
내 몸에 폭 배인 협동의 이랑이 있는 곳

아 선군길 굽이굽이 우리 장군님!
야전복자락에 품어안아 지켜주신 그모두
없었다면 내 정말 가을비 오는 타향의 저녁
꿈길처럼 눈물로써 그리워 했을 이 고향길

그리안노라! 이 저녁 더더욱 치미는 마음
백번다시 마주해도 참다운 사회주의품아
그리안으면서도 그리안으면서도 멀리서처럼
아아! 몸부림쳐 불러보는 사랑아, 내 고향아!

로씨야인민의 장한 딸 조야

조야는 지난 제2차세계대전시기 파쑈도이쉴란드침략군을 반대하고 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18살의 꽃다운 청춘을 서슴없이 바친 로씨야인민의 장한 딸이며 처녀빨찌산영웅이다.

장편서사시 《조야》(1942년, 알리게르), 예술영화 《조야》(1944년, 엘. 오. 아른슈뎡 연출)를 비롯하여 조야를 형상한 문학작품과 영화, 연극, 미술작품들이 여러편 창작된것은 로씨야인민이 조야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실례로 된다.

조야(빨찌산때 가명은 마냐)의 이름과 성은 조야 아나톨리에브나 켄스모제미얀스카야이다. 그는 주체12(1923)년 9월 13일 모스크바 동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팜보부주 오씨노비에 가йма울 사무원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는 부모를 따라 모스크바에 이사갔으며 모스크바201중학교(10년제)에서 공부하였다. 조야는 학과학습과 조직생활에서 언제나 모범적이었으며 15살때인 주체27(1938)년에 공청원의 영예를 지니었다.

파쑈도이쉴란드의 강도적인 무력침공으로 쏘도전쟁이 일어나고 조국이 위협에 처하게 되자 중학교 10학년학생이었던 조야는 빨찌산부대에 들어가 손에 무장을 잡고 원쑤격멸의 싸움에 나설것을 탄원해나섰다. 그때가 주체30(1941)년 10월이었다.

빨찌산부대에서 싸우기 위하여 수도를 떠난 조야와 공청원들은 밤중에 전선을 넘어 은밀히 적강점지대에 들어갔으며 적후에서 활동하고있던 빨찌산부대에 무사히 도착하였다.

주체30(1941)년 11월말 조야는 모스크바주 웨레이구역 뻬뜨리쉴보마울로 뚫고 들어가 전투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첫 임무는 적창고에 불을 다는것이였다. 임무는 수행되었다. 그러나 다음 임무를 수행할 때 그만 적들에게 발견되어 체포되었다.

조야는 파쑈놈들의 모진 고문과 악형을 받으면서도 마지막까지 굴하지 않았다. 파쑈도이쉴란드강점군은 조야에게서 비밀을 알아내려고 그의 얼굴을 불로 지지고 잔등을 톱으로 켜는 등 상상조차 할수 없는 악착한 고문을 들이댔다.

그러나 조야는 놈들에게 조금도 굴하지 않고 비밀을 끝까지 지켜냈다. 그는 빨찌산부대의 위치와 동지들의 이름을 불지 않았을뿐아니라 자기 이름이 마냐라고 우기면서 본명을 대지 않았다. 악에 받친 놈들은 주체30(1941)년 11월 29일 조야를 교수대로 끌고가 마을사람들이 보는앞에서 처형하였다.

애젊은 처녀로서 파쑈도이쉴란드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성스러운 싸움에 떨쳐나서 용감성과 희생성을 발휘하고 침략자들에게 체포되어 신념과 지조를 끝까지 지켜낸 조야의 영웅적위훈은 파쑈도이쉴란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쏘련인민의 영웅적투쟁을 크게 고무하였다.

이러한 공로로 하여 그는 주체31(1942)년 2월 16일 쏘련영웅칭호를 받았으며 같은해에 그의 묘지가 뻬뜨리쉴보로부터 위인들과 명인들이 안장되어있는 모스크바의 노보제비치예묘지에 옮겨졌다.

조야는 비록 18살 꽃나이에 희생되었으나 그가 세운 영웅적위훈으로 하여 전설적인몰이 되었으며 문학예술작품의 주인공으로 형상되고 여러 도시의 거리들이 그의 이름으로 불리워지게 되었다.

그가 희생된 뻬뜨리쉴보마을부근의 도로에 그의 동상이 세워져있으며 그가 안장되어 있던 곳에 대리석기념비가 세워져있다.

조야를 형상한 문학예술작품가운데서 널리 알려져있는것은 장편서사시 《조야》와 예술영화 《조야》이다.

너류시인 마르가리따 요씨포브나 알리게르가 조야가 희생된 다음해인 주체31(1942)년에 창작 발표한 장편서사시 《조야》는 실재한 인물인 조야 켄스모제미얀스카야를 원형으로 하여 그의 짧은 생애와 빛나는 위훈을 매우 서정적으로 시화한 작품이다.

작품에서 시인은 조야를 민족의 장한 딸로, 쏘베트애국주의의 귀감으로, 처녀빨찌산영웅으로 높이 칭송하였다.

서사시는 그것이 담고있는 사건의 비장성에도 불구하고 혁명적랑만성과 영웅주의가 나래치고있다.

작품은 전쟁의 포화속에서 쏘련군인들과 인민들, 청소년들속에서 널리 애독되어 그들을 전쟁승리를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고무하였다.

이 서사시를 영화로 옮긴 예술영화 《조야》역시 조야의 생애와 투쟁위훈을 생동하게 화면에 담은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으며 그들을 정의의 싸움에 떨쳐나서도록 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조야와 같이 신념과 지조를 지키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목숨도 청춘도 아낌없이 바치는 사람들은 인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후세에 전해지는법이다.

김왕섭

63명중의 1명

-장편소설 《나의 추억, 40년》을 두고-

리용일

위대한 선군령도의 자욱따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는 경이적인 현실이 펼쳐지고있다. 통일 애국투사들인 63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이 한낱한시에 공화국의 품에 안긴 세계적 사변도 레외로 되지 않고 있다.

현실은 우리 작가들의 가슴을 얼마나 걱정으로 끓게 하였는가. 소설가들은 그들을 주인공으로 한 장편소설들의 사상에술적수준을 최상의 높이에 올려세우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 과정에 작가들의 《키》가 부쩍 자라고 있다. 우리는 이미 세상에 나온 여러편의 이 주제 장편소설들에서 주인공의 새로운 성격적면모를 발견하고 형상하려는 작가의 강렬한 지향을 안아보게 된다. 신념과 의지에 관한 류사한 주제, 단조로와보이고 어긋비슷한 수십년간의 감옥생활을 가지고 수십명의 주인공들을 개성있게 형상하여야 하는 까닭으로 새로운 성격탐구에 관심을 돌리는것은 응당하다. 이채로운 성격형상에 대한 강렬한 지향과 함께 느껴지는것은 소설가들의 창작관점과 자세에서 새로운 변혁이 일어나고있는것이다. 한층 자라난 작가들의 키를 여기에서 뚜렷이 느낄수 있다.

지난 기간 조국통일주제의 장편소설들은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이 주제의 소설창작경험이 오늘 우리 소설가들의 창작에 밑거름이 되고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소설가들에게는 남녘땅에서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한 원형들을 직접 만나볼수 없거나 실재한 생활자료들을 잘 알수 없었던 애로와 난관이 있었다. 하여 이 주제분야의 소설들이 량적으로 적었고 주인공의 성격도 진실한 생활의 바탕속에 안겨오지 못했었다.

그러나 오늘 소설가들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이전에 볼수 없었던 새로운 현실이 펼쳐지고 있는 시대에 걸음을 맞추어 구태의연한 창작관점의 울타리에서 대담하게 뛰쳐나오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예술이 자기의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작가, 예술인들이 우리 시대 인간과 생활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고 그려내야 한다.》

소설가들이 어떤 창작관점과 자세를 가지고 비전향장기수인 주인공의 성격을 새롭게 형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가?

이 주제의 여러 작품들을 두고 말할수 있다. 특히 장편소설 《나의 추억, 40년》(김삼복작)의 주인공 김현석의 특색있는 형상은 이 물음에 대답을 주고 있다.

지난 시기 농촌생활에 발을 붙여 농촌정서가 짙은 성격들을 창작하여 독자들의 기억속에 남아있는 작가는 이번에도 원형의 성격과 생활을 폭넓고 깊이있게 연구하고 자기의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성실한 노력으로 성격에 체현시킬 문제성도 사상정신적면모를 보여주는 생활도 예술적형상세계도 탐구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통일애국투사 주인공의 전형적성격을 창조하려는 작가의 옳은 창작관점과 진지한 자세를 엿보게 된다.

1. 문제성의 탐구로부터

장편소설 《나의 추억, 40년》의 주인공 원형인물의 실재생활은 어느 비전향장기수들과 별로 다른 점이 없다. 놈들의 전향강요에 굴하지 않고 싸운 30여년간의 옥중생활, 출소이후에도 멈추지 않은 통일애국투쟁, 북에로의 송환, 소설에 펼쳐진 생활도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주인공 김현석의 성격에는 새롭고 의의있는 문제성이 체현되어 있다. 이는 원형인물의 범상한 생활에서 새로운 문제를 찾기 위한 작가의 사색과 탐구, 진지한 노력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수십년동안 철창속에서 혁명적신념과 절개를 지킨 김현석이 받아안게 된 행복, 그것은 우연도 요행수도 아니였다.

필연적이고 응당한 결과인것이다. 전향으로 하여 북송환의 길이 막힌 장영초, 고독속에 쓸쓸히 생을 마치는 교형리 민태오, 때늦게 후회와 자책으로 몸부림치는 월남자 현도일, ...각이한 길을 걷는 인간들에게 차례진 결과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강철같은 의지로 혁명적신념을 지켜싸울 때 행복이 차례지게 된다는 진리, 행복에 관한 문제가 주인공의 성격에 체현되어있다.

소설에서는 주인공의 가슴속에 자리잡은 신념이 과연 어떤것인가를 깊이있게 밝힌것으로 하여 문제성이 더욱 무게있게 안겨온다.

현석은 위대한 태양의 빛발을 안고 참다운 인간애, 민족애를 지켜가는 길에 보람있는 삶도 조국통일의 밝은 앞날도 있다는 확신으로 뿔뿔히 심장을 지니고 있다. 이는 그의 사상정신적기둥으

로, 인생관으로 되고있다. 그 신념의 세계에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대단결의 사상적기초를 이루는 민족에 대한 사랑이 댕댕히 흐르고 있다.

《우리 민족끼리》의 숭고한 리념을 가지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온 겨레가 떨쳐나선 오늘의 시대정신이 비껴여 있다.

신념의 세계에 대한 의의있고 철학적깊이가 있는 형상으로 하여 주인공에게 차려진 행복은 결코 개인의 운명에 그치는것이 아니라는 사상으로 독자들의 사색을 이끌어간다. 민족의 매 성원들이 애국애족의 인생관, 혁명적신념을 가지고 싸워나갈 때 우리 민족은 반드시 커다란 행복, 조국통일의 새날을 맞이할수 있다는 사상을 안겨주고 있다.

여기에 이 주제의 여느 장편소설들에 내세워진 문제와 구별되는 특징의 하나가 있다. 장편소설 《최후의 한사람》에서는 유격투쟁대오의 마지막사람으로 남아서 통일의 밝은 앞날을 위해 싸우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하여 최후승리의 날까지 변함없는 백절불굴의 투쟁정신, 계속혁명정신에 관한 문제를 내세우고있다. 이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 통일애국투사들의 투철한 립장과 자세에 관한 문제이다.

장편소설 《의리》에서 통일애국투사인 주인공이 혁명동지의 안해에게 남편의 영웅적인 투쟁사실을 끝끝내 전해주는 이야기를 통하여 불굴의 혁명적신념과 의지가 동지에 대한 숭고한 사랑과의리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상을 밝히고 있다.

불굴의 혁명정신의 사상적기초, 생활적바탕에 관한 문제성은 통일애국투사의 한없이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상정신세계에 대한 긍지높은 찬가이다.

이여의 작품들과 구별되는 장편소설 《나의추억, 40년》에 내세워진 문제를 두고 우리는 작가의 성장과 적극적인 창작자세를 감득하게 된다.

지난 시기 작가는 수려한 산천과 향토적인 정서에 어울리는 이채로운 생활과 성격, 때로는 광복거리건설자들의 랑만적인 생활에서 의의있는 문제를 탐구하였었다.

그러한 작가가 이번에 많은 비전향장기수들과 어슷비슷한 원형의 생활을 깊이 파고들어 새롭고 의의있는 문제를 내세운것은 생활을 대하는 그의 정치적안목과 철학적, 형상적사색의 심도가 한층 깊어졌다는것을 보여 준다.

소설의 문제성을 두고 주인공의 성격탐구에 립하는 작가의 마음속웨침을 읽어보게 된다.

...비전향장기수들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에서 주인공은 공화국의 품에 안긴 63명가운데서 누구도 닮지 않은 1명으로 형상되어야 한다. 소설을 쓰기만 하면 주인공이 저절로 63명중의 1명으로 되는것은 결코 아니다. 어슷비슷한 주인공은 63명중의 1명으로 될수 없다...

그렇다. 63명중 1명으로, 이는 작가가 문제의 탐구로부터 자기앞에 내세운 형상목표, 형상기준이었고 높은 책임감, 강한 요구성이었다.

2. 김현석은 누구인가?

주인공을 63명중의 1명으로 형상하기 위하여 작가가 각별히 관심을 돌리고 노력을 기울인것은 무엇인가?

이 물음에 작가는 원형인물의 높은 사상정신세계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생활을 찾아서 형상하는것이였다고 말하였다. 대답은 짧다.

그러나 주인공의 모습은 많은 생각을 불러낸다.

주인공 김현석의 원형인물은 조국해방과 함께 참된 인생의 길을 걷게 되었으며 4월남북련석회의때에는 김구의 안내를 잘 하여 칭찬을 받은 일도 있다.

아버이수령님의 몸가까이에서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으면서 도내무부의 책임일꾼으로까지 성장하였다. 애국열의도 높고 사회활동경험도 풍부하고 지성이 높은 그의 성격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일찍부터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을 지니고 있는것이였다.

개인기업가를 불신한것으로 하여 받은 수령님의 준절한 일깨움을 언제나 가슴깊이 간직하고 있는 수령님의 애국애족의 높은 뜻을 좌우명으로 삼고 감옥안에서 통일애국의 신념을 굳건히 지켜가는것이다. 여기에 누구나 쉽게 따를수 없는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상정신세계의 높이가 있다.

작가는 원형인물의 성격적핵을 혁명적수령관의 견지에서 발견하였다. 그로부터 주인공을 이 소설이 제기한 사회적문제를 깊이 해명하는 63명중의 1명으로 형상하려고 하였다.

작가는 원형인물과의 부단한 접촉과 담화, 많은 자료를 통하여 그의 성격적핵을 보다 깊이 파악하고 형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것은 주인공의 성격형상에 이바지된 이채로운 생활들이 잘 말해주고 있다.

소설의 첫부분에서 볼수 있는것처럼 주인공 김현석이 감옥안에서 맞다든 만만치 않은 적수는 중앙정보부형사 민태오였다. 김현석이 사상을 지켜내는 투쟁은 민태오의 악형을 묵묵히 참고 견디여내거나 《아니다!》, 《모른다.》는 외마디 웨침에서 끝나는것이 아니였다.

김현석이 야수와 같은 민태오에게 퍼붓는 말마디들이 독자들의 귀가에 쟁쟁히 들려온다.

...당신은 사상범이라면 덮어놓고 증오하고 굴복시키려고 하는데 사상범도 같은 민족이 아닌가.

...남의 민족의 앞잡이가 되지 말아야 한다. 반공을 버리고 손잡고 통일을 위한 길에 나서야 한다....

교형리의 죄행에 대한 규탄에 그치는것이 아니라 민족적량심에 절절히 호소하는 그의 심장의 웨침은 재판장을 들었다놓기도 한다. 10년세월이 흘러 민태오와 다시금 맞서게 되었을 때에도 김현석의 웨침은 잦아들지 않았다.

겨레에 대한 진정한 사랑, 강철같은 신념과 의지, 높은 인격앞에 마음속으로 패배를 인정하고 무릎을 꿇은것은 민태오만이 아니었다. 중앙정보부국장 홍춘도도 마찬가지였다.

교형리들앞에선 《수인》이 지조를 굽히지 않을 뿐아니라 역습을 들이대어 그들을 설복요양하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보통 상식으로는 생각할수 없는 행동인것이다.

현석의 높은 사상정신세계를 보여주는 특색있는 생활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장영초의 전향을 두고 가슴아파하며 전향후 그의 통일운동을 지지해주고 그의 송환을 위해 노력하는 현석, 심지어 자기를 밀고한 월남자 현도일이조차도 그의 가슴에 남은 한조박의 량심을 귀중히 여겨 배척하지 않고 포섭하는 김현석의 겨레와 인간에 대한 사랑은 참으로 폭넓고 웅심깊다. 그만큼 특색있다.

작가는 생활을 현상적으로만 그리려고 하지 않았다. 간수의 장인이 된 현도일에게 들려준 현석의 이야기는 그의 행동이 단순히 인정에 물러서 베푸는 자비심이나 선의가 아니라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해방후 아버지수령님께서 월남한 형이 있는데다가 개인기업까지 하는 현도일의 동생을 한품에 안으시여 조합관리위원장으로, 도인민회의 대의원으로서 키워주신 사랑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현석의 가슴속에 얼마나 소중히 간직되어있는것인가.

현석의 통일애국의 지향이 아버지수령님의 위대한 동포애, 인간애에 생활적바탕을 둔 사상감정임을 힘있게 강조하고 있다.

작가는 이렇듯 주인공의 성격을 의의있게 보여줄수 있도록 생활을 깊이 파고들었다.

소설에서는 김현석이 철창속에서 보낸 하루하루, 그것은 사상과 신념을 지켜 싸운 나날일뿐아니라 대담한 공격정신으로 수령님의 사상과 뜻을 결사관철하여 행복을 안아온 투쟁과정이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주인공은 선군시대 인간들의 본보기로 되는 수령결사옹위, 결사관철정신의 체현자이다.

사랑에 불타는 철석같은 신념의 세계에 대한 깊이있는 형상, 행복에 관한 문제를 해명하는 특색있는 형상으로 하여 주인공은 63명중의 1명으로 자기 자리를 차지할수 있었다.

인상깊은 주인공의 성격탐구에 바쳐진 작가의 고심어린 노력을 돌이켜볼 때 우리에게 안겨오는 김현석은 단순히 비전향장기수 통일애국투사만이

아니었다. 그는 작가자신이기도 하였다.

작가는 원형인물의 성격의 핵을 깊이 파악하고 그의 사상과 정서, 지향과 열정을 자기의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적극적인 창작관점과 자세에서 탐구의 나래를 펼쳤기에 작가는 자기가 직접 체험해보지 못한 생활이지만 주인공의 높은 사상정신세계를 보여주는 생활을 이채롭게 형상할수 있었던것이 아니겠는가.

3. 그들의 모습에서

63명중의 1명으로 주인공을 형상하려는 작가의 강렬한 지향은 작중인물들의 성격에 대한 탐구로 잇닿아있다. 작가는 작중인물들의 성격을 특색있게 형상하여 그들이 주인공의 성격을 다면적으로 립체적으로 폭넓고 생동하게 보여주는데 이바지되게 하려고 하였다.

우리는 작가가 겪었을 고충에 대하여 생각해볼수 있다.

주인공의 원형은 대부분의 비전향장기수들과 달리 북반부태생인것으로 하여 남녘땅에 혈육한점 없을뿐아니라 유격활동과 같은 투쟁경력이 없는것으로 하여 깊은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이런 사정으로 주인공과 관련되는 인물들을 여러명 설정하고 그들의 성격을 원형에 기초하여 새롭고 의의있게 형상하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것이다.

작가는 이 경우에도 원형과 사실에 기초하여 형상하는 원칙을 버리지 않았다. 이는 장영초나 민태오, 현도일 등은 원형이 있는 인물들이며 《민가협》 회원, 순영은 서너명의 원형인물들을 합쳐서 전형화한것이며 홍춘도는 서울주변에서 쓰리패대장을 하던 인물을 원형으로 한 형상이었다는것을 통해서도 알수 있다.

소설에서는 원형의 실제생활이 그러했던것처럼 주인공과 관계되는 주요인물들을 많이 설정하지는 않았다. 작가는 원형과 사실에 발을 붙이고 한명한명 작중인물의 성격과 생활을 보석처럼 닦아서 새롭게 빛을 뿌리는 성격들로 형상하려고 하였다.

작가의 진지한 노력이 조국통일주체의 장편소설문학에서 새롭게 보게되는 성격들을 안아왔다.

독자들에게 쓰라린 교훈을 남기는 전향자 장영초, 그가 문이정, 라창문(장편소설 《최후의 한사람》)이들처럼 너절한 변절자로 굴러 떨어지지 않았지만 전향한것으로 하여 가책속에 정체를 숨기고 사는 장용세(장편소설 《인생항로》)나 하정례(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 《별의 세계》)들과 달리 출소후에도 통일운동에 적극 참가하며 북에 있는 처자를 그리워하며 북으로의 송환을 위해 뛰어다니는 인물로 형상한데만 있는것이 아니다.

전향의 딱지가 붙어있는것으로 하여 통일운동을 마음대로 벌이지 못하며 북으로의 송환의 희망을 끝내 성취하지 못하고 몸부림치는 그의 생활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부모처자에 대한 진정한 사랑도 통일애국의 참다운 지향도 혁명적신념을 드립없이 지켜내는 길에서만 꽃피울수 있으며 그길에서 한걸음이라도 빗디딜 때 엄청난 불행과 수치가 차례지게 된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고 있다.

교훈을 안은 성격은 김현석이 지닌 행복을 안아온 신념의 세계, 사랑의 세계의 숭고함과 아름다운 무겁게 반증해준다.

공화국의 품에 안긴 비전향장기수 누구나 겪은 생활이 취급되고 있지만 행복에 관한 문제성이 새로운 의미를 띠고 부각되도록 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작중인물형상에 바쳐진 작가의 탐구의 뜨거운 숨결은 형사인 민태오의 성격창조에도 미치고있다. 민태오가 이 주제의 장편소설들에서 볼수 있는 교형리들과 구별되는것이 제판의 《신념》이 있고 《철학》을 즐기며 《고지식》하고 밤늦게까지 말은 일에 《성실》하고 《열성》적이라는데 있다고만 단정한다면 그것은 그의 성격전모에 대한 옳은 평가가 아니다.

해방후 땅과 아버지를 빼앗아 간 작인들과 《빨갱이》들에 대한 복수의 일념에 불타는 민태오, 정치범들에 대한 전향테로에 악착스럽게 매달리는 그의 《성실성》에는 인간에 대한 《중요》의 사상감정이 깔려있다. 《중요》를 가지고 있는것으로 하여 종당에는 동료들에게도 버림을 받고 사람들의 저주와 규탄속에 생을 마치게 되는 민태오이다. 이 형상이 장편소설 《의리》에서 교형리인 라석규가 신주처럼 모시던 미국놈들의 차에 치워 목숨을 잃는것과 같은 씨원스러운 결말로 된다고 볼수는 없다.

하지만 진실하고 여운이 있다. 동포애, 인간애가 결여된 반통일분자에게는 죽음과 파멸이 차례지게 된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고 있다. 이는 현석이 지닌 신념의 세계야말로 인간에 대한 사랑이 차넘치는것으로 하여 행복을 안아오며 통일에대한 밝은 희망과 신심을 주는 사상감정임을 힘있게 반증해주고 있다.

현도일은 월남자이지만 민태오와 같은 《중요》도 장영초와 같은 《사랑》도 지니지 않은 새로운 성격으로 독자들의 주목을 끌고있다. 정치에는 관계없이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했던만 민태오의 강박에 못이겨 김현석의 비밀을 루설하는 현도일, 북에 사는 동생이 참된 행복을 누리고있다는 소식을 감동과 자책, 뒤늦은 후회속에 듣고 눈물짓는 그였다. 현도일은 사랑이나 중요나, 통일이나 분열이나 하는 물음에 제3의 길이란 없으며 누구나 걸어야 할 진정한 길은 김현석이처럼 아버지

수령님의 사랑의 정치를 따르는 한길뿐이라는 명백한 대답을 주고 있다.

이외에 소설에는 두터운 인정과 남편에 대한 그리움으로 특징지어지는 북에 있는 현석의 안해와 딸 정은이, 현석을 존경하고 따르며 도와주는 《민가협》 회원 순영의 정의롭고 순결하며 리지적이고 지성적인 인물들이 형성되어있다.

이들의 성격은 장영초나 민태오와 같이 새롭지 못하다. 작가의 발견이 약하다. 더군다나 안해의 성격은 남편과 만날 날을 당겨오기 위한 투쟁에 헌신하는 강의한 성격으로 그려지지 못하여 아쉽다.

그렇지만 이들이 풍부한 정서와 열정, 높은 윤리도덕을 지닌현석의 인간적면모를 보여주는데 이바지한 《공로》는 무시할수 없다.

이와 같이 작가는 같은 사상적지향을 가진 가까운 사람들, 적대적 인물성격, 복잡한 생활의 길을 걷는 인간적면모를 다각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파고들어 통일애국에 끓는 신념의 세계의 진리성, 정당성을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분석적으로 풍부하고 생동한 생활로 보여주었다.

작중인물들에 대한 새로운 형상은 결코 작가가 원형의 생활을 피상적으로 대하거나 손끝제간을 부러서는 얻을수 없는것이다.

작가는 작중인물들앞에서 단순히 작가로만 서있으려고 하지 않았다. 현석의 안해가 《되고》순영이가 《되기 위한》작가의 진지한 노력으로 주인공의 성격형상에 이바지되는 인물들이 창조되었다.

작가의 진지한 체험세계에서 우리는 현석의 사상정신세계, 인간세계에 대한 작가의 뜨거운 애정과 열정, 63명중의 1명으로 주인공을 형상하려는 높은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4. 특색있는 구성에 이르기까지

63명중의 1명으로 주인공을 형상하려는작가의 옳은 창작관점과 자세는 예술적형상세계에 대한 탐구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주인공 김현석의 내면심리에 대한 정서적이고 분석적인 묘사, 여러가지 형상수단, 수법들을 자유분방하게 활용한 간결한 언어구사... 그중에서도 눈길을 끄는것은 이체로운 구성형식이다.

작품은 장편소설이지만 단편소설구성형식의 우점도 함께 살려나가고 있다. 비전향장기수의 송환이라는 극적사변을 하나의 극적정황, 계기로 설정하고 내용을 전개한 측면이나 단출하게 인물을 설정하고 인간관계를 간결하면서도 깊이있게 형상한 측면, 수인인 현석에게 어린 순영이가 준 장미꽃송이에 관한 세부를 반복묘사하면서 생활을 전개시킨것은 마치도 단편소설의 구성을 연상시킨다.

지난 시기 많은 소설작품들에서는 단편소설과

장편소설의 구성상특성이 서로 넘을수 없는 장벽처럼 존재하여왔다.

이 소설에서 단편소설의 구성과 같은 특성은 장편소설의 구성상특성을 살리는데 장애로 되지 않았다. 작가는 단편소설의 경우와 같이 전개보다 집중을, 폭보다 깊이를 우선시하면서 장편소설의 풍격에 맞는 생활을 폭넓게 펼쳐어나갔다.

김현석을 중심으로 한 주요인물들의 관계를 종적으로 깊이 파고들면서 작중인물들 호상간의 횡적관계를 다양하게 설정하여 생활을 형상한것이 바로 그것이다. 레하면 김현석과 민태오의 종적관계를 깊이있게 파고들면서도 민태오와 순영이, 장영초, 현도일의 관계속에서 벌어지는 생활을 폭넓게 형상하였다.

소설에서는 일관한 복잡한 사건이 없이 단편소설에서와 같은 높은 밀도로 인물의 내면심리를 묘사하고 있다. 변화되는 내면심리를 발판으로 시점을 부단히 바꾸면서 시공간의 자연스러운 교차속에서 내용을 전개시켜나감으로써 장편소설의 형태적특성에 맞게 생활의 립체성, 풍부성을 보장하였다.

소설은 장편소설과 단편소설구성의 우점을 조화롭게 결합시켜 시대적미감에 맞게 간결성, 명료성을 보장하면서도 웅당한 폭과 깊이로 생활을 펼쳐 주인공의 성격을 특색있게 형상하였다.

작가가 이전 작품들을 창작하던 때와 달리 이 소설에서 체험이 없는 생활을 취급하였지만 실생활의 본색에 맞게 구성형식을 탐구한것은 그만큼

작가가 원형인물의 생활을 깊이 연구파악하여 자기의것으로 만들었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렇다. 문제의 탐구로부터 예술적형상세계에 이르기까지 주인공의 성격형상을 위한 탐구의 세계에서 우리가느끼는것은 원형인물을 자기자신처럼 여기고 그 생활을 자기의것으로 만들려는 작가의 관점과 자세이다. 작가는 원형인물에게자기의 불타는 심장을 맞대여 놓고 박동을 맞추고 호흡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하기에 작가는 원형인물에게서 선군시대정신이 나래치는 새로운 성격적면모를 발견하고 주인공을 웅당한 수준에서 형상할수 있었다.

바로 이것이 원형에 기초하여 성격을 형상할데 대한 주체적문학리론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창작실천에 구현하기 위한 작가의 참다운 창작관점, 투철한 창작자세가 아니겠는가!

이러한 노력으로 장편소설 《나의 추억 40년》의 주인공이 63명중의 1명으로 태어났다. 이 소설이 이미 발표된 비전향장기수주제의 장편소설들가운데서 자기 자리를 당당히 차지하고 조국통일주제 장편소설의 발전면모를 뚜렷이 보여주는 작품으로 될수 있었다.

소설의 성과는 우리 소설가들이 선군시대 작가로서의 숭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간직하고 옳은 창작관점과 자세를 가지고 통일애국투사, 주인공을 형상할 때 서로 류사한 생활경력을 가진 주인공들을 뚜렷한 개성을 가진 63명중의 1명으로 형상할수 있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넓어지는 오솔길

진동화

원호품 이고지고 동구길 나서면
고지우로 곧추 오른 한줄기 오솔길
굽이굽이 에도는 큰길이 있다면
빠른것을 좋아하는 꼭 같은 마음들이
푸른 숲속에 흰피를 펼친듯

풀넝쿨 자랄새 없었구나
농가마다 애지중지 키워낸
소작만한 돼지들이 풍기적풍기적
이 길로 오르고 시내물 막아 발전소 세워주려
서두르는 군화자욱 이 길을 내리고...

좋은 일이 생겨도 기쁜 일이 생겨도
신발에 풀물이 들도록
오르고 내리는 길이여라

장군님 만나뵈은 전사의 아버지도
영웅된 분대장의 장한 소식도...

아 우리 장군님의 원군의 뜻이
넓어지는 이 길에 꽃으로 피어
혈육의 정으로 뭉쳐진 불패의 대오
이 땅을 지켜 성새가 되고
전진하는 조국을 떠메고 가나니

오르면 오를수록 생각 깊어져라
벗으면 살수 없는 피줄기처럼
군민의 넋과 뜻이 통하는 오솔길
지도에 그려있지 않아도
선군령도 승리의 자욱자욱이
조국력사에 새겨져 빛나고 있어라

홍명희와 장편력사소설 《림격정》

정진혁

벽초 홍명희[1888~주체57(1968)년]는 작가로서보다는 주로 저명한 언론인이자 사회활동가로 알려져있다. 그가 남긴 작품으로서는 다부작장편력사소설 《림격정》이 있을뿐이고 당시의 문단에서도 대체로 직업적인 문인으로 인정되지 않았었다. 《신간회》등 여러 사회단체의 지도적인물로서의 그의 정치활동이나 더우기 해방후 우리 공화국의 품에 안긴 그의 사회활동가로서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여준다.

그러나 홍명희는 도교류학시절과 중국러행시절부터 신채호, 한통운, 리광수, 최남선 등과 더불어 근대 조선문단의 초행길을 헤쳐온 명실공히 손꼽히는 작가에 속한다.

홍명희는 1888년 충청북도 괴산군의 명망높은 량반가문에서 태어났다.

그는 일찌기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인 홍범식의 엄격한 교양 밑에서 글공부를 하였다.

열살이 되기전에 그는 젖먹이인 자기를 두고 세상을 하직한 어머니를 그리며 《창승년년생 오모하불귀》라는 한시를 지었는데 이것이 그의 문학창작의 출발점이라고 할수 있다.

그는 11살때에 《삼국지》를 읽었으며 그후 서울에서 《중고의숙》과 일본에서 대성중학교를 다니면서 《수호전》, 《죄와 벌》을 비롯한 많은 세계명작들을 탐독하였다.

그의 인생은 청춘시절부터 순탄치 못하였다.

1910년 당시 금산군수였던 아버지가 한일합방에 통분함을 금치 못하여 자결로써 순국한후 그는 조국을 떠나 중국의 남양 등지를 방황하였다.

다시 조국에 돌아온 그는 주체8(1919)년에 고향에서 3.1운동을 주도하였으며 주체12(1923)년에 리념조직인 《신사상연구회》와 주체16(1927)년 《신간회》결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주체13(1924)년 《동아일보》편집국장, 주체14(1925)년 《시대일보》사장의 직책을 지니고 애국적인 문필활동을 하던 그는 주체18(1929)년에 《<민중대회>사건》으로 투옥된적도 있었다.

홍명희가 력사소설 《림격정》을 창작하여 《조선일보》에 연재하기 시작한것은 주체17(1928)년 11월부터였다.

1920년대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우리 나라 《신문학》은 3.1운동의 반일합성의 여운과 로씨야 10월혁명승리의 영향으로 《프로문학》으로 전환하였다.

《프로문학》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 나라의 《신문학》은 그자체에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다.

《신문학》운동초기의 경향을 살펴보면 반제반봉

건적인 의식이 다분히 내재되어있었으나 그것은 개인적, 감상적저항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비록 근대문학의 형식은 도입하였지만 거기에 사회적의미를 담지 못하였던것이다.

《프로문학》으로 진로를 바꾸면서 비로소 사회적의미, 즉 현실을 투시하는 문학창작운동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민족적인 감정과 피가 흐르는 문학작품들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형식에서 서방문학에 치우치는 편향과 그에 기초한 《신문학》의 민족적형식과의 배치, 민족적정서와의 이질감은 그 단계에서도 극복되지 못하였다. 이것은 당시 근대문학의 고질병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였다.

바로 이런 시대적환경속에서 장편력사소설 《림격정》이 문단에 등장하였다. 《림격정》의 앞부분들인 《봉단편》, 《피장편》, 《량반편》들이 《조선일보》에 연재될 당시 그 반향은 대단하였다.

독자대중의 비상한 감명을 불러일으켰으며 좌익, 우익을 막론하고 이름있는 작가, 지식인들이 다투어 이 작품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으며 글을 읽을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애독하였다. 해방전 장편력사소설 《림격정》은 1,000여회를 연재하는 11년동안에 창작이 중단되어 휴재도 되었는데 휴재가 되면 독자들의 실망과 아쉬움, 기대가 담긴 서신이 편집부에 《홍수처럼》 밀려들었고 다시 연재되면 환영이 《폭풍같았다》고 한다.

여기에는 단순히 내용의 재미나 형상수준의 테두리에서만 논할수 없는 중요한 원인이 있다.

당시 장편력사소설 《림격정》에 대한 많은 작가, 문학평론가들의 반향이 《조선일보》에 실렸는데 그중 몇가지를 들어보면 이러하다.

《벽초선생의 <림격정>은 우리 력사소설의 백미요 또 우리 문단의 최대의 수확이다. 나는 작가의 한사람으로서 또는 충실한 독자의 한사람으로서 선생님께 여러번 그 출판을 중용한 일이 있으나 선생은 늘 그 뜻이 없음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출판하게 되었다하니 그 기쁨은 남달리 더 기쁘바 있다.

단순히 조선말이라는 견지에서 보더라도 이 거편 <림격정>은 천권의 어학서를 읽는것보다 오히려 나을것이니 그러므로 문필을 업하는 사람이고 아니하는 사람이고나를 막론하고 이것은 꼭 읽어야 하리라 나는 생각한다.》(작가 한설야, 《조선일보》1939년 12월 31일부)

《모모하는 대가들처럼 표면에 드러나지 않고 숨어서 30년문학사의 첫페이지에 공헌한분은 벽초

홍명희씨다. 그것을 아는 이는 적다. 그리고 기록에 올릴 문학사가도 드물는지 알수 없다. 그러나 그의 웅변은 씨의 50년을 일관하는 고고한 절개와 함께 우리 문학사상의 일만이천봉이다. 사실주의 문학이 가지는 정밀한 세부묘사수법은 씨에 있어 처음이고 그리고 마지막이 되어도 무방할 것이다. 작은 논두렁길을 걷던 조선어학은 비로소 대수해를 경험하였다. 일방 <림격정>은 대결작의 진품이 어떠한것인지를 우리 속류 역사소설가들에게 제시하였다. <림격정>의 출판은 거대한 유산의 기본인 동시에 금후문학의 굳건한 토대요, 천대이다.》(《조선일보》1939년 12월 31일부)

순수 조선적인것, 《조선نامه》가 풍기는 언어구사와 묘사형상의 모범을 보여준것-이것이 《림격정》이 찬양을 받을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다.

홍명희자신도 그것을 목적하여 장편력사소설 《림격정》을 썼다. 외세에 의해 흐려지고 위축된 조선의 정조를 그려보려는 시도에서 붓을 든것이였다.

하기에 홍명희는 해방후인 주체35(1946)년에 중도반단한 《림격정》후편을 계속 쓰라고 권고하는 문우들에게 자신의 의도가 소설의 인기나 작가적명성이 아니였던것만큼 《민족의 열이 살아난 오늘날 그것을 계속 쓸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슈벨트의 <미완성교향악>처럼 <림격정>은 그만하고 미완성인대로 내버려두어도 무방한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장편력사소설 《림격정》은 미완성작품으로 남아있게 되었다.

홍명희의 문학적견해는 정서를 우선시한것이였다. 그는 《정서를 떠난 추상적인 의무와 도덕의 설교는 문학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작품으로 독자의 의식을 강요해서는 안되며 작품자체에 흐르는 정서로 독자가 저절로 납득이 되게 하는것이 문학이》라고 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그가 예술지상주의자였던것은 결코 아니였다. 그는 《순수문학》을 배격하였으며 정치와 예술의 호상관계문제를 《인생을 떠나서 문학이 있을수 없듯이 문학하는 사람이 정치를 떠나서 존재할수 없다》고 보았다.

그는 해방후에 발간된 잡지 《신세대》기자와의 문학대담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상성이 없는 예술을 위한 예술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술과 사상이 혼연한일체가 된 작품을 만들기 위하여 한편 예술하며 한편 사상하는것이 우리 문학가의 임무겠지요.》

(《신세대》1948년 5월호)

벽초 홍명희는 순결한 민족적량심과 조국애를 지니고 한생을 산 작가이며 사회활동가였다. 그것은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공화국내각부수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의 중책을 지니고 생의 후반기를 걸어온 그의 보람있는 삶의 자취가 뚜렷이 실증하여주고 있는것이다.

해방전 장편력사소설 《림격정》은 일제가 침략전쟁을 미친듯이 벌리면서 우리 인민에 대한 파쑈적탄압을 강화하고 《동조동근》, 《내선일체》를 떠들면서 우리 인민의 민족의식을 거세하려고 날뛰던 시기에 량반통치배들을 반대하여 싸운 력사인물인 림격정에 대한 이야기를 소재로 하여 착취자, 억압자들을 반대하여 일떠선 인민들의 투쟁을 보여줌으로써 일제식민지통치에 대한 항거의식을 고취하는데 적지 않게 이바지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장편력사소설 <림격정>은 현대성이 강한 작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장편력사소설 <림격정>에서 좋은 점은 인민대중의 생활과 투쟁으로 이야기를 엮고 그것을 매우 생동하고 진실하게 형상하고있는것입니다.》

해방전 장편력사소설 《림격정》은 《봉단편》, 《피장편》, 《량반편》, 《의형제편》, 《화적편》으로 나뉘여져있는데 주체29(1940)년~주체30(1941)년에 4권의 단행본으로 출판된것은 《의형제편》과 《화적편》이며 주체71(1982)년~주체74(1985)년에 홍석중의 개작으로 출판된것도 역시 이 부분들이다.

《봉단편》, 《피장편》, 《량반편》은 장편력사소설 《림격정》의 한 부분들이기는 하나 이야기 전개상에서 볼 때 서막이라고 할수 있을것이다.

이야기는 우리 나라 봉건사회력사상 전대미문의 혼군이며 폭군으로 알려진 연산군시절부터 시작된다.

...서울에서 교리의 벼슬을 하던 리장곤이라는 량반이 있었는데 그는 뛰어난 학식과 고상한 인품을 지닌 사람이였으나 연산군의 미움을 받고귀양을 가게 된다. 그러나 리장곤은 귀양지에서 탈출하여 갯바치(백정)부락에 숨어산다. 거기에서 학식있는 백정 양주팔의 도움으로 그의 외조카인 아름답고 총명한 봉단리와 사랑을 맺게 되고 결혼한다. 하지만 봉단리의 부모인 백정부처는 리장곤이 아무 일도 할줄 모르고 밥만 축내는것으로 하여 구박을 한다.

이렇게 살고 있던 차에 《중종반정》이 일어나 연산군은 쫓겨나고 리장곤은 다시 등용되어 높은 벼슬에 오르고 봉단리도 중종왕의 《은총》으로 정부인이 된다.

이때에 리조판서로 있던 조광조는 사림출신으로서 높은 절개와 뛰어난 학식으로 하여 정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임금의 총애를 받고 있었다.

리장곤은 조광조에게 갯바치 양주팔을 소개한다.

양주팔은 젊었을적에 이인 리천년을 만나 신비한 술법을 전수받아 앞일을 예언하고 길흉화복을 알아 맞추며 비길데 없는 학문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중종까지도 그를 령의정감으로 점찍어놓게 된다.

그러나 사림파를 눈에 든 가지처럼 여기고 있던 심정, 남고등의 훈구파대신들은 1519년에 《기묘사화》를 일으켜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출신량반들을 죽이고 탄압하였다.

이때 《신통력》을 지니고 있었던 양주팔은 조광조에게 미리 피신하라고 일켰으나 조광조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있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고 양주팔은 같이 서울로 올라왔던 봉단이의 동생 몽득이를 데리고 도망쳐 중이 된다.

몽득이는 양주에서 장가들어 눌러 살면서 백정 일을 한다.

바로 몽득이의 아들이 립격정이었다.

양주팔은 립격정과 그의 친구들인 리봉학, 박유복에게 무예와 글을 가르쳤고 젊은 립격정을 데리고 백두산에서 한나산에 이르기까지 조선팔도를 돌아다닌다.

그 길에서 서경덕, 황진이 등을 비롯한 당대 명인들을 만나보게 되고 그 과정에 립격정의 안목은 넓어지며 백두산에서는 도망친 노비의 자식들인 황천왕동이의 오누이를 만나 《생마와 갈》은 너자와 결혼한다.

로쇠해진 양주팔은 죽산 칠장사에 자리잡고 생불소리를 들으며 여생을 보내고 립격정은 부모가 있는 양주로 돌아가 본래의 생업인 백정의 일을 계속한다...

장편력사소설 《립격정》은 다주인공소설이라고 보아도 무방한바 소설의 후편들인 《의형제편》과 《화적편》에서는 립격정, 박유복, 광오주, 길막봉, 황천왕동, 배돌석, 리봉학, 서림 등의 기구한 운명들을 제 뿔이 있게 잘 그려내었다.

립격정을 비롯한 작품의 주인공들은 한결같이 정의감이 강하고 의리가 깊은 인간들로 그려졌으며 지혜롭고 용감한 사람들로 형성되었다.

주인공인 립격정만 하여도 봉건사회의 최하층에서 가장 수모받는 백정이었으나 《백정의 자식》이건만 딱 대면하고보니 백정의 자식이라 하대할 수가 없》는 그런 훌륭한 위풍의 소유자였다.

천하장사의 힘과 무적의 검술을 소유한 립격정은 《백정놈의 자식》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눈을 홑뜨고 주먹을 옥죄었으며 도처에서 량반들을 반대하여 싸운다.

소설은 이들의 싸움을 통하여 봉건사회의 테 내에서 인민들의 인간적존엄이 지배계급들에 의해 얼마나 무참히 짓밟혔는가를 생동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윤원형, 리량과 같은 《사모 쓴 도적놈》들을 반대하여 칼을 들지 않을수 없는 생활적인 타당성을 설득력있게 밝혀내었다.

그러나 작품의 후반부에서는 립격정의 투쟁의식의 후퇴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한때에 량반통치배들을 반대하여 잘 싸우던 립격정은 서울에 와서 부화한 풍조에 물젖어 자신도 부화한 생활을 하며 접을 셋씩이나 두고 기생인 소흥이와도 정을 나눈다.

모사 서림이의 체포, 변절로 이 사실이 드러나 첩들이 잡혀가게 되자 서울가까이에 있는 혜음령패를 불러 파옥하려다가 혜음령패의 두목들이 무모한짓이라고 반대하니 혜음령패의 두목 정상갑이를 처죽이고 최판돌이를 병신으로 만들어버린다.

또한 립격정은 성격도 피상하고 무지스러운것으로 묘사되었는바 글이란 한자도 모르는 까막눈이며 녀색에 밝히는것으로 하여 행악을 부리는 자기 처를 발로 걷어차 정쟁이를 부러뜨리는 무뢰한이다. 그리고 청성골의 대두령자리에 앉은후로는 마치도 봉건군주와 같이 행동한다.

이것은 작가의식의 후퇴인것이 아니라 화적 립격정의 갈 길은 바로 이 길뿐이라는것에 대한 강조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과거에도 립격정과 같은 사람들이 통치배들을 반대하여 싸웠지만 이것은 참다운 애국주의가 못되며 오직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와서야 참다운 애국주의가 창시되었다고 가르치시었다.

새로운 지도사상-사회주의사상을 접할수 없었던 립격정의 갈 길은 명백하며 립격정이 벌린 싸움은 단지 조금이라도 제 한몸이라도 고통을 면해보려는 소극적인 몸부림에 지나지 않았다.

하여 립격정의 투쟁은 자연히 실패로 끝나고 만다.

장편력사소설 《립격정》은 지금으로부터 4백여년전의 우리 나라의 각이한 계층의 생활과 자연, 풍속들을 그리고 질은 민족적정서를 나타내었으며 고유한 입말체문장도 효과적으로 리용한 우수한 점을 보여주었다.

장편력사소설 《립격정》은 《대사소설》이라고 규정해도 좋을만큼 작품전반에 대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대사에서 언어구사를 인민성 있게, 현대감이 나게 잘하였기때문에 주정토로가 없어도 묘사가 많지 않아도 작가의 주장과 그를 대변하는 등장인물의 성격이 잘 안겨온다.

《자네는 지금 녀편네맛이 단줄로 알겠지만 그것이 본맛이 아닐세. 녀편네는 오미구존한것일세... 혼인 갓 해서 녀편네는 달기가 풀이지. 그렇지 만 차차 살림재미가 나기 시작하면 녀편네가 장아찌무우쪽같이 짹짹해지네. 그대신 단맛은 가지지. 이 짹짹한 맛이 조금만 쇠면 녀편네는 시큼털털 살구루 변하느니 맛이 시여질 고비부터 가끔 매운 맛이 나는데 고추당추 맵다 하나 녀편네 매운 맛을 당하겠다. 그러나 이 매운 맛이 없어지게 되면 쓰기만 하니.》

우의 레문은 작중인물인 오가가 역시 작중인물인 광오주에게 교훈담으로 들으라고 이야기해주는 대목이다.

단순문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형식의 대사들로서 하여 《립격정》은 우리 인민들속에서 어디 가나 널리 쓰이는 구수한 말마디들로 엮여 생활적이고

세태적이라고 특징지을수 있다.

또한 작품은 등장인물들의 성격도 개성적으로 잘 형상하였다. 주인공들뿐아니라 적개박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들의 성격도 제 나름의 특징을 잘 살려 그려내었다.

레를 들어 력사기록에 성격이 자상하다고 써여진 봉산군수 박응천의 형상을 창조하면서 밤중에 봉산수교가 배돌석을 알아보고 알리러 왔을 때에 먼저 인재를 열어보고 인장이 제대로 있는가를 확인하고서야 이야기를 듣는것으로 묘사함으로써 그 개성적특징을 잘 살려내었다.

장편력사소설 《림격정》은 생동하고 랑만적인 언어구사, 자연풍물묘사를 통해서도 자기의 대작적체모를 완벽히 하고 있다.

《...달은 하늘 북판에 가까이 와 서있고 흰구름장은 온 하늘에 군데군데 떠있었다. 구름이 밝은 빛 가리는것을 달은 좋게 여기지 아니하여 여러 구름장들을 한달음에 뚫고나가려고 달음질을 치는것 같이 보이였다. 달이 구름장에 들어가면 희미하고 나오면 환하여 희미하고 환한것이 련해

석바꾸어 변하였다. ...가을 달밤의 임자는 벌레들이라 샘둥천에도 벌레소리, 채마전에도 벌레소리, 도랑가와 싸리문안에도 벌레소리, 사방에 벌레소리 요란한 중에 별안간 가야금줄 고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작품은 력사기록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등장인물들인 리봉학, 박유복, 배돌석, 황천왕동, 꺾오주, 길막봉 등의 의형제들의 신분을 선택하면서도 당시에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농민출신이 단 한사람도 없었던것은 작가가 농민의 계급적성격을 깊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것이라고 생각한다.

해방전 장편력사소설 《림격정》에는 일부 고담적의의가 없는 장면들과 인물들의 운명이 예언으로서 이미 결정된것과 같은 비과학적인 측면들이 드러난 결함도 있으나 명실공히 이 부류의 작품들가운데서 으뜸가는 자리를 차지하는 작품으로서 이후의 많은 작품들의 창작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결혼축시

김진주

사랑한다면
일생이 지치도록 사랑하기를!
행복한다면
일생이 모자라게 행복하기를!
일생이 지치도록 사랑하기를!

바라노라
축복속에 묻힌 그대들이여
그 밝은 웃음 그 뜨거운 눈빛처럼
얼굴엔 늘 홍조가 가슴엔 늘 희망이
가득차- 그것이 앞날의 봄이 되기를
그 봄세상에서
삶의 아름다움을 한껏 수놓으며
백년이고 천년이고 기쁘게 살기를

바라노라
노래로 웃음으로 차넘친 오늘처럼
좋은 벗들과 살뜰한 이웃들의
아낌 없는 진정을 나날이 계속 받기를

이제 얼마나 벅찬
새 생활의 첫문을 그대들은 열것이나
아침이면 실례는 거리 흥겨운 출근길로
나란히 함께 걸으며 혁신도 약속하리
저녁이면 즐거웠던 하루일의 그 자랑으로

밤이 새는줄 모르고 속삭이리
마을에서는 원앙새부부로 칭찬도 많으리

무엇이 부러우랴
순결로 아름다움으로 만발한
그리도 좋은 이 하늘 이 땅이
그대들의 삶을 마음껏 요구하고 있다
축눈부신 태양의 찬란한 빛발이
그대들의 미래를 활짝 열어놓고 있다

온 세상이 비좁도록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
행복하고 또 행복하라
셋이든 넷이든
선군의 복동이들을 마음껏 낳고 또 낳으라
축복받은 이 땅이 흥성거리게
부강하는 내 나라가 더 밝아지게

좋은 시대 좋은 세월
우리 장군님을 어버이로 모신
화목한 대가정에
선군의 한떨기 꽃으로
길이길이 만복이 있으라
자 우리 축하의 노래부르자
축배의 잔을 높이 들자

류바-류부슈까

와실리 벨로브

김여삼역

1

류바는 하루일을 마치고 땅거미가 지기 시작한
고요한 들을 지나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쟁개
비새들이 겁에 질린듯 울어대며 그의 머리우를
날아왔다. 골짜기들마다 안개가 감돌아흐르고 들
에는 귀뚜라미소리가 구성졌다. 바람 한점 없건만
풀밭은 부드럽게 설레이고 있었다. 류바는 이러한
골짜기를 끼고 펼쳐진 부드러운 풀밭길을 걸어가
는것이 여간만 즐겁지 않았다.

무엇때문에 쟁개비새들이 저리도 슬피 울고있
을가? 머리에 털이 부시시한 저 새들이 무슨 생
각을 하겠느냐만 머리우를 날아며 울고있는 까
닭은 아마 제 둥지에서 점점 멀리 떨어져간다는
근심때문일것이다. 물론 그 새들이 해별에 감실감
실 타고 마른 풀내가 뻗 처녀들의 손이 무서워서
울지는 않을것이다.

어둠이 숲속에 머물러 쉬고 있는지 아직 마을
까지 찾아들지는 않았고 집안은 흰했다. 빼치까뒤
침대맡에는 무엇인가 숨어있는듯 했고 상우에서
는 싸모와르가 가냘프게 신비스러운 노래를 부르
는것만 같았다. 싸모와르는 별의별 소리를 다 냈
다. 상을 마주하고 앉아 가만히 듣노라면 정월의
눈보라소리를 내는것만 같아 몸이 오싹해지기도
했고 조용히 울리는 결혼식종소리를 듣는것 같기
도 했고 난데없는 아낙네들의 노래소리를 듣는것
같기도 하였다. 류바는 황혼이 깃든 저녁마다 그
《노래소리》를 듣는것이 무척 기뻐다.

어머니가 마당에서 우유통을 들고 현관에 들어
와 쇠하고 우유를 단지에 쏟는데 고양이와 냉큼
방바닥에 뛰어내려 우유를 달라고 야옹거렸다. 싸
모와르는 그냥 소리를 내며 꿇었다. 처녀는 차를
마시다 말고 맨발로 소리없이 어머니에게 다가와
말했다.

《어머니, 내가 있지 않아요. 내가 오기전엔 하
루 일을 다 끝내지 못한다고 하구선. 우유는 내가
짜겠어요...》

《야, 요놈아!》 어머니는 딸의 지청구는 듣지 못
한듯 고양이를 욕했다.

《우유를 접시에 담아놓지 않았니. 어서 가서 먹
어.》

고양이는 혀를 날름거리며 접시의 우유를 핥기
시작하였다. 어머니는 싸모와르의 꿇인 물로 우유
통을 씻어내고 남새를 데쳤다.

《류바야, 류부슈까야! 밤도 퍼그나 깊었다. 어서
가서 자거라.》

모기 한마리가 가제천가림을 한 현관창문쪼으
로 방안에 날아들었다. 앵앵대는 모기소리는 어둠
속에서 가까와졌다 멀어졌다 하였다. 그 소리를
들으며 하루 일에 지친 류바는 스르르 잠에 들었
다. 처녀의 얼굴에 웃음이 비졌다. 대낮에 받았던
인상이 꿈으로 보였던것이다. 지붕우에 비방울이
똑똑 떨어지다가 멎었다.

새벽녘에 들과 수림우에 노을이 비끼기 시작하
였다. 아직 마을은 자고있었고 김이 서린 내가도
잠들고 있었다. 수림속 어데선가 송아지를 찾는
암소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그에 화답하듯 아직
잠에 취한 목동의 북소리가 울리었다. 사위는 쥐
죽은듯 고요하지만 마을은 벌써 살아숨쉬고 있었
다.

류바는 아름다운 꿈을 꾸었다.... 사람들이 많
이 모여 명절놀이를 하는데 처녀들의 머리뎡기들
이 아롱지여 보였다. 어데선가 멀리에서 알지 못
할 음악이 은은히 울려오고 낯설면서도 안면이
있는듯 한 사람들의 얼굴이 얼른거리는데 류바는
그들속에서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그런데 아무리
애쓰며 찾았으나 그 사람을 찾지 못해 처녀는 안
타까왔다. 류바는 음악소리가 나는곳으로 정신없
이 달려갔다. 힘이 진했다. 처녀는 그냥 사람들속
을 누비며 찾고 있었다. 드디어 그 사람이 나타나
가까이 오자 심장은 방망이질하였다. 이제 곧 그
충각과 만날것이다. 심장은 두근거리고 모든것이
눈앞에 얼른거렸다. 어서 빨리 가자. 류바는 숨이
턱에 닿았다.... 이때 처녀는 달콤하면서도 심란
한 꿈에서 깨어나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었다. 점
점 희미해지는 달콤한 꿈을 잡아두려고나 하듯이
...

류바는 창문의 가제천을 걸어올랐다. 이른 아침
의 해살이 방안에 흘러들었다. 꿈은 깬으나 마음
은 여전히 뒤숭숭하고 산란하였다. 무슨 꿈을 꾸
었더라? 명절놀이? 아니면 많이 모인 사람들? 아
니야. 그건 아니야.

류바는 왜서인지 서둘렀다. 무엇인가 보고싶었
다. 무엇인가 눈앞에 얼른거리다가 사라졌다. 무
엇을 보고싶어했더라? 눈앞에 얼른거렸던 사람은
누구였더라? 차라리 생각을 말자. 류바는 웃을 입
으며 딴 생각을 하려 했으나 꿈에서 느꼈던 흥분
과 기쁨이 해종일 떠날줄 몰랐다.

×

저멀리 무한대로 펼쳐진 하늘이 더위에 시달려 허덕이고 있었다. 대지를 덮은 푸른 하늘은 아직 어둡시그레한데 구름변두리는 붉게 물들었다. 태양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푸른 창공을 헤엄쳐갔다. 푸른 대지에 바람이 불어와 갑자기 풀들이 설레이고 내가에 잔물결이 일었다. 서늘한 바람이 사람의 얼굴을 애무해주었다.

젓소들이 꼬리를 잔등에 사러올리고 마을에 들어선지 오래다. 서늘한 우리속에 서있는 젓소들 등에들이 달라붙어 성화를 먹이였다.

암닭들이 수탉의 뒤를 따라 동구밖에서 놀다가 방금 꺼낸 재처럼 따거운 길가의 먼지를 파헤치고 배를 땅에 붙이고 누웠다. 수탉은 너무 더워 가쁜 숨을 쉬면서 울념도 못했다. 길가의 밀밭에서 훈훈한 바람이 불어왔다. 다리목의 도까비사초도 죽은듯이 서있었고 호밀을 실은 달구지가 덜컹거리며 오다가 멎었다.

한손에는 달구지앞체에 맨 고삐를 쥐고 다른손으로는 채양을 하고 해를 쳐다보던 류바는 갑자기 달구지에서 뛰어내려 강가로 달려갔다. 강물은 다리목에서 두갈래로 갈라졌다. 다리밑에 갈밭변 두리가 보였다.

《아이, 물 먹구파. 목이 말라 죽겠네!》

아그네이카도 강가로 달려가 장화를 벗고 부끄러움도 잊고 흰 허벅다리를 드러냈다.

처녀들은 서로 물을 끼얹으며 놀다가 다리밑의 큰 돌우에 앉았다.

《아그네이카, 덤지?...》

류바는 살뜰히 아그네이카의 얼굴에 자기 뺨을 가져다댔다.

《지난밤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아니?...》

《보나마나 도회지꿈을 꾸었겠지. 애, 류바, 넌 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니?》

《생각하긴...》

《거짓말! 난 못숙여. 어쨌든 뭘 생각하고있지? 하지만 난 아무런 생각도 없어. 속상할 땐 한바탕 울고나면 돼. 그리구선 또 한주일동안 웃어대구.》 아그네이카는 발로 물장단을 치며 노래를 불렀다.

처녀들아 여기는

호수가 아니고 강이란다

처녀들아 이진

총각이 아니라 반머저리란다

그리고는 무릎을 치는 깨끗한 강을 지나 풀밭으로 달려갔다.

《류바, 저것 좀 봐. 저 동무가 선이나 보러 가는것처럼 옷을 쪽 빼입었다야.》

다리 맞은편쪽에서 반짝거리는 구두를 신고 격자무늬와이샤쓰를 입은 아쁘리하가 오고있었다. 그는 다리란간너머로 뒤편 하고 침을 뱉고는 아그네이카와 류바하고 악수를 나누었다.

《달구지를 몰고 갔겠어?》 총각이 물었다.

《그래요. 동문 빈둥거리고 우린 동무대신 달구지를 몰구요. 어딜 가게 그렇게 쪽 뺐어요?》

《수속때문에. 리쵸베트로 가는 길이야.》

《난 또 결혼등록이라도 하러 가는줄 알았지!》

《아그네이카, 정 이럴네키야?》

《류바하고 동무결혼식에 가서 춤이나 실컷 출가?》

《정말 이러기야?》

《그렇게 생각했다지 않아.》

아쁘리하는 다짜고짜로 아그네이카에게 달려들어 그의 허리를 그려안았다. 아그네이카는 숨이 넘어가는 소리를 냈다. 그리고 어느새 정신을 차릴 사이없이 풀밭에 벌렁 나가넘어졌다.

아쁘리하는 한참후에야 만족해서 물러섰다. 얼굴이 빨개진 아그네이카는 숨이 차서 쉼쉼거렸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듯이 벌떡 일어났다. 처녀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되었다.

《그렇게 생각했다잖ాయ...》

아쁘리하가 아그네이카에게 또 달려들었으나 처녀는 어느새 날쌔게 몸을 피했다. 그리고는 또 다시 총각에게 가까이 가며 소리쳤다.

《류부슈까, 넌 왜 내 편을 들지 않니?》

아쁘리하는 류바를 힐끔 곁눈질하고 담배를 피워 물었다.

《이 정신 봤나, 깜박 잊었군. 리쵸노마을처녀들이 동무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어. 오늘 저녁 무도회가 있대. 나도 함께 오라구 했는데 난 우리 마을 처녀들이 가야 나도 간다고 했어. 어떻게 할래. 가겠어?》

《류바, 갈가? 우리가 리쵸노에 가본지도 오래다. 자뻘찌예마을동무들도 올거야.》 아그네이카가 말했다.

《그렇구말구. 그 동무들이 손퐁금을 가지고 온겠어.》 아쁘리하가 맞장구를 쳤다.

《자뻘찌예마을동무들이라구? 난 아직 리쵸노마을동무들도 자뻘찌예마을동무들도 본 일 없어.》

《자, 받으라구, 초청장이야. 가겠어? 난 혼자라도 갈테야. 마음이 있으면 같이 가자구.》

아쁘리하는 물도랑옆 질경이들이 자란 오솔길로 해서 마을을 향해 걸어갔다. 류바는 글썽지를 펴보았다. 학습장에서 뜯어낸 종이에 쓴 몇시까지 리쵸노의 어느 집에 와달라는 초청장이었다.

《가불가, 아그네이카?》

아그네이카는 달구지에 올라앉아 고삐를 풀며 말했다.

《류부슈까. 저녁에 네 흰 장화를 좀 빌려주렴.》

2

리베노마울로 가는 길이 수림과 월굴나무밭을 지나 갈라졌다 합쳐졌다 하면서 저 멀리로 뻗어갔다.

여름에 두 달구지가 겨우 어길만한 오솔길로 젊은이들이 걸어가는데 메뚜기 놀라 푸드득 날아올랐다.

젊은 사람들에게 8키로미터쯤 걷는것은 즐거운 일이었다.

흰 장화를 신문에 싸들고 맨발 벗은 아그네이카가 맨 앞장에서 걸었다. 그는 달려드는 모기를 쫓으며 걷다가 빨간 딸기밭을 만나면 허리굽혀 따기도 하였다. 처녀는 한창 류행인 검은 치마에 빨간 썬타를 입었다. 웃옷은 아쁘리하에게 맡기었다. 총각은 버드나무 회초리를 만드느라 그러는지 아니면 다른 일때문인지 좀 뒤에 떨어졌다.

해는 이미 서산에 기울었다. 해종일 해별에 탄 건초내와 딸기내, 싱그런 잣나무송진내가 상긋이 코를 찔렀다. 류바는 강을 건널 때 검은 치마를 걸어올렸다. 모기떼들이 성화를 먹었다. 장난꾸러기 아그네이카는 아쁘리하의 흉내를 내면서 총각들이 부르는 노래를 불렀다.

동무야 노래하자
유쾌한 노래를
저 산너머 아낙네들
듣도록 큰소리로

아그네이카의 목청은 듣기 좋았다. 더구나 솔밭 속에서 울리는 그의 노래소리는 더욱 그러하였다.

나는 동무하고
다리를 건너가
처녀들을 꺾어왔다네
키 작은 두 처녀를

해님은 숨어버렸다. 습기를 머금은 풀들은 늘어지고 모기들은 기승을 부렸다.

《아이구, 모기가 사람을 죽이네!》 아그네이카는 투덜거리고나서 또 총각들의 목소리로 한곡조 불렀다.

잇담배를 피우던 총각
이제는 권연을 피우네
아직 코수염도 없는 주제에

뒤를 따르던 아쁘리하가 굽인돌이에서 소리를 질렀다.

《처녀동무들! 여기서 곧추 가면 빨리 갈수 있어!》

그는 길가의 버섯대가리를 밟아뚫개면서 일행을 따라와 아그네이카에게 웃옷을 주었다. 그들은 아쁘리하가 알고있는 직통길로 꺾어들었다. 총각이 담배를 입에 물고 성큼성큼 걸어가며 버드나무회초리를 휘둘러 모기를 쫓았다.

오솔길을 따라 가노라니 건초날가리가 나졌다.

강건너에 방목지가 보이고 그 뒤로 리베노마울이 펼쳐졌다. 강가에 이르러 아쁘리하는 귀를 강구고 들었다. 마을쪽에서는 아무런 기미도 없었다.

류바는 발을 씻으려 강물에 들어서며 말했다.

《창피스럽게 우리가 남보다 먼저온게아니야?》

이때 조용하던 마을쪽에서 손풍금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에 아그네이카는 대번에 기분이 달라졌다.

《아쁘리하, 돌아서서 보지 말아요.》

《제가 무슨 공주라구.》

아쁘리하는 풀밭에 앉아 아그네이카와 류바가 웃을 갈아 입고 양말을 신을 동안 가만히 앉아 담배를 피우며 기다렸다.

강가에는 안개가 서리고 뜸부기가 울었다. 리베노마울에서 손풍금소리가 갑자기 멎었다.

그러나 그것은 잠간사이였다. 그동안 마을에서는 처녀들이 동무들을 찾아 이 집 저 집 뛰어다녔고 조무래기들은 숨박꼭질을 그만두고 형님, 누나들을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

거리는 환하게 밝아지는듯 하였다. 황혼이 깃든 밤거리에서 처녀총각들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손풍금을 어찌나 멋지게 타는지 류바도 아그네이카도 심장이 갑자기 몽클해졌다.

자뽀찌예마을청년들이 도착하였다. 그들이 온 마을을 도는데 리베노마울청년들은 존경의 표시로 그들에게 길을 내주었다. 자뽀찌예마을청년들은 마을 한복판에 다시 돌아와 커다란 집결에 모여섰다. 총각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처녀들은 구름나무아래에서 몸치장을 하였다.

많은 청년들이 모였다. 류바는 아그네이카와 함께 그곳으로 갔다. 손풍금수는 피우던 담배불을 제껴 구두뒤축에 대고 끄고 손풍금을 어깨에 댔다. 자뽀찌예마을의 두 총각이 춤추기 시작하였다. 이때 리베노마울처녀들이 다른 춤판을 벌리었다. 아쁘리하도 그 춤판에 끼어들었다. 류바와 아그네이카는 그 자리에 그냥 서있었다. 류바는 순간 눈을 감았다. 무도곡을 타는 손풍금소리, 웅성웅성 떠드는 사람들의 말소리...

류바의 가슴은 지난밤 꿈을 꿀 때처럼 달콤하면서도 심란하였다. 류바는 눈을 떴다. 너무 흥분

하여 심장이 멎는것만 같았다. 작은 키에 눈썹이
검실검실한 알지 못할 총각이 갑자기 자기에게
얼굴을 돌리는것이였다. 그는 류바와 눈길이 마주
치자 인차 얼굴을 돌리였다. 류바도 얼굴을 돌리
였다. 하지만 그의 눈길을 감축하였다. 순간 처녀
의 얼굴은 상기되어 붉어졌다. 처녀는 흥분하여
손수건만 만지작거리면서 아그네이카가 말하는
소리도 듣지 못하였다.

《류바, 우리도 춤을 추자. 우리가 남보다 못한
게 뭐야. 자, 추자!》

아그네이카는 손풍금수가 가까이에 다가갔다. 손풍
금수는 낮은 소리로 악기를 타면서 자기 귀에 대
고 무어라고 속삭이는 아그네이카에게 머리를 끄
덕여보였다. 류바는 이 모든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류바는 자기가 하나의 류바가 아니라 두
사람의 류바인듯 싶었다. 하나는 여기에 서있고
다른 하나는 다른곳에 서있는듯 하였다. 처녀는
옆에 선 총각을 쳐다볼념을 못하고 있는데 총각
은 그냥 옆에 서있었다.

아그네이카가 춤판에 뛰어들었다. 모두가 날씬
하고 활달한 그 녀자를 눈여겨보았다. 손풍금수는
다른 곡을 타기 시작하였다. 아그네이카는 춤을
멈추고 구성진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웨노치까 힘이 진했구나
조용히 부르렴
목소리가 말을 안들어
노래가 안나온다

춤판은 점점 흥겨워지고 뒤에 선 사람들은 모
두 구경을 하려고 둘러섰다. 아그네이카는 류바
맞은편에 서서 또 한바탕 노래를 불렀다.

처녀들이 겨울은 여름이 아니란다
발에 귀밀을 심지 말아라
아무나 사랑할수 없단다

원래 춤숨씨가 있는 아그네이카는 멋진 손풍금
반주에 더 흥이 나서 돌아갔다. 여전히 가슴이 설
레여 얼굴이 빨개있던 류바는 좀 용기를 내기 시
작하였다. 그는 자리를 피하려고 생각했다가 아그
네이카를 생각해서 그냥 서있었다.

류바 춤판에 나서라
우리 함께 춤을 추자야

아그네이카는 노래를 부르며 류바에게 다가갔
다.

류바는 춤판에 나섰다. 그는 언제 한번 이렇게
많은 사람들앞에서 춤을 춘 일이 없었다. 그리고
이때처럼 좋은 노래들이 머리에 떠오른적도 없었

다. 류바는 춤을 추면서 어깨가 쩍 벌어진 그 미
남자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것을 보았다. 그 총
각은 아쁘리하와 함께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였
다.

류바는 마지막으로 춤판을 돌고나서 아그네이
카와 같이 군중들속에서 빠져나왔다. 그들은 말없
이 거리를 거닐었다. 두 손풍금수는 계속 무도곡
을 타고있었다. 마을은 잠들고 조용했건만 두 집
만은 사람들로 웅성거렸다. 밤이슬이 벌써 내리고
수답이 울어대고 집집의 대문들이 삐걱거리며 열
리였다.

류바는 곁에서 아그네이카가 하는 말소리를 알
아 듣지 못했다. 그는 실컷 울고도 싶었고 노래를
불러보고도 싶었으며 흰 안개를 타고 이 마을에
서 어디론가 멀리 날아가보고도 싶었다.

자뿔찌예마을 손풍금수는 노래를 부르기도 하
고 한탄도 하고 웃기도 하였다.

아, 얼마나 아름다운 리삐노마을인가! 자뿔찌예
마을은 어디있을까? 여기서 8키로메터는 더 될거
야. 류바는 한번도 가본적이 없는 그곳을 생각하
였다.

자정이 훨씬 지나자 놀이는 좀 즘즈해지고 춤
을 추는 사람도 적어졌다.

어느덧 밤을 지새며 무도곡을 타던 손풍금소리
도 멎어버렸고 청년들이 떠드는 소리도 잠잠해졌
다.

아쁘리하는 류바와 아그네이카에게로 다가와
집으로 가자고 하였다.

류바는 아쁘리하에게 함께 담배를 피우던 총각
이 누군지 묻고싶었지만 차마 그 말을 입밖으로
내지 못했다.

그런데 로상에서 아그네이카는 우정 들으라는
듯 자뿔찌예총각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것이였다.

3

날은 흘러 여름도 지나 가을이 되였다. 딸기철
도 지났다. 풀베기와 가을걷이도 끝났다. 창밖의
라비나도 빨강게 물들었다.

리삐노마을에서 지낸 밤에 대한 달콤한 그리움
이 류바의 머리에서 떠날줄 몰랐다.

류바는 눈썹이 검고 눈이 새파란 자뿔찌예총각
이 자꾸만 생각났다. 류바는 하루에도 몇번씩 리
삐노마을쪽을 바라보곤 하였다. 수림속으로 사라
진 리삐노마을로 가는 오솔길 저멀리에 두개의
건초날가리와 키높이 자란 전나무가 거뭇게 보였
다. 류바는 그 두 건초날가리와 전나무를 보기에
앞서 수림이 들끓날쫓한 다른 고장을 바라보았다.
거기도 같고 같은 고장이건만 그곳의 건초날가리
를 보기만 해도 류바의 가슴은 후두둑 뛰었다.

이윽고 비가 내렸다. 검푸르던 건초더미가 누런

재빛을 띠었고 그대신 전나무들은 회청색으로 더욱 두드러져 보였다.

류바는 그 누가 리베노와 자뿔찌예에서 있는 이야기를 꺼내기만 하여도 심장이 놀뛰었고 더구나 자기가 그날 저녁 입었던 옷가지들을 볼 때면 가슴은 마냥 설레었다. 류바는 그 어디로도 갈 곳이 없건만 째미 있으면 옷장에 걸어놓은 검은 치마와 비단브라우스를 꺼내 다림질을 하곤 하였다.

리베노에서의 무도회놀이는 더 벌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청년들이 자뿔찌예에도 가지 않았다. 제 교장에서의 놀이는 예전이나 다름없이 그리 흥미없었을뿐더러 지금에 와서 싫증이 났던 것이다.

대신 아그네이카가 매주 토요일마다 바빠 오갔다. 아쁘리하가 초모된것이다. 그들 둘은 리베노에서의 놀이를 감감히 잊었다. 류바는 좀 우둔해보이는 아쁘리하가 귀여워보이고 마음은 산란해졌다. 그때 아쁘리하는 자뿔찌예총각과 한성냥에 불을 붙이고 담배를 피웠던것이다. 물론 두 총각들이 서로 알고 있는지는 오랫동안.

어느날 류바는 달콤한 꿈에서 깨어났다. 그날밤의 놀이를 꿈꾸었다. 그 알수없는 음악이 또다시 울리면서 자기를 부르는것이였다. 류바가 비좁은 사람들째을 뚫고 눈이 새파란 자뿔찌예총각한테로 부끄럼도 없이 무작정 가보니 그는 틀림없는 그 총각이였다. 그런데 그것은 꿈이였다. 어찌나 서운했던지 처녀는 소리없이 베개에 얼굴을 묻고 슬게 울었다. 이것은 리베노에서의 놀이가 있는 석달후의 일이었다. 비온 뒤 강물은 봄의 눈석이때처럼 불어나 발과 발이랑을 타고 흘렀다. 새들이 우짖고 집집의 굴뚝들에선 연기가 피어오르지 못하였다.

벌거벗은 수림속에서 들쭉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바람은 전나무가지에 걸려 잠들고 있었다. 지평선상의 고요한 어둠은 희게 보였다. 가을의 대지가 휴식을 하고 있었다.

×

작업반장이 어제부터 류바와 아그네이카를 감자캐기에 동원시켰다. 처녀들의 고무장화와 삽에 진흙이 잔뜩 달라붙었다. 손가락은 추위에 얼어 경련을 일으킬 정도였다. 삽을 땅에 쿡쿡 박으며 감자년출을 들어내는 류바의 머리수건밑으로 머리채가 드러나보였다. 적갈색나는 감자알은 그리 크지 못했다. 류바는 감자를 캐는 족족 광주리에 던져넣으면서 이따금씩 허리쉬를 하였다. 점심때까지 겨우 감자 세마대를 캐다.

아그네이카는 감자마대에 앉아 휴식하였다.

《아쁘리하는 또 어디 가서 오래 있니?》

류바는 동무들 처다보았다.

《왜, 아쁘리하가 꼭 있어야만 하니?》

《그럼 누가 감자를 나르겠니?》

《야, 저기 온다야. 범도 제 소리를 하면 온다더니. 또 어딜 가는 모양이지.》

아쁘리하가 탈곡장쪽에서 나타났다. 그는 비옷을 제끼고 아그네이카곁에 앉았다.

《처녀들! 우린 군대에 나가. 20일에 떠나.》

아그네이카는 처음 그 말을 믿지않고 《거짓말!》하고 말하고는 잠자코 있다가 쏘프린 눈으로 아쁘리하를 쳐다보았다.

《정말이야요. 아쁘리하?》

《정말이잖구. 거짓말인줄 알아. 리쑤베트에서 자뿔찌예의 꼬스짜하고 함께 오라는 호출이 왔어.》

그 말에 류바의 뺨은 빨개지고 심장은 쿵쿵 뛰었다.

《자뿔찌예의 그 총각도?》 류바는 조용히 물었다.

《생각나지. 리베노마을에서의 놀이때 나와 함께 서있던 키작은 총각말이야. 나하고 동갑인데 같이 떠나게 됐어. 송별연에 올거야.》

《류바, 너 왜 그래?》 아그네이카가 류바를 새삼스러운 눈길로 보며 물었다.

...

류바는 마을을 향해 길도 아닌 발을 가로 질러 허둥지둥 달려갔다. 방안에 들어서서 거울우에 걸어놓은 달력을 보는 류바는 제 정신이 아니였다. 오늘은 17일이였다.

사흘동안은 류바에게 있어서 행복과 기쁨, 불안의 나날이였다. 아그네이카는 매일 찾아와서 류바의 옷을 빌리곤 하였다.

아쁘리하어머니는 맥주를 만든다, 방바닥을 닦아낸다 하면서 바빠 돌아갔고 아쁘리하는 20일에 쓸 송아지를 잡았다. 송별연에 꼬스짜와 함께 리베노마을총각 두명이 참가한다는것이다.

어제밤 류바는 거의 뜯 눈으로 새웠다.

어머니는 아침부터 월굴열매를 따러 갔고 류바 혼자만이 집에 있었다. 아그네이카가 찾아왔다. 그는 제격 광술불을 피워 다리미를 달구었다.

《애, 류바. 나한테 푸른 땡기가 있었는데 하루 종일 찾아도 못찾겠구나. 귀신이 곡할 노릇이야.》

《그래? 내게 푸른 땡기가 있어.》

아그네이카는 너무 좋아 류바의 뺨에 입을 맞췄다. 류바는 길다란 눈썹을 내리깔고 천천히 머리태를 따기 시작하였다. 아그네이카는 어깨까지 드러난 흰 팔로 류바의 어깨를 다정히 그러안으며 그에게 속삭이였다.

《야, 류바. 아쁘리하가 날보고 송별연때 자기옆에 앉으라고 하지 않겠니. 그래서 말했지뭘. 내옆에 류바를 앉히기전엔 절대로 옆에 앉지 않겠어요. 저것봐. 누가 온다야.》 이렇게 말하며 그는 창

가에 다가갔다.

《아쁘리하네집에 누가 왔어. 저것 보라는데. 류바!》

류바는 그때 두손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옷장옆에서 있다가 돌아섰는데 산사람 같지 않았다. 류바는 아그네이까보다 먼저 그 총각을 보았던 것이다. 무어라 형언할수 없는 커다란 행복과 기쁨이 여름바람처럼 그 녀자의 피 한방울까지 뜨겁게 해주었다. 아쁘리하네집 넓은 바깥채에는 벌써 청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안채에서는 친척들과 아쁘리하와 함께 군대에 나가는 청년들이 상을 마주하고 앉아 있었다.

그전에 아쁘리하는 아그네이까와 류바를 찾아 떠났다. 새 양복을 입고 머리를 짧게 깎은 그는 단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류바네 집에 들어서면서 말했다.

《왜 이리들 꾸물거려요? 동무들만 안왔어. 류바, 접시하고 술가락을 좀 빌리자구. 우리 집에 모자라서 그래.》

아그네이카는 접시와 술가락을 수건에 닦았다. 셋은 집을 나섰다. 류바는 아쁘리하네 집 계단에 오르면서 술에 취한 사람들의 말소리와 바깥채의 손풍금소리를 들었다.

《자, 동무들! 우리의 귀여운 처녀들이 왔습니다. 모두들 일어나 자리를 내줍시다!》

아쁘리하의 아버지가 상에서 일어나며 반겨 맞이하였다.

류바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상을 마주하고 앉았다.

모두가 떠들썩거리며 말을 주고 받고 있을 때 류바는 꼬스짜쪽을 한번 넘겨다 보았다. 그와 시선이 마주친 꼬스짜는 히죽이 웃었다. 류바는 행복과 기쁨, 흥분으로 하여 얼굴이 빨갭게 달아올랐다.

붉은군대로 가는 길
활짝 열렸다
처녀들이 놀아라
마흔이 될 때까지

아쁘리하는 방 한가운데 들어서며 노래를 불렀다. 손풍금수는 바람집을 힘껏 당겼다. 아쁘리하는 또다시 방안을 왔다갔다하며 발을 구르며 노래를 불렀다.

발을 구르라
천정과 바닥이 울리도록
오늘 저녁 마지막춤이다

아쁘리하는 아버지와 아그네이까, 리삐노의 청년들과 함께 춤을 추며 돌아갔다.

꼬스짜만이 춤판에 나서지 않았다. 그는 머리를 짧게 깎은것이 어색했던지 문설주결에 서있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손풍금소리와 노래소리, 사람들의말소리, 이 모든것은 하나로 어울려 송별연분위기를 한껏 돋구었다. 춤판은 더욱 흥성거렸다.

삐치까가 있는 어둡시그레한곳에 긴 걸상을 가져다놓고 모포로 간막이를 하였다. 류바는 아쁘리하가 아그네이까와 함께 어둡고 조용한 곳에서 또 한차례 춤을 추는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곳에서 무어라고 쭈근거렸다. 그러는데 꼬스짜가 그 어둡속에 들어갔다. 류바는 이제 곧 아그네이까가 나와 자기를 보고 그 총각에게 가보라고 등을 떠밀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류바가 것처럼 오래동안 고대하던 행복, 바라던 행복을 맛보게 될것이다.

5분후 아그네이가가 나왔다. 그는 다정한 눈길로 류바를 보고나서 꼬스짜가 기다리고있는곳을 가리켰다. 류바는 꿈속에서처럼 그곳으로 가서 걸상에 앉았다. 꼬스짜는 다정하게 그리고 대답하게 처녀의 뜨겁게 달아오른 손을 잡았다.

불밝은곳에서는 아쁘리하가 또 춤을 추고 있었다.

4

이튿날 아침에는 눈이 많이 내렸다. 강산을 덮은 생눈은 류바의 사랑처럼 깨끗하였다. 아쁘리하네 집 천정과 거리와 마을, 들을 덮은 흰눈에는 티 하나 볼수 없었다.

이 생눈길우에 방금 지나간 달구지자리가 났다. 달구지자리는 아쁘리하네 집마당에서부터 발을 지나 한적한 이웃마을까지 뻗어갔다. 그 달구지길은 후에 3년동안 처녀들의 추억을 불러일으켰다.

아그네이까와 류바는 현판에 나와 들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서로 몸을 기대고 서서 아무말없이 한가지 생각만을 하고 있었다.

《류바, 가자...》

아그네이카는 제 얼굴의 눈물은 닦을념은 하지 않고 손수건으로 창백해진 류바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이마에 드리운 머리카락을 쓸어주었다.

류바, 우리처럼 행복한 처녀들은 없을거야. 오늘부터 우리는 쏜베트병사를 기다리는 처녀들로 되었으니까...

순간 그의 머리채에 붙었던 눈이 녹아 작은 구슬로 빛났다.

우리 인민에게 해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썩은 일제의 과거죄행을 끝까지 결산하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재침야망을 단호히 분쇄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구호중에서

증언자의 고발

(총련) 홍순련

그대의 어머니로 생각하시라
그대의 누나로 생각하시라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녀인들을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소리를 죽이며 흐느껴우는
그 녀인이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마시라
흘러간 력사라고만 생각마시라
조선의 녀인들이 겪은 그 수난을

그대의 어머니라면
그대의 누나라면
아마도 그대는 미치고 말았으리

세월이 가면 잊혀지는 일도 있고
세월이 가면 아무는 상처도 있다지만
갈수록 더해지는 마음의 그 아픔

일제의 죄행을 온 천하에 고발하는
조선의 녀인들의 그 목소리를
그대 어머니와 누나의 목소리로 들으시라

차라리 그 고통과 함께 숨졌더라면
찢겨진 인생의 넋은
그처럼 고달프지 않았으리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마시라
지나갈 일이라고 생각마시라
조선의 녀인들의 그 증언을

가슴에 묻어두고 파묻어두고
기막힌 한생을 살아오자니
남모르게 흘린 피눈물 얼마였으랴

더는 묻어두고 살수 없어
폭탄처럼 터치는
피해자들의 그 절규를!